

마하무량사 주지 암도 스님
"육바라밀 수행은
고해 건너는 방편"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19일) · 주간

제984호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러워라.

"불교 지적재산권 보호, 동참해주세요"

조계종, 관련 대응 매뉴얼 제작…보호 사업 시행

#2010년 주요 방송사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사찰에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 프로그램의 의도가 좋아 사찰은 적극적으로 촬영을 도왔고 심지어는 촬영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방송이 되고 난 후 사찰은 자체 홍보를 위해 관련 영상을 제공받기를 원했으나 방송사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결국 사찰은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할 수 없었다.

 # 수도권 한 사찰에서 TV 인기 드라마 촬영 제안이 들어왔고, 사찰은 흔쾌히 허락했다. 촬영팀은 사찰 법당 옆에 임시벽을 설치했고, 촬영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제작진들이 돌아가고 난 후 법당 외벽에 적지 않는 손상이 있던 것을 발견했다, 결국 사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벽을 보수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귀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역시 전국 사찰과 성보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원형 콘텐츠가 상존하고 있다. 이들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작품들처럼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불교의 경우 종단과 사찰, 스님 또는 관계인들이 만들었거나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의 권리를 불교문화지적재산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자면 불상, 탱화, 탑, 단청 등 불교미술과 설화부터 불교음악, 수행, 템플스테이 등도 지적재산권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불교계에 형성된 지적재산들이 원형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하는 데 있다. 사찰에서 아이디어와 소재, 비용을 제공해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창작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외주를 통해 2차 창작물을 만들 경우 작품에 대한 권리가 사찰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불교문화진흥법을 제정 · 공포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상황별 종단 표준 계약서도 만들었다.

특히 조계종 문화부가 발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은 일선 사찰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매뉴얼에는 지적재산권 정의부터 △단계별, 매체별 주의점 △표준계약서 양식까지 정리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의 경우 제공한 사찰 정보가 제대로 소개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방송과 영화은 방송 종료 후 가장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받고 미 방영 및 제작중단이 되더라도 해당 사찰 촬영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문화부는 연중 사업으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관련 계약을 맺을 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사찰 및 문화재 촬영하고도
관련 영상 2차 창작물 분류
정작 사찰은 사용 못하기도

종단 표준 계약서 마련 등
재산권 보호 사업 진행 중
종도 인식 개선 · 동참 필요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불교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교지식재산이 활용될 경우 불교계의 뜻과는 달리 불교지식재산이 잘못 사용돼 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교의 지식재산 가치가 방대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사찰과 종단에 중요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단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흐름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종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국제 불교문화 체험 중심 역할 할 것" 진각종은 3월 10일 서울시 성북구 총인원서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교육관, 총인원 주차장 등 신축을 위한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불사에는 성초 총인과 통리원장 회정 정사, 교육원장 경당 정사를 비롯해 서울교구스승들이 참석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지진불사는 비로자나부처님의 법통이 이 땅의 회당대종사에게 전승되고 그 법을 이어서 다시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서원이 구현된 것"이라며 불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제불교기구와의 교류, 연대를 통해 불교문화의 장 · 단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불교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신축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제공=진각종

선지식 탄신·열반 기념사업 '다채'

올해에도 한국불교 선지식 스님들의 탄신과 열반을 기리는 기념행사들이 연중 다채롭게 열린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탄신 150주년을 맞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명인 용성 스님이다. 현재 스님의 기념사업은 (사)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장수 죽림정사, 정토회를 중심으로 준비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3 · 1절 기념법회로 용성 스님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열어 스님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탄신일인 6월 5일에는 죽림정사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스님의 열반 70주년 기념사업도 진행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는 오는 6월 경 북한 불교도과 함께 '만해스님의 사상과 업적, 실천'을 주제로 만해스님 70주기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추본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과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회의를 가졌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불련측은 만해 스님의 항일정신을 높이 사며 추모 다례재 등의 행사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선학원 역시 만해 스님의 열반일인 6월 29일(양력)을 맞아 추모 다례재와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추모 음악회를 계획 중에 있다.

만해학회는 오는 8월 '만해와 심우장, 근대지성과의 교류'라는 주제로 제14회 학술세미나를 열어 만해스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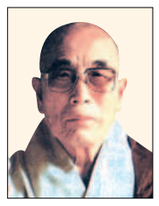
정화 불사의 주역이자 종단 최초 복지법인을 설립했던 근현대 선지식 월하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노천문도회(회장 성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탄신 100주년추모다례제'를 영축총림 통도사 보광전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영축산에 달 뜨거든〉도 봉정된다.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재조명한 〈영축산에 달 뜨거든〉은 '고승열전' 작가인 윤청광 씨가 썼다.

법회 이후인 오후 2시부터는 월하 스님의 수행과 포교, 복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가 통도사 해장보각(도서관)에서 열린다. 〈2면에서 계속〉 신중일 기자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월하 스님


숭산 스님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학술심포지엄 · 기념식 예정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南北 합동 세미나 등 계획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문도회, 25일 세미나 · 법회

숭산 스님 열반 10주년
오는 10월 세계일화대회

남북불교 봉축 합동법회 열리나

민추본 · 조불련, 11~12일 회의… 협의안 긍정 검토

부처님오신날 남북 봉축 합동법회가 북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지홍)는 지난 3월 11, 12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 위원장 강수린)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민추본은 봉축 남북합동점등법회를 평양 광법사와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할 것을 조불련 측에 제안했다. 양측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살펴가며 이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일간의 회담에서 남북은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보수사업을 위한 금강산 신계사 시설점검과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봉행 등에 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조불련측은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 '도담도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추본 측은 이후 조불련과 사업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조불련은 서산대사 국가제향 복원사업의 일환인 해남 대흥사에서의 4월 춘계제향 방한은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도사를 통한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묘향산 보현사에서의 9월 추계제향에는 민추본이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번 실무회담 남측대표단에는 보화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진효 스님(민추본 사무총장) 등 4인이, 북측대표단에는 차금철(조불련 서기장), 송춘일(조불련 부원), 한정철(조불련 전국신도회 부회장), 김석철(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불교 최초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국방부 14일 선발 발표
여성 군종장교로도 최초



최초의 비구니 군승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3월 14일 비구니 명법 스님〈사진〉을 포함한 군승요원 10명, 후보생 4명 등 총 14명의 군종장교 선발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비구니 스님의 군승파송은 불교계로 최초이며, 군종장교로서도 여성은 최초다.

1980년 태어난 명법 스님은 1999년 19세에 마곡사를 재적본사로 출가해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그후 2006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 2010년 어산작법학교 졸업, 2014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했다.

군종특별교구는 국방부가 2013년 7월 군종병과에도 여성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와 협의 하에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해 왔다. 명법 스님을 비롯한 군승 14명은 군종특별교구 주관으로 1월 15일부터 8주간 부산 군수사령부 2보급단 군법당인 금련사에서 설법과 상담, 심리학 등 '입대전 교육'을 이수하였다.

군종특별교구는 "비구니 스님 군승파송은 우수한 군승 자원을 통해 군포교 활성화 및 군의 정신전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종장교들의 입영은 4월 22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이뤄지며 9주 동안 군사교육과 군종병과 교육을 수료한 후 7월 1일 군종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984호 INDEX

시방세계 5
'포교사의 날' 첫 기념법회 현장



종합 2·3
종립학교 발전 '네이밍 기부' 이끈다
새 종책모임 '삼화도량' 출범
3대 빈곤 불교적 해법은

화엄만다라 16·17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회향

제2회 (사)대한불교승가종 호국연무사 수계식 및 위문 대법회

매주 5,000~9,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 생활을 시작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국방의 요람 육군훈련소, 대한불교승가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8일 이곳 육군훈련소 군법당인 호국연무사에서 군장병들의 안전한 군생활과 건강을 기원하며 제2회 위문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뜨거운 마음과 환한 미소로 함께해 주신 5천여 군장병과 후원해 주신 불교어머니회, 수희 동참해 주신 종도 스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장병과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희 동참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승가종 종정 월인스님
원 로 원 장 혜공스님 원 로 위 원 정오스님. 성스님
종 회 의 장 혜륜스님
총 무 원 장 법수스님 포 교 원 장 도안스님 재 무 원 장 무착스님

서울종무원장 정행스님 부산종무원장 봉선스님 대전종무원장 법지스님 울산종무원장 도성스님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스님 경남종무원장 월곡스님 강원종무원장 부루나스님 월인문도장 법종스님

달오정사 법산스님 성주암주지 법등스님 무량사주지 법산스님 일원사주지 보련스님 구미시거주 혁란스님
고성서래암주지 법해스님 봉불사주지 법관스님 문수사주지 문수스님 진불암주지 무구스님 보타암주지 법전스님
총무원거주 무찰스님 용암사주지 선궁스님 운정사 도성스님 내원선원 월산스님 대성사 자원스님
천진사 응진스님 청명사 보련스님 관음사 보우스님 서래암 법지스님 용와사 성화스님 가야선원 혜정스님

법주스님 혜전스님 보명스님 범성스님 묘전스님 묘운스님 묘주스님
도광스님 선조스님 선견스님 선웅스님 혜언스님 법산스님 원명스님
원경스님 지운스님 묘운스님 묘경스님 묘덕스님 동련스님 정광스님 불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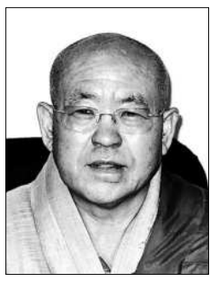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 수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사서함 76-1 호국연무사 / 전화 041)741-3734
후원계좌 : 우체국 90058-01-002522(호국연무사)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사퇴

3월 13일 사표 수리… 토지 매입 의혹 책임 통감한 듯

신임 총무원장 선출 전까지
총무부장 대행 체제로 운영



토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이 대두된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사진〉이 사임했다.

종정 도용 스님에게 제출한 총무원장 도정 스님의 사표는 3월 13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3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종단의 공식 입장이 나올때까지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원장 스님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맞으며, 새 총무원장 선출전까지 총무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천태종 집행부의 한 스님에 따르면 "도정 스님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모 신도로부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접수된 상태라 이에 대해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최근 탄핵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종도와 종단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용퇴를 결심 하신 것 같다"고 신중한 어조로 전했다.

실제로 도정 스님은 2004년 울산 정광사 주지로 있을 당시 사찰 공금으로 땅을 매입했으며, 다시 신도에게 이 땅을 되팔면서 받은 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천태종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종단의 행정 수반이 사적으로 사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책임져야 될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종단 내부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천태종 제 16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도정 스님은 1년 3개월여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돼 종단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임기전에 총무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라는 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기전 사퇴는 2006년 총무원장 운덕 스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취임 이후 26년간 집권한 운덕 스님은 종단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물러났다.

정산 스님이 바통을 이어 받아 14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15대 총무원장까지 재임하며 순항하는 듯 했으나 잔여 임기 2년 8개월을 앞두고 2011년 8월 총무원장에서 물러나 잔여 임기동안 총무부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역시 속내는 내부 갈등이 원인이었다.

한편 도정 스님의 사퇴로 후임 총무원장 선출은 이제 종정 도용 스님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종헌종법에 따르면 종정 스님이 추천한 총무원장 후보는 종의회 동의를 거쳐 다시 종정 스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태종은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부장이 임시로 권한을 위임받기로 돼있어 현 총무부장인 월도 스님 직무대행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면에 이어서

'월하 스님의 계율을 통한 수행의 재조명' 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직접 나서 '월하 스님의 정화불사'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동명대 교수 송운 스님이 '계율정신에 입각한 월하 스님의 수행' 을, 하춘생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월하 스님의 포교인식과 실천이념' 을, 이혜숙 금강대 교수가 '근대불교복지의 회고와 전망– 월하 스님의 자비원 설립을 중심으로' 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와 함께 탄신 100주년 기념특별전도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에서 2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미주 포교의 선구자인 숭산 스님은 올해로 열반 10주를 맞는다. 현재 화계사 국제선원과 숭산 스님이 조계종을 뿌리로 창건한 국제관음선종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기념행사는 제10회 세계일화대회와 함께 진행되며, 스님의 가르침과 유훈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스님의 국내외 제자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정동안 화계사, 수덕사 등을 참배하고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대회를 진행한 뒤 계룡산 무상사에서 10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또한 스님의 행장과 세계 제자들의 추모글, 국제관음선종 활동 현황 등을 담을 문집도 계획 중이다.

신중일 기자

종립대학 발전 '네이밍 기부'가 이끈다

중앙도서관 IC ZONE 개소… 스님 이름 딴 세미나실 눈길

종립 동국대에 불자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국대 단위시설인 중앙도서관이 진행하는 '네이밍 기부' 가 화제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3월 3일 중앙도서관 3층에 'IC ZONE'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정보공유공간의 부족으로 교내 협업 학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IC ZONE에는 소규모 스터디들을 위한 스터디룸부터 창가 쪽에 위치한 1인 좌석, 대규모 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룸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약 300평 규모에 스터디룸 4개소, 세미나실 10개소, 50명을 수용 가능한 컨퍼런스룸 1개소, 캐럴 5개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IC ZONE 개소 후 중앙도서관 페이스북의 접속건 수는 평소 2000여 건에서 개소 후 2만 여 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학생들은 "평소 스터디 때문에 신촌 등지에서 돈을 내고 사용했는데, 학교에 더욱 편하고 좋은 시설이 생겨 너무나 좋다", "따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열람실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등 도서관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이밍으로 기부, 재원 마련

'IC ZONE' 은 중앙도서관에서 '네이밍 기부' 를 통한 확보한 도서관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마련됐다. 2013년도 기부금액만 2억 7000만원에 달한다. IC ZONE 개소에 앞서서는 이 기금으로 협소한 1층 로비 등의 환경을 개선했다.

주요 기부자는 '자비의 전화' 를 설립한 정덕 스님과 일진 스님, 묘주 스님, 진화 스님, 덕문 스님, 일운 스님, 상현 스님, 혜담 스님 등이 참여했다. 사찰로는 한마음선원도 참여했으며 이희구 동부약품 회장, 최석군 올레그룹 회장, 고영일 회장도 동참했다. 각각의 스터디룸과 세미나실은 덕문 · 상현 · 정덕 · 한마음선원 세미나실 등으로 이름 붙여졌다.

종립대학에서 단과대학이 아닌 단위부서 · 시설 차원의 이같은 기부금 모금은 이례적이다. 중앙도서관의 네이밍 프로그램은 계환 스님이 중앙도서관장으로 부임한 후 도서관 기금 모금을 위해 진행했다. 중앙도서관 측은 해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북까페로 변한 중앙도서관 지하1층 로비(위쪽 사진)와 3층에 마련된 IC ZONE 중 덕문세미나실(불교중앙박물관장 덕문 스님 기부)

네이밍 기준을 마련했으며 향후 기금구입 도서에 'Bookplate' 를 부착해 도서기금 기부자를 표시하고, 도서 검색결과에 기부 내용을 표시하고, 내 기부금이 어떤 도서 구입에 사용됐는지도 표시하기로 했다.

계환 스님은 "타 대학처럼 거액을 한 번에 쾌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십시일반 원력이 모이고 있다"며 "후학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도서구입에 쓰여진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흔쾌히 귀중한 정재를 내어 주셨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도서관은 대학이 희망을 키워가며 사회공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시설"이라며 "이용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간, 환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에도 스님 이름 딴 세미나실

이러한 '네이밍 기부' 는 동국대 차원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前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지난해 동국대에 3억 원,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이 1억 원을 기부하며 동국대는 감사의 표시로 혜자 스님의 은사인 청담 스님의 이름을 딴 세미나실과 강의실을 개소하기로 했다. 총 3억 원 이상을 동국대에 기부한 학명 스님의 경우 이미 학명세미나실이 마련됐다.

동국대의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기부금은 연평균 109억 원으로 사립대 중 6위에 자리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윤재웅 동국대 전략홍보실장은 "2008년 2191명에서 지난해 6676명으로 기부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수요자 만족도 중심의 사업에서 네이밍 기부가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 종책연대 '삼화도량' 출범

11일 출범식… "비판 · 견제 · 감시 역할 최선"

원융회, 舊 무차회, 백상도량 등 조계종 종책모임의 연대인 3자연대가 '삼화도량' 으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들 모임의 통합은 '강한 야당' 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삼화도량(회장 영담)은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비판과 견제라는 종책모임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삼화도량은 초대회장으로 영담 스님을 정휴, 법등, 청화, 보선, 학담, 재연스님 등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집행위원장은 장적 스님, 대변인은 장명스님과 혜림스님이, 산하 종책연구소인 삼화연구소장은 법인 스님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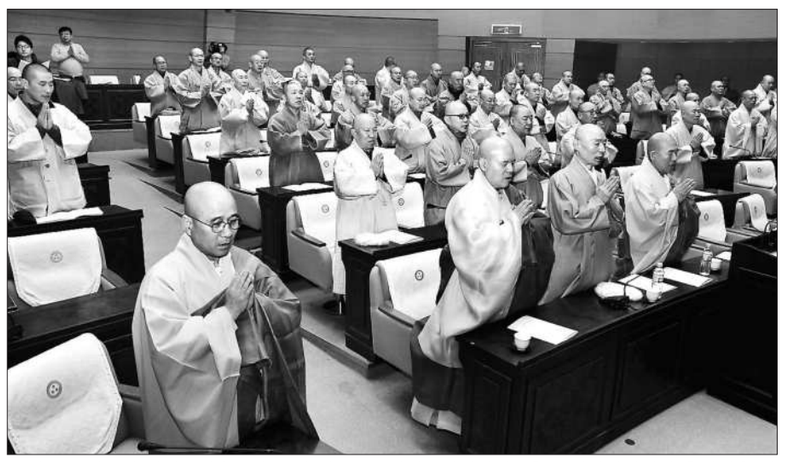
이날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추인된 영담 스님은 미리 준비한 원고 대신 즉석에서 인사말을 발표하고 강한 야당으로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영담 스님은 "눈 앞에 이익을 좇기 위해 명분을 잃고 살지 않겠다. 종도들에게 종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견제로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문 청화 스님은 삼화도량이 견제와 비판, 감시의 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화 스님은 "집행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그 힘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면서 "종책을 타당성과 적절성을 냉철히 분석해 비판하고 종단의 비리, 부정, 비법, 탈법을 감시해야 건강한 종단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구성원 하나 하나는 예리한 '가시' 가 되어 상대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 '가시' 는 명분과 대의에 맞게 써야 그 가치가 드러나고 종도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이 점을 유념해 비판과 견제, 감시의 가시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단 내외로 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스님들이기에 주요한 종단적 과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항상 소통할 것"이라며 "건강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비판과 견제라는 종책모임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삼화도량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모임들의 특성은 유지하되 공의를 모아야 할 종책 제안이나 입법 활동은 상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연합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무분별한 비판으로 연합체 내 의견이 흘러가지 않도록 삼화연구소를 개원해 대승불교를 시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삼화연구소는 향후 연구 종책 과제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무행정 △한국불교의 수행법 대안 마련 △서울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총무원장 권한 축소와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장 법인 스님은 "삼화연구소는 종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 담론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교구 분할에 대한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총무부장 : 천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광덕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국제포교원장 : 중산청목

기획원장 : 진성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서산
규정국장 : 영암,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법산
감찰2국장 : 수산
감찰3국장 : 인산
감찰4국장 : 봉산

비구니 회장 : 지성

총무 : 정해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향인
교무 : 현타,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보현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덕산, 혜승
복지 : 본각, 화광
감찰 : 금산,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련성, 지해, 수욱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 보덕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남종무원장 : 혜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종무원장 : 도명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이기영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설주성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달빛을 켜면 지구가 살아나요"

조계사 에너지 캠페인 협약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가 '달빛을 켜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조계사는 3월 8일 대웅전에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와 협약식을 맺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선포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조계사 신도들은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채식 위주의 소박한 밥상 차리기△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네가지 실천사항들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조계사는 서울 26개 지역, 경기 8지역 등 총 34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계사 지역모임 '우리동네 조계사'와 연계해 일반 불자 가정의 동참을 유도 이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달빛을 켜요 캠페인' 은 일상에서 네 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실천해 보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사는 3월 29일까지 108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알려나가는 동시에 각 가정에서 실천한 인증샷 108개도 전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조계사는 3월 8일 대웅전에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와 협약식을 맺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선언했다.

황우여 새누리 대표 기도회 발언 구설수

2011년 "모든 대법관을 개신교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축사로 물의를 빚었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민들을 중독자로 매도해 구설수에 올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3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황우여 대표가 3월 7일 열린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서 '하나님 이외는 어떤 것도 메이지 않는다.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메이는 것' 이라고 발언했다"면서 "황 대표가 공인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를 중독자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더 이상 국민들을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기자**

근로 · 주거 · 노후

3대 빈곤 해결, 사찰 생활공동체 설립으로

불교사회硏, 3대 빈곤 불교적 해법 보고서 발간

최근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빈곤층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주거?노후 등 3대 빈곤 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최근 발간한 〈3대 빈곤 실태의 조명과 불교의 역할〉에서 3대 빈곤의 실태를 조명하고 불교적 대응을 모색했다. 보고서의 책임 집필위원으로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공동집필위원에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혜숙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객원교수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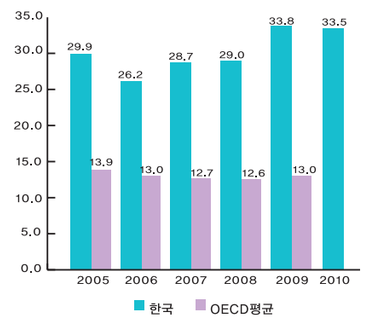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빈곤 관련 2013년 현재 월 임금 100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은 전체 근로자의 13.5%이다. 월 임금 100~200만원 근로자(워킹 푸어 잠재위험군)는 38.3%였다. 두 수치를 합하면 전체 근로자 중 51.8%는 일을 해도 빈곤에 빠져 있고, 잠재적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노후 빈곤의 경우 2011년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평균 13.5%보다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액 비율은 2.1%로 OECD 회원국 평균(7.3%)의 28.4% 수준에 그쳤다.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주거 빈곤 문제도 심각했다. 2010년 한국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8%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32.5%에 비해 18.3%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3대 빈곤 현상은 결국 전체 빈곤율의 증대와 자살률의 급증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근로자 절반 잠재적 빈곤층
노후 상대적 빈곤률 45.1%
종단 內 전담 조직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찰 중심
협동조합 등 공동체 구성해야

실제 빈곤율은 1990년 7.1%에서 2012년 12.1%로 상승했고, 자살률은 2000년과 2009년 사이 16.6명에서 33.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은 14.6명에서 13명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자살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3대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후 빈곤층, 주거 빈곤층, 근로빈곤층 부담을 줄여 전체 국민의 소비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3대 빈곤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불교계가 연기법과 화쟁론에 근거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여 사회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단 내 전담 기구 확대 △출가자 및 재가자 교육과정 강화 △장기적으로 사찰 인근 생활공동체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조계종이 안정적으로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칭 '노인빈곤위원회', '주거권 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 설립이 필수"라며 "이들 위원회의 역할은 관련 쟁점에 대해 불자들에게 정견(正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불교 철학에 입각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생산?분배?소비 등을 해결하는 협동조합 등 사찰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사찰 생활공동체 안팎의 관리 및 생산과정에서 청년 등을 고용하면 사찰이 '근로 빈곤'에 대응하는 고유한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5천여 장병을 '참불자의 길'로… 국방요람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5000여 장병들이 불자로 거듭났다. 대한불교승가종(총무원장 법수)은 3월 8일 호국연무사 대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장병 수계식 및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은 승가종이 주관하고 불교어머니회가 후원해 과일, 음료 등을 보시했다. 이날 계사로 나선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은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로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군생활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며 성실한 군생활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뮤지컬 원효 부당지급금 환수

BBS이사회 결의… '총무원장 당연직 이사' 정관 개정 부결

불교방송이 대구불교방송 사옥부지 매입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뮤지컬 원효 사업비 부당지급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두 차례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종하)는 3월 13일 제86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대구불교방송 사옥부지 매입과 관련해 당시 사장이었던 법조스님과 총괄국장이었던 장적 스님이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데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대구불교방송은 2006년 사옥 마련을 위해 서울 본사로부터 4억원을 대여해 서봉사극락암의 건물과 대지를 10억 3000만원에 매입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불교방송 이사회는 뮤지컬 원효 제작사업 관련 외부협찬금 중 부당하게 지급된 10억1700만원을 환수조치키로 결정했다. 윤제철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외부협찬금 중 부당하게 지급된 10억1700만원을 한중불교문화협회에 청구해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구상진)가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부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의 당연직 이사 조항을 삭제해 한때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부처님은 '어떻게 먹으라' 하셨나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고문헌 조사'서 밝혀

사찰음식 이전에 부처님 교단 당시 음식 문화 변천과정과 불교의 음식관에 대한 경전적 전거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은 최근 사찰음식 문헌 자료집인 〈사찰음식 고문헌 조사(사진)〉를 발간했다.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선 문화사업단이 경전 문헌 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는 경전에 수록된 '음식'과 관련한 서술은 방대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화사업단은 김관태 경영컨설팅 살림 대표에게 집필을 의뢰하고 2011년 초기경전과 2013년 율장을 중심으로 경전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자료집은 총 10개의 챕터와 23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증일아함경〉〈중아함경〉〈잡아함경〉을 비롯한 불교 초기 경전과 율장의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됐다.

구성도 치밀하다. 음식에 대한 정의부터 △음식에 대한 금계 △식재료와 식문화 △조리법과 취사도구 △식사량 △식사예절 △음주, 오신채에 대한 입장 등 경전에 나타난 기술들을 알기 쉽게 분류해냈다. 매 챕터별로 경전 색인을 별도로 첨부해 연구자가 원문을 찾아볼 수 있게 한 부분도 자료집이 가진 강점 중 하나다.

다양한 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전의 근거들은 불교 교단의 음식문화의 변천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신채(부추, 파, 마늘, 흥거, 달래)에 대한 이야기다. 자료집에 따르면 초기경전인 〈아함경〉에서는 오신채에 대한 기술이 없으나 대승경전인 〈대열반경〉〈범망경〉 등에서 오신채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부처님이 경계했다는 것을 코살라국 파사익왕의 일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평소 파사익왕은 과도한 식사로 비만의 고통에 빠져 있었으나 부처님은 적당한 식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충고했다.

김 대표는 "파사익왕의 일화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비만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더 찾아내서 정리한다면 현대인들의 식사법에 사찰음식이 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 대해 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사찰음식 연구와 관련 콘텐츠 개발에 앞서 음식에 대한 교학적 이해 및 고증학적 근거들이 발굴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는 불교 경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고전까지 영역을 확대해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전거를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 기부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1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서울대 특별강연회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3월 19일 서울대에서 '젊은 날의 화두-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연다.



수원구치소 자장면 보시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은 3월 12일 수원구치소를 찾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보시했다.



〈내 안의 불교찾기〉 출간

대구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불교방송 신행 상담을 진행하며 쓴 글을 모은 〈내안의 불교찾기〉를 펴냈다.



사찰음식경연대회 대상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3월 6~9일 열린 '2014 사찰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불교문화학과 장학금 쾌척

이재동 대우STI 대표는 3월 10일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불교문화학과 장학금 및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대불련, 대학생 템플스테이

신경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3월 28일 충주 석종사에서 2014년 대불련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재선출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사진〉는 3월 12일 그랜드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로 만장일치 재선출됐다.

총 168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대표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 공창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이희구 (주)지오영그룹 회장 대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장실 국회의원, 성상철 서울의대 교수, 김태형 전 국방장관,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이, 감사에는 정구정 세무사, 손수일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화쟁의 정신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함께 더욱 노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출·재가 유능한 인재 양성 나설 것"

연봉장학회 창립한 이사장 태현 스님

"'인재불사가 중요하다'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와 한 장 대들보 하나를 세우는 건축불사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덕이 크다는 이유겠지요. 하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인재불사를 해야 합니다. 1700년의 한국불교를 계승하여 새로운 불교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3월 11일 연봉장학회를 창립한 연봉장학회 이사장 태현 스님(경기 광주 수미산 불국사 회주, 사진)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1962년 故 지관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태현 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교화에 힘써왔다. 도심포교에도 힘써 서울 관악구에 육바라밀사와 경기도 광주에 수미산 불국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원력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다. 바로 불교인재의 양성이었다. 이를 위해 태현 스님은 체계적인 종합 수련원을 창립해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현실 역량있는 인재를 키우려 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다시 원력을 모아 장학회를 만들어 회향한 것이다.



11일 장학회 창립법회 봉행
출·재가자 연구비·학비 지원
"인재불사 동참해주길" 당부

창립을 알린 연봉장학회는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장학위원회(이사 2명, 각 교육기관 교수진 5명, 수미산 불국사 신도대표 1명, 후원회장 1명)를 구성하고, 연봉장학후원회도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학선발은 매년 10월 불교계 언론을 통해 선발공고를 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받아 본 연봉장학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장학금, 연구비 지원은 △조계종 사찰 재적신도 자녀 및 종립학교 재학생 학비지원(연간 1000만원) △승가대학(원) 재학학인 연구비 지원(연간 1000만원) △불교학연구 및 종책연구자 지원(연간 각 1인 500만원) △외국인 승려 학비 지원(연간 1인 300만원) 등 항목으로 분류돼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법인화는 여러 가지 설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립조건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회의 재단법인은 지방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자산과 장학지금 실적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년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연봉장학재단'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태현 스님은 연봉장학후원회에 대한 불자들의 동참도 당부하기도 했다.

"연봉장학회는 연꽃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많은 수행자들과 불교인재들에게 희망이 되려 합니다. 모래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래에 시멘트를 섞으면 건실한 건물이 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정성을 모은다면 한국불교를 튼튼하게 이어갈 인재불사가 될 것입니다. 연봉장학회는 여러 불자들의 후원과 정성을 기왓장과 대들보 삼아 인재 육성의 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일불교協 사무총장, 총지종 법등 정사 임명

자승 스님 12일 임명장 수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에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가 임명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무총장 법등 정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역사문제로 얽혀 있는 한일 양국관계를 해결하는데 불교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법등 정사는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위해 4월 중순에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과 사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자승 스님이 법등 정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소외된 종단과 소통하고 종교화합에 최선 다할터"

이이재 의원, 3월 14일 태고종 도산 스님 예방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종교위원장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시 삼척시)이 3월 14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단들과 소통하고 종교화합을 이루는데 종교위원회가 역할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12일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연계망 구축과 정책개발을 위해 직능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이재 의원이 종교위원장을 맡았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정부나 국회가 한국불교 전체를 안고 가야 한다. 앞으로는 소외된 종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이이재 의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동국대 부처님, 새 봄 맞이 단장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3월 12일 팔정도 청동여래입상 보수불사를 위한 고불식을 거행했다. 고불식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법타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헌향, 축사, 고불문, 반야심경 봉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국대 청동여래입상은 1964년 총학생회가 건립을 추진, 조각가 김영중 선생을 통해 조성됐다. 이후 반세기에 걸쳐 동국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수불사는 무형문화재 이진형 불상조각장이 맡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인환 스님, 후학위해 1억 원 기부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3월 14일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동국대 원로교수인 인환 스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경국사 한주 인환 스님은 3월 14일 오전 11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방문해 제2건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불교학 연구를 위한 한국불교학진흥기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는 인환스님은 최근 학교로부터 받은 소식지를 통해 동국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걸 느끼고, 또 한 번의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환 스님은 "큰 돈을 기부하긴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마음을 내고자 한다"면서 "돌아갈 때 재물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학교에 소중한 정재를 보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큰 뜻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대학, 계속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혜철 스님, 명예 옥천소방서장 위촉



충북 옥천소방서(서장 배달식)는 3월 14일 옥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봄철 화재예방분위기 확산을 위한 명예 소방서장으로 혜철스님(대성사 주지, 태고종 홍보부장)을 위촉했다.

명예 소방서장 위촉은 옥천소방서가 지난해 2월 14일 개서한 이래 처음이며,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 중 석가탄신일이 포함되어 있어, 사찰관계자 등에 대한 화재예방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식 옥천소방서장은 지난 2월 20일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소방활동을 대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과 홍기엽氏를 옥천소방서 119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한바 있다. **김주일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 에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포교원장상을 받은 포교사들과 지원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광주 등 전국에 흩어진 조계종 포교사와 제19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859명 등 1500여 명이 조계사에 모여 포교사단의 새로운 도약을 발원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포교사단, 3월 9일 '포교사의 날' 첫 기념법회

"포교사 10만 시대 열자"… 새 불교사 발원

"저희 포교사들은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한 생명 빠짐없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었던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저희들 또한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조계종 포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포교사단의 새로운 도약을 발원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은 매년 3월 2째 주 일요일을 '포교사의 날'로 정하고 포교사의 노고에 격려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포교사단은 '포교사단 출범 14주년 및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3월 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거행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중앙종회포교분과위원장 장명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월정사 포교국장 석상 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선본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정경연 원장, 중앙신도회 임장수 부회장을 비롯해 포교사단 초대단장을 역임한 김기병 단장 등 역대단장 등과 함께 광주, 부산, 대구 등 10개 지역 포교사 및 제19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859명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단기·단장 입장 △삼귀의·반야심경 △경과보고 △전법선언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조계종단에 5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종단의 특별한 지원이 없음에도 오직 전법을 위해 솔선수범해 흔쾌히 포교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다"며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의 3대 지표는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다. 그 중에 포교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포교사단의 앞날이 일신 우일신하고 그 발걸음 또한 지혜를 열어 시대의 무명과 어두움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보람찬 발길이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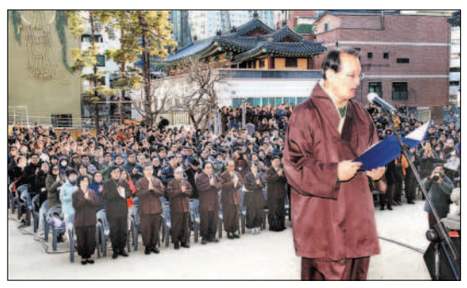
이에 앞서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사들은 그동안 포교현장에서 어려움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포교사단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그 결과 5천여 포교사들이 전국 11개 지역단에서 310개 포교팀의 구성원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포교사단 성과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포교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는바 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와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켜 포교현장을 담당할 포교사 10만명 시대로 확대해 한국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또 다른 미래를 향한 글로벌 포교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1500여 포교사 결집… 전법선언
매년 3월 2째주 '포교사의 날' 제정

이어 김기병 포교사단 초대단장이 '붓다로 살자' 전법선언문을 낭독했다. 김기병 초대단장은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타가 함께 행복한 붓다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세상이 생명 평화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자 하오니 거룩한 삼보이시여, 저희들의 굳은 서원이 이뤄지도록 지켜주소서"라고 선언한 뒤, 선언문을 포교원장 지원 스님에게 전달했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이 포교원장 지원 스님에게 포교사단기를 전달했다.



김기병 포교사단 초대단장이 '붓다로 살자' 전법선언문을 낭독했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

이날 포교사단은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총재상, 단장상을 개인과 단체 문으로 나누어 총 62팀에 수여했다.

총무원장상 개인 부문에는 안창균 충북지역단 포교사가, 단체부문에는 전북지역단 사찰문화해설1팀이 수상했다. 포교원장상 개인부문에는 부산지역단 김원순 포교사외 5명과 단체부문에는 서울 북부지역 군1팀 외 5팀이 상을 받았다. 총재상 개인부문에는 서울지역단 김지태 포교사외 10명과 단체부문에는 서울 동부지역 군1팀 등 10팀이 수상했다. 단장상 개인부문에는 서울지역단 김진국 포교사를 비롯한 16명 포교사와 단체부문에는 서울 서부지역·교정교화팀 등 14팀이 상을 받았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역사는 198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1차 포교사 워크샵을 도선사에서 실시하고 240명의 포교사를 배출하면서 포교사 제도가 시작됐다. 이후 1999년 포교사들에게 제1차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서울경기, 미주LA포교사단 등 전국 7개 지역 단이 출범했다.

2000년 3월에는 1200명의 포교사가 조계사에 모여 김기병 포교사를 포교사단 초대단장으로 선출해 전국에 7개 지역단을 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으로 출범했다. 같은 해 포교사단 '무소유실천운동본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허가를 받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에 입각해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무소유 정신을 사회에 구현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포교사단에 소속된 5천여 포교사들이 전국 11개 지역단에서 310개 포교팀의 구성원으로 어린이, 군부대, 교도소, 새터민법회지원 교정교화, 전통불교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포교사단에 한마디



지원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포교사님들은 출범 초기 전국에 상임 포교사를 파견해 순회강연을 여는 등 부처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감로의 법문을 전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포교사들은 일선 사찰에서 스님들을 외호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종무와 포교활동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부처님 말씀으로 고동치는 환희로운 세계로 장엄합시다. 이웃을 부처님 품으로 이끌어 그들을 해탈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환희와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연꽃 향기 그윽한 이 산하에, 두두물물이 청정법신의 현현 아님이 없도록 우리 모두 전법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갑시다.



송묵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여기 있는 모든 예비 포교사들은 매 법회마다 '나는 일체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사홍서원의 다짐을 수백 번씩 해왔을 것입니다. 포교사 자격은 감투가 아니라 봉사의 원력을 세우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세상 곳곳을 찾아다니며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포교사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장명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포교사는 먼저 포교가 의무이자 사명이고 생명이고, 삼보를 외호하는 정법의 수호자이며, 사찰의 기둥이고 살아 활동하는 팔부신장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포교가 수행이요, 수행이 포교임을 늘 자각하고 활동합니다. 부처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전달자이고 실현자로 부처님 지혜의 생명을 잇는 삼보의 일원이고, 신도와 스님의 중개자로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실현합니다. 더불어 종단의 생산자로 진리의 지혜를 밝히어 인도하는 어두운 밤에 등불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선도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불제자이십니다.



불교여성개발원, 6차 108인 환영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3월 8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및 6차 108인 환영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여성개발원 2014년도 사업설명 및 여성불자 108인의 자긍심 고취 및 단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을 비롯해 남상민 여성불자 108인회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이인자 초대원장(승만경연구회장), 김인숙 전원장(국민대 재단이사), 노숙령 부원장(중앙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박 순 부원장(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 이연숙 부원장(조계사 상임 고문, 태현초중고 이사장), 리영자 고문(한국불교연구원장) 등 임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3월 8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및 6차 108인 환영 워크숍' 을 개최했다.

새내기 학생여러분 템플스테이 가요

대불련, 3월 28~30일 충주 석종사서 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경선, 이하 대불련)은 3월 28~30일 충주 석종사에서 새내기 및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4 KBUF 대학생 템플스테이' 를 개최한다.

대불련은 올해로 대학생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이해 석종사 혜국 스님의 법문과 졸업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이밖에 산사에서의 아침예불과 참선, 찬탄염불, 소리명상, 수계법회,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대불련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형식적인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스스로의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내기들은 대학생활과 불교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는 4만원. (02)732-0239 **이나은 기자**

'자비의 전화', 여성부 사업 선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스님)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자비의 전화' 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에 선정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본회 자비의 전화가 응모한 ' 아동 청소년 마음자람 멘토 양성 및 파견사업 '이 올해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상담심리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에 나서게 된다. ' 자비의 전화 '는 가정과 직장문제 등 일반인들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불교상담심리사 전문교육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개설한 전화다. (02)737-1114 **이나은 기자**

벚꽃 날리는 날 법륜 스님과 경주가요

정토회, 4월 5~6일 20 · 30위한 경주 역사기행

정토회(법사 법륜)는 4월 5~6일 대학생 청년을 위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2014 봄 경주역사기행' 을 진행한다.

법륜 스님이 안내자로 △5일: 무열왕릉-김유신 장군묘-사천왕사지-선덕여왕릉-능지탑-황룡사지-분황사 △6일: 문무대왕릉-감은사지-불국사-첨성대-계림-반월성을 답사한다. 이밖에 법륜 스님과의 이야기 마당 '청년이 질문하고 법륜 스님이 설하다' 도 마련된다. 20~30대 청년 및 대학생은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ungto.org)를 참조하면 된다.(02)587-8911

이나은 기자

사찰홍보 '절집기자' 가 책임진다

사찰신도들 자원봉사로 기자활동 활발

"직장생활에 집안일 하느라 고단할 때도 있지만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찰의 소식과 부처님 법음 전한다는 생각에 즐겁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열리는 행사나 소식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찰 기자단. 이들은 직접 사찰 내 행사를 취재해 사보나 인터넷을 통해 불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조계사 미디어 홍보팀은 사찰 가운데 최초로 조직한 자체 기자단으로 20명의 취재기자와 20명의 사진기자들로 구성돼 있다. 조계사는 2004년 기자교육 강좌를 개설해 1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1기생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미디어팀을 조직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사파트와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파트로 나누어 조계사보인 〈가피〉와 인터넷 '미디어 조계사' 에 게재하고 있다. 사보 〈가피〉는 13000부가 발행돼 전국과 조계사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 조계사는 하루 12000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조계사의 자부심을 갖게 했다.

팀원들은 50대가 주를 이루지만, 기자를 꿈꾸는 문예창작과 고등학생부터 공직에서 퇴직한 7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사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디어 조계사' 란 글씨가 새겨진 주황색 단체복을 입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취재한다.

홍보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사찰 한 달 일정을 놓고 국장 스님과 기획국 담당자, 그리고 미디어홍보팀장등 각 파트장이 모여 편집회의를 한 뒤 기사를 정하고 담당 기자들에게 배분한다. 기자들이 매달 쓰는 원고는 2~3건이며, 인터넷은 자유롭게 취재한 것을 기사화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업무 외에 조계사 기자단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김형랑 조계사 미디어 홍보팀장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부처님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니 사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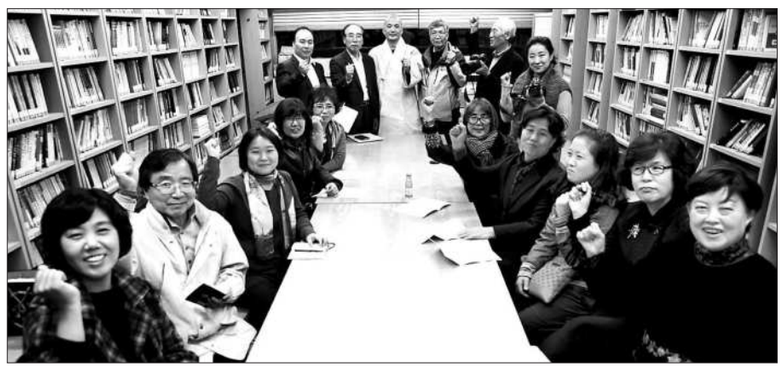
최근 월간지 '판전' 에서 사보형태인 '봉은판전' 으로 전환한 봉은사는 13명의 **'판전 기자단'** 과 사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학생부터 현직 교수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판전 기자단은 봉은사의 주요행사와 신도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신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봉은사는 4년 전부터 '봉은 미디어 교실' 을 운영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사작성 및 사진 찍는 법 등을 교육해 기자로 양성하고 있으며, 기자단은 최근 3월 8일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기자의 '글쓰는 방법' 실무교육을 받기도 했다.

창간호인 '봉은판전' 2 · 3월호에는 주지원학 스님을 비롯해 사찰 소식을 실은 '봉은한마당' , 신도들의 수행을 담은 '이달의 봉은인물' , 봉은가족 이야기 등이 실렸다.

불광사는 **'불광사 미디어 팀'** 과 함께 불광사 소식을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10여 명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법회소식, 법문정리를 비롯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취재해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사찰에 그냥 다닐 때보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명숙 불광사 미디어팀장은 "스님의 법문을 녹취하고 정리하는 것도 업무 가운데 하나다. 불자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집중해서 듣게 돼 새롭게 공부가 된다. 또한 팀원들이 찍는 사진과 소식이 불광사의 기록물로 남는 다는 생각을 하면 절로 신심이 나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사 미디어 홍보팀은 사찰 가운데 최초로 조직한 자체 기자단으로 20명의 취재기자와 20명의 사진기자들로 구성돼 있다. 사진제공=조계사 미디어팀

정토회에는 월간 **'아난다' 기자단**과 **'스님의 하루' 기자단**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월간 '아난다' 는 10여 명의 청년 정토회원들이 정토회 활동현장을 취재하고 그 소식을 월간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스님의 하루' 기자단은 정토회 국내 · 외 정토회 9개 지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9명이 곳곳을 누비는 법륜 스님의 일과를 기사형식으로 정리해 매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준길 정토회 기획홍보국 미디어부장은 "스님의 소식 외에도 각 법당의 소식을 전하는 '희망리포터' 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계사는 격월로 '화계법보' 를 발행하고 있다. **화계사** 신도회 가운데 **'기획 홍보부'** 팀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찰과 불교계 소식 및 스님 법문 을 싣고 있다. 4명의 자원봉사자가 꾸려나가는 사보지만 매월 4000부, 부처님오신날에는 1만 2천부를 발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지희 화계법보 편집부장은 "봉사자가 많지 않아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힘겹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소식지를 신도들과 일반인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뉴미디어실**과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다. 뉴미디어실은 1999년 국내 사찰 최초로 디지털 포교를 위해 설립된 부서로, 선원 신도들이 웹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사이트 기획 운영을 비롯해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불법 홍포를 위한 디지털 지원 작업에 힘쓰고 있다. 한마음저널 편집실에서는 신도들이 생활 속 마음공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불법 홍포의 참다운 길을 열어가는 격월간 신행포교지인 '한마음 저널' 을 비롯해 어린이 저널 '마음꽃' 을 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기자단**도 있다. 2003년부터 활동해온 인터넷 기자단은 대관음사의 모든 행사를 취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절주보' 를 발행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햇살 가득한 봄, 사찰의 맛을 즐겨요'

서울 봉은사, 4월 16일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4월 16일 '햇살 가득한 봄, 사찰의 맛' 을 주제로 '제2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를 연다.

봉은사는 '제2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를 통해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 등에 길들여진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식인 다양한 사찰의 맛을 소개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사찰음식 대중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제2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조리방법을 기본으로 만드는 건강도시락 경연대회로 직장인, 아이들, 체중조절을 위한 간편도시락, 건강도시락, 다이어트도시락 등 자유주제로 열린다. 별도의 참가비 없이 국내외 슬로푸드와 건강음식에 관심 많은 누구나(2인 1조)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접수기간은 3월 10~21일까지 봉은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내려받아 작성하고 출품도시락 레시피 등을 작성한 후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접수 이메일(gooddosirak@naver.com)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참가팀은 1시간 30분 동안 사전에 준비해온 재료를 이용하여 각 3인분씩 건강식 만들어 사찰요리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대상(15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80만원), 장려상(50만원) 각 1팀 선정해 상금도 수여한다. (02) 3218-483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교원, 제7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

3월 22일 한국문화연수원서…노인 명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공모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의 지속적인 활동 독려와 강화를 위한 연수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은 3월 22~23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7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 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들간의 원활한 화합과 소통과 함께 지도능력 향상 및 자료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수 첫날에는 △청소년 명상지도과정 △주위집중나누기&불교놀이지도법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간담회, 둘째 날에는 △마곡사 참배 및 아침예불 △어린이청소년포교기구 주요사업 소개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 사례발표 △명상과 함께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한편 포교원은 '실버시대 노인을 위한 명상과 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노인을 위한 명상 · 상담프로그램을 연구개발이 가능한 불교관계 연구소 및 불교명상상담 관련기관, 또는 불교명상분야 연구경력을 가진 스님과 재가자에 한해서 공모지원 할 수 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며 1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3월 24일 12시까지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kmss59@buddhism.or.kr)또는 우편 ·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02)2011-1913

이나은 기자

제 11기

(사)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학인모집

안정사 소리 – 신라 최초 영남범패단 구성, 범음범패 홋소리, 짙소리, 사성소리(사성에 의한 범패)

(1) 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의식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대령관욕,천도재(49재), 각종의식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 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4년 3월 21일
■ 교육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상시 모집)

* 본원은 종단과 승, 속 관계없는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매년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법회 동참,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 정 사 범패강원 강주
영남범음범패 영산회 교육원장 |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전화 055)649-6711 / 팩스 055)649-6712 / H·P 011-874-677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3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소외된 여성들 불교계가 껴안는다

미혼모 · 이주여성모자가정 시설
가정폭력 상담 콜센터 운영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보호도
심리상담 · 치료 · 법률 · 의료 지원 등
사회적응훈련과 취업훈련 병행

지난해 경상북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주여성 7천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이혼했고 90여명이 남편과 사별했다.

진오스님이 지난 3월 5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인 달팽이모자원을 개관한 이유다.

달팽이모자원은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진오 스님이 마라톤으로 모금한 1억3천만원과 대출금 1억7천만원을 보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매입했다.

보건복지부의 '2011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에 따르면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중 여성복지 관련 분야는 약 4%대로 그 비중이 낮다. 각기 25%에 해당하는 노인과 아동 복지 분야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다. 특히 종교별 여성복지 참여 비율을 보면 천주교 46%, 기독교 20%, 불교 11%대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불교 복지의 새로운 대응방향 중 하나로 대안가족이나 소수집단의 복지강화를 꼽는다. 모두의 공존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 사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불교계가 이주여성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미혼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들 보호시설은 복지관과 1366센터, 이주여성센터 등과 연계해 도움을 제공한다.

불교계 소외여성 보호시설 현황

이 름	대 상	지원유형	기 간	운영주체	위 치	전화번호
달빛둥지	영유아 양육 미혼모	보호시설	1년	진각복지재단	서울 성북구	02-912-1616
소빛	가정 ·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비공개	조계종복지재단	경기 여주군	비공개
1366	가정 ·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담전화, 긴급피난	최대 7일	직지사복지재단	경북 김천시	054-439-1367
어울림	성폭력 피해 아동 · 여성	보호시설	2년	마곡	충남 아산시	041-533-6221
명락빌리지	다문화모자가정	주거지원	1년	천태종 명락사	서울 관악구	비공개
달팽이모자원	다문화모자가정	주거지원	1년	꿈을이루는사람들	경북 구미시	054-453-0755


3월 5일 개관한 달팽이모자원.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모자가족 6명이 입주해 있다.

소빛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변 보호 및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심리, 법률, 의료 상담등과 자기주장 훈련,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을 돕는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 15명에 성폭력피해자 15명으로 정원이 30명이다.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직업재활훈련도 도우며, 장애특성상 취업이 어려운 입소자를 위한 작업장도 마련해놨다. '소빛' 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이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긴급상담과 보호를 실시한다. 직지사복지재단에서 2009년부터 1366 경북센터(센터장 양수옥)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1366에 전화하면 전문상담기관과 보호시설, 의료 · 교육 · 법률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있도록 지언한다. 외국인 피해여성을 위해 동시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매달 천 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주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명락빌리지

천태종 서울 명락사가 국내 처음으로 2009년 개원한 다문화모자가정 보호시설이다. 다문화결손가정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이혼 후 갈 곳 없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고 보육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원한다. 직업알선 및 직업교육 또한 이루어진다. 명락사는 이를 위해 다문화기원 만등불사로 모금한 불사금으로 명락사에서 약간 떨어진 수련관 건물을 개보수 했다. 시설 성격상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간판을 달지 않았다. 전기세, 식비를 제공한다.

어울림

아동 ·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여성가족부와 충남 아산시 지원을 받아 조계종 마곡사 복지법인인 마곡(대표이사 원경)이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상담과 정서 · 심리치료, 의료, 학습, 수사 · 법률, 자립 등 보호지원으로 피해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이다. 피해자 20명이 2년간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에 의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달팽이모자원

자존감회복 프로그램과 남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등을 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매달 월세나 공과금 형식으로 한 가족당 25만원을 받지만 모자원측은 이 돈을 저축해 3년 뒤 1천만원의 목돈으로 만들어 자립기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도움 필요한 이웃, 지역주민이 찾고 돕는다

본동복지관, 7일 희망홈케어 실시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원해주는 나눔공동체 프로젝트가 있다. 복지관은 그 과정에서 도움 연계를 돕는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이 실시하는 "마을에 나눔을 더하다" 사업이 대표적.

3월 7일 본동복지관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받아 활동가능한 협력단체 등을 섭외해 희망홈케어를 실시했다.

도배 서비스를 제공받은 지역내 김 모 어르신은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집이 깨끗하게 변했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수기술관리소 이현섭 과장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생각이다"며 나눔 실천 활동에 대한 보람을 전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수기술관리소는 3년째 나눔이웃 사업의 협력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다.

본동복지관측은 "지역주민 나눔실천가의 능동적 활동을 위한 동아리 조직 및 운영을 통해 나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협력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인적 ·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에게 도배 나눔 봉사를 하고있다.


오늘은 메주 띄우는 날! 서울 도심에서 메주를 띄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10일 지역주민 40여 명이 함께 모여 전통 장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인 종로&장금이 봉사단은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 5도식과 사찰식 장까지 총 7개 독을 가득 채웠다. 이날 담근 장들은 7개월간 숙성된 후 주변 독거 어르신들에게 온정과 함께 배달될 것이다.
사진제공=종로노인복지관

한부모, 템플스테이 하며 심신치유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봉은사 템플스테이 참여

한부모의 지속적 학습을 통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 도담학교 학생들이 서울 봉은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봉은사에서 진행된 이번 템플라이프는 한부모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역할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봉은사투어, 다도체험, 연꽃만들기, 참선, 차담 등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한 도담학교 재학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기회를 가졌다.

봉은사 혜연 스님은 "템플라이프를 했던 경험이 한순간 즐거웠던 기억이 아니라 삶에 유용하게 남기를 바란다"며 "사람은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마음수양을 통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멋진 엄마가 되어달라고" 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도담학교는 2010년 개설, 한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미래설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엄마들이 봉은사템플스테이를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3월 환자로 정희윤 어린이 선정

3도 화상… 매년 천만원 이상 병원비 필요

생명나눔(이사장 일면)은 3월 치료비지원 환자로 정희윤(여.8세) 어린이를 선정했다.

정희윤 어린이는 4살 때 불 위에 있던 솥에 데여 3도 화상을 입었다. 아이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잠시 연탄불을 갈러나간 사이였다.

지금도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다는 희윤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위해 애썼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피부통증은 더욱 심해져갔다. 당장 레이저 이완술, 압박통증 완화를 위한 시술이 시급하지만 매년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치료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희윤이 아버지와는 사고 후 별거에 들어가 경제적 지원이 전무하다.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정희윤 양은 치료비가 부족해 화상치료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02)733-1959
720-1836

“육바라밀은 고해를 건너는 방편”

동화사 법화산림법회

암도 스님(마하무량사 주지)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고행의 바다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부르나 존자 암도 스님은 육바라밀을 지키면 이 사바세계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보시를 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나가면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스님의 법문을 통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지혜를 얻어보는 것이 어떨까?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여러분 법화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오늘 법화경은 제 2방편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내용이죠. 그때의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조용히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성문들이나 벽지불들은 알 수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겁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고 용맹정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미증유한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또 부처님의 큰 뜻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근기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깊은 도법을 알기는 어렵다고 아주 전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고 불가사의한 미증유의 법을 깨달으려고 하면 몇 생을 닦아야 해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알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필코 구경각을 얻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성취한 법은 희유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모든 법의 이러한 모양 성품 힘 작용 원인 연유 결과 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10가지로 나눌 때 이를 십여시(十如是)라고 합니다. 이는 만물이 여시상(如是相) · 여시성(如是性) · 여시체(如是體) · 여시력(如是力) · 여시작(如是作) · 여시인(如是因) · 여시연(如是緣) · 여시과(如是果) · 여시보(如是報) · 여시본말구경(如是本末究竟)의 10가지 방법으로 존재하고 생성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성품이 다 있어요. 다 비슷하지만 다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래 가지고 있는 체가 다 달라요. 본체라고 말하는데 성품 성질 모양도 달라요. 여시상 여시체 실제로는 그런 거에요. 우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 내용이 네가지 밖에 안됩니다. 모든 형상 있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7 발견된 원소도 정의하면 근본이 4대원소에요. 실법과 색법 둘로 나누어 색의 분석을 하다 보면 지수화풍 사대가 원소 근본으로 나온다 그겁니다. 마음은 신수심법 물체는 지수화풍 사대에요. 지수화풍 사대 성품은 어떠냐. 색은 단단해요. 그리고 수는 부드러워요. 화는 더운 기운이 있어. 풍은 날아가 버려. 이렇게 지수화풍 사대가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대 원소를 모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 때 그 기운이 강하면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운이 좋으면 자식도 기운이 좋은 놈이 나와. 태어날 때 힘을 받아서 나오는 거에요. 사대원소가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 강하기도 하고 무르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해요.

법도라는 말이 있어. 법체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도법이라는 것이 법 가운데 근본 체가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면은 그 작용을 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색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 색깔이 감지가 되잖아요. 색도라고 그럽니다. 색도 도수가 있어요. 모든 색깔이 진하고 얕고 하는 도수말이죠. 수기는 어떻게 되느냐 작용을 하게 되면 습도가 다 달라. 일기에 따라 습도가 다 달라. 따라서 몸도 밤 다르고 낮 다르고 습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 습도 조절을 잘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 보충을 안 하면 마르고 그러면 몸이 부드럽지 못해서 부서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귀중한 몸둥이를 보존하는 법을 알고 도를 알아서 도수를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절에서 수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사분정근을 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하루에 네 번 기가 바껴요. 공기를 보면은 아침 저녁 공기 다르고 낮밤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내리쬐면 더워지고 같은 공기인데 밤 되면 차져요. 오전에는 수기가 도는 시간이고 오시는 수기를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이는 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열을 식혀요. 하루종일 공기가 덥혀져서 화가 강해지는데 한밤중 11시 12시가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자시가 되면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같은 공기지만 달라요 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폐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몰라. 늙으면 염불 참선 독경으로 기운을 모아야 됩니다. 게으른 놈은 공부를 못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수도할 승이라. 그런 것을 알아서 생활 자체가 공부 수도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돼요. 법도를 알아야 된다 그거여.

방편품에는 부처님이 뭐 때문에 나오셨는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인연이 있어서 온 겁니다. 무슨 큰 인연이가. 전생에 많은 부처님을 친견을 했는데 결국 부처님이 될 때가 된 거에요. 2600년전 네팔에서 태어나신 것은 부처 될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오늘 이때 동화사 법회에 이렇게 앉아 있기 위해 태어난 거요. 생각해봐. 이는 엄청 큰 인연입니다. 부처님 계시죠. 산도 있어야죠. 전체가 인연이 된다니까요. 쉬운 일이 없어. 대단히 소중한 거에요. 어떠한 인연이라도.

인연이라는 말은 한국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처님은 부처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수도하고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도만 닦고 절대 교화 안하면 이 세상에 빚만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수도 한다고 아무리 큰소리 쳐도 빚지는 거에요. 선방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빚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도를 하고 나면 가람수호를 하든지 포교를 하든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최고 진리라는 말씀이 원효대사의 법어에 있습니다. 배우면 배운 만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을 개시오입(開示悟入)이라 했어요. 열어서 보여주어 중생들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일불승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승 이승 삼승 세 가지로 교화를 했는데 그게 결국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나도 부처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도 스님은 …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5년 백양사에서 덕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서른이 넘는 나이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학업에 매진 학사와 석사에 이어 ‘인도불교의 삼학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로 비유되는 스님은 부처님 법에 목마른 불자가 요청하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 설법하며 불법을 홍포하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강사에 이어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동국대 정각원 상임법사, 교육원장 등을 맡아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1986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서훈했으며 저서로는 〈변하는 것은 변치 않고 변한다〉와 〈불교의 근본진리〉 등이 있다. 현재는 담양 마하무량사에서 주석하고 있다.

세상만물은 십여시로 존재 · 생성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부처님 사바세계에 온 이유는
중생제도 하는 것이 목적
육바라밀로 복 짓고 받아야

보통 사람들은 성문, 연각, 보살까지 불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수준 낮은데 있어라 그게 아니여. 요게 아주 중요한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라 해도 여자분들 잘 몰라. 여자분들은 남자가 돼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여자들 기를 다 죽여놨어. 여자를 못쓸 놈으로 만들어 놨어. 여자도 성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 남자 구분해 놓아서는 안 돼. 차별 구별하면 안돼요.

육도 중생이 다 똑같은 일불승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 오탁악세를 이야기하죠. 5가지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겁탁(劫濁: 시대의 더러움), 견탁(見濁: 사상. 견해가 사악한 것), 번뇌탁(煩惱濁: 탐 · 진 · 치로 마음이 더러운 것), 중생탁(衆生濁: 함께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러움), 명탁(命濁: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꽉 차다 보면 마음대로 안돼 화가 나는 거요, 화가 나다 안되면 죽여버려. 이거를 탐진치 삼독이라 그래요. 번뇌 망상이 죽 끓듯 하는 거요. 여러분은 절에 오면 이건 다 식어버려서 괜찮아요. 나가면 복잡해.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번뇌 망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인 것을 알고 정신통일 수도를 해서 선정삼매해서 마음이 편안해서 안락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사바세계가 고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느냐. 법문을 듣고 보시를 하고 계행을 갖고 인욕을 행하면 정진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행하여 갖가지 법과 지혜를 닦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성불하는 거예요. 이 고해를 건너가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육바라밀입니다. 여섯가지로 복을 짓고 받고 누리라는 거죠. 정말 쉽죠?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복을 지어야 되고 좋은 인연 만나려면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보시를 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면 그 다음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또 오계를 지키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처리를 잘해야 돼요. 25년전에 자기 땅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와 수억을 번 이가 있었는데 별명이 억대거지에요. 그 사람은 저축만 해놓고 쓸 줄을 몰라. 라면만 먹어.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야.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요. 요즘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부자 보고 왜 심통 내고 속상해 하고 그래요. 재산은 인연 따라 오는 거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평상심을 갖고 편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정신을 통일해서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승보살도는 육바라밀이 대표적인 겁니다. 열심히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갑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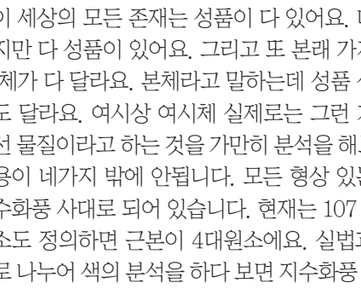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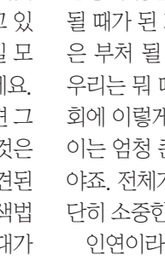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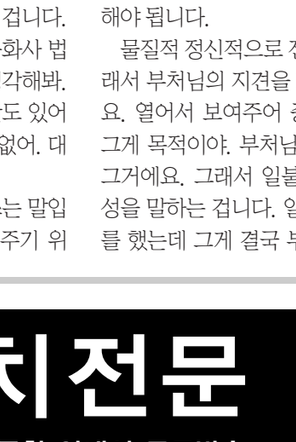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진로 · 진학 상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안내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인 재 양 성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미 래 예 측 학 박사
◇저서 : 규명 1.2.3권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수 업 일** : 매주 화 · 목요일
오전반 10시 부터 ~
오후반 6시 부터 ~

■ 명리학의 심리분석을 통하여 진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명문대 재학생 1,200명의 응답 분석 ⬅
■ 학생이 방문하여 설문자료에 응답시 즉시, 계열과 학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진로적성상담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한국불교의 방향 · '영성' 등 트렌드 반영

2014년 상반기 불교계 어떤 학술대회 열리나

갑오년의 봄을 알리는 춘계 학술세미나들이 대거 열린다. 기운찬 청마의 해, 학회들의 세미나 준비로 분주하다. 불교계 학회들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을까.

3월 중순 인도철학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보조사상연구원 등이 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20여개의 크고 작은 학술대회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이 베이징대, 도쿄대, 타이완국립대와 5월 9일 공동으로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현대 불교 흐름의 다양한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봉축세미나를 겸해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각 대학 학자 2명과 서구권 학자 2명 등 총 10명이 발표자로 불교의 세계 흐름 속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화를 위해 논문 작성과 발표를 영어로 통일하고 발표된 내용은 단행본 형태로 출간돼 세계 학계에서 두루 읽힐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 연계 학술대회 다수

불교계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국내 사찰들과 함께 고승들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연다.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평창 월정사와 고창 선운사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다. 한국학과 근대 불교의 큰 스승인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22일 법련사 문화강당에서 순천 송광사와 함께 '간화선, 보조지눌과 혜심의 활동과 역할'을 주제로 제106차 월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월례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보조 지눌의 교유 고승',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혜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염송집'을 각각 발표한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종석)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주 금산사와 함께 '금산사와 한국유식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트렌드 '영성', '신앙' '여성' 등 조명

최근 학계 연구의 화두로 떠오른 '영성' '신앙' 등을 조명하는 자리도 대거 마련된다.

인도철학회(학회장 이지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3월 28일 금강대에서 '불성은 영성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정신과학학회도 3월 21일 '양자의식과 영성'을 주제로 마포 학지사 2층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학회장 조수동)는 5월 중으로 '탈핵과 불교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며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6월 30일 합천 해인사에서 '불교사상과 현대정보'를 주제로 하기교수불자대회를 연다.

소장불교학자들을 발굴해 온 불교학연구회(학회장 조은수)는 4월 4일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봄논문발표회를 여는데 이어 5월 24일 서울대에서 '불교의 과문전통'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6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탄신 96주년 기념 황수영 박사의 미술사연구 업적 학술대회'는 작고한 원로 불교미술사학자인 황수영 박사의 생애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다. 문명대 소장을 비롯해 최응천 동국대 교수, 박도화 문화재청 감정위원 등 황수영 박사와 인연이 있는 학자들이 그의 사상과 업적을 발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내원사 소장 비로자나불과 전주 송광사에 대한 미술사학 학술대회도 함께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 상반기 불교계 학술대회 일정

학 회	주제 및 대회명	날짜	장 소
인도철학회	'불성은 영성인가?'	3월 28일	금강대
보조사상연구원	간화선, 보조지눌과 혜심의 활동과 역할	3월 22일	서울 법련사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	4월 4일	서울대 인문대학
한국불교학회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를 말하다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금산사와 한국유식사상'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성과발표회	4월 말	동국대
신라사학회	제134차 학술발표회	4월 중	서강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탈핵과 불교사상'	5월 중	동명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동아시아 4개국 국제학술대회	5월 9일	동국대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5월 24일	서울대 인문대학
한국미술사연구소	황수영 박사의 미술사연구 업적	6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교수불자연합회	'불교사상과 현대정보'	6월 30일	합천 해인사
선학원 선리연구원	선리학술상 수상발표회	6월 경	장소 미정

"당신은 바르게 먹고 사십니까?"

2014 사찰음식 정기학술심포지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월 8일~9일 불교박람회서

식사는 영성 발현의 한 과정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1부 기조발제 '식맹의 시대, 식사의 영성' 발표에서 식사에도 정신 수행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안에 내재되 있는 영성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교적 원리를 보여준다"며 "인간은 단순한 물질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각 종교들이 음식 속에 우주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일찍이 파악하고 공양법이나 성체성사와 같은 의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러 음식과 관련된 의례들은 식사가 인간의 영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성스러운 일이란 것을 잘 보여준다"며 "이제 음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불교는 음식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

이어 1부 주제발표 중 불교파트를 맡은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는 '공양과 깨달음' 발표를 통해 불교의 음식에 대한 입장을 초기 · 부파 · 대승 · 한국불교에서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불교는 음식을 중생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며 "불교 음식관에서는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다"며 "이러한 정신은 발우공양에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보시자와 준비하는자의 공덕을 살피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며 받는 수행의 일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사찰음식을 현대인을 위한 건강식이자 수행식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의 건강증진 기여효과에 대한 고찰'에서 사찰음식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선재 스님은 "수행하는 스님들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시대에 발맞춘 발전과 함께 계승을 위한 조리사 교육, 재료 개발 등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선방을 비롯한 여러 수행처에서 사찰음식 문화가 발전되는 한편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식단 제시 등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전국 주요사찰 보유 농지를 활용한 식자재 생산 시그템이 마련돼야 하며, 사찰음식을 통해 포교할 수 있는 대중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음식 건강 증진에 우수한 효과

이심열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사찰음식 건강증진 효과 고찰' 발표에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38기 4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된 사찰음식의 건강증진 효과 연구를 공개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사찰음식을 4주간 섭취한 이후 체중 및 체지방률, 혈압이 감소했으며, 간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사찰음식 섭취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청 이상자로 판명된 7명 중 4명이 4주 후 정상으로 검사됐으며 콜레스테롤 이상자 12명 중 8명이 호전됐다. 식습관이 불량한 7명 또한 식습관 개선의 효과를 보았다.이 교수는 "연구를 세분화 해 성별, 연령대별로 다양한 식단으로 비교한다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고지혈증과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며 "장기간 식사섭취를 한다면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식습관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에서 진행되는 발우공양의 한 장면. 심포지움에서는 음식섭취가 정신수행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봉은사 목조여래불' 등 7건 보물 지정



봉은사 목조여래불상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지정예고한데 이은 것으로 7건 중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조선 후기 1651년 조각승 승일(勝一)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상이다. 1765년의 개금발원문(改金發願文)을 통해 1689년 무렵 화재가 발생하여 본존 석가여래상을 새로 조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삼불좌상 모두 조각적으로 우수하고, 발원문을 갖추고 있어 17세기 중후반의 불교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지정된 '창룡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등 벽화 2건은 문화재청이 시행한 사찰건축물벽화 조사사업을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5건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을 통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연구논집〉 제5집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최근 〈대학원연구논집〉 제5집을 펴냈다. 〈대학원연구논집〉 제5집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물리적 비빔과 화학적 달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의 '한국선법의 수용과 그 변용' △마성 스님의 '한국불교의 계율전통-근현대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중심으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원형에 관한 시론' △이성운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의 '한국불교의식의 특성-상황논리의 역동과 한계' △재마 스님의 '통일신라의 관음신앙과 타신앙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지민 스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양자의식과 영성, 그리고 명상

한국정신과학학회(회장 조효남)는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마포 학지사 2층 대강당에서 '양자의식과 영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과학과 명상과 신비주의' △강길전 충남의대 명예교수의 '양자의학' △조효남 한양대 명예교수의 '양자의식과 양자도약적 의식의 변화와 영성' △김선숙 마음의과학연구소 소장의 '양자물리학과 쉬운 명상법'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있는 조효남 교수는 인간의식의 정신과 우주의 과학원리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올바른 신해행증에 의해 영성발달에 대해 논한다. (02)554-5701

노덕현 기자

종교와젠더硏 '불교발생 배경과 여성'

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3월 2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발생의 시대적 배경과 여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류경희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가 2700여 년 전 인도의 모습과 남녀차별, 계급사회 속에서 불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인도 여신문화가 불교에 준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심각한 여성차별적 사회인 인도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성평등을 주장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한편 류경희 강사는 서울대와 서강대 등에서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인도 종교 · 신화와 관련한 〈인도신화의 계보〉 〈인도여성, 신화와 현실〉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자〉 등의 저서가 있다.

노덕현 기자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108배

표정 + 자세 + 동작 + 호흡법 + 동작알아차림 + 염불대입 + 깨달은 절

700만배 청견스님 깨달은 절수행 완전공개

완벽하게 절하면!
만병통치유

깨달은 절수행 배우시고
부처님가피 100%
건강소원성취 100%

♣ 스트레스 0 불면증 100% 피로즉석 우울증 냉병 화병 상기병은 같은병

절교육 절수행 점검 상담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 주 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4-23 다비치 5층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 산 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 화 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경허선사 기리는 '경허로' 탄생

서산 천장사길 3.7km 구간
"도로명 개정 어려워 명예도로로"
5월 경허 열반 102주기에 개막식
홍보 전개, 5년 뒤 일반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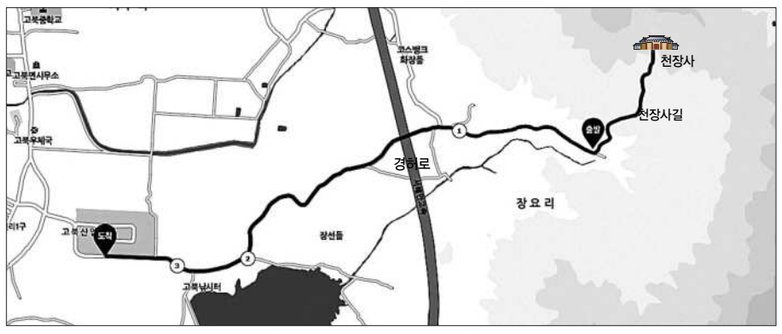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의 주석처였던 서산 천장사(주지 허정)의 진입도로가 '경허로' 명칭을 얻었다. 기존 법정도로명인 '고수관로'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계언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허로 명칭은 명예도로로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붙여진 것이다.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3월 11일 "서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지난 3월 7일(천장사 진입구간인) 고북면 신송리~장요리 3.8km 구간을 명예도로명을 활용해 '경허로'로 이름 붙였다. 경허로는 충남도의 첫 명예도로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된 '경허로'는 고북면 가구리에서 신송리에 이르는 'ㄷ' 자 모양의 6.7km에서 신송리부터 장요리 천장사 진입로와 연결된 3.8km 구간에 붙여졌다. '경허로'는 끝나는 지점이 천장사에 오르는 길인 '천장사길'과 맞닿아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2(명예도로명)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 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따라 지정된다. 도로명이 주어진 도로의 일부에 명예도로명을 붙일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엔 법정 도로명과 함께 명예도로명이 표기된다. 사용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스님은 2013년 인근 주민 130여 명과 '고수관로'로 지정된 천장사 진입로를 '경허로' '천장사로' 등으로 바꿔줄 것을 서산시청에 요구해 왔다. 도로명 개정은 절차가 까다롭기에 명예도로명 지정을 추진했다. 명예도로는 주민동의 없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소위원회 결의로 결정된다.



경허로 지도 사진. 천장사길에 맞닿은 3.7㎞ 구간에 명예도로 형식으로 붙여졌다.

허정 스님은 "서산시는 물론 충청도 최초 명예도로"라며 "경허 스님과 수월, 혜월, 만공 스님 등 제자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허 선사 열반 102주기인 5월 '경허로' 제막식과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허 백일장' 등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5년 후 재심의 때까지 경허로를 널리 홍보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교관련 도로명 지정이 누락된 곳은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전북지역 불기 2558년 봉축일정 확정

주요 봉축행사 일정 및 계획안

행 사 명	일 시	장 소
기원탑 점등식	4월 11일 19:00	전주 종합경기장
35사단 연등제	4월 18일 19:00	35사단
전북어린이 큰잔치	4월 19일 09:00	전주 덕진공원
전북 불교연합 합창제	4월 20일 19:00	익산 솜리예술회관
연등축제	4월 26일 15:00	전주시청 노송광장
6탄약창 연등제	5월 3일 18:00	6탄약창 대강당
고창 불교문화 한마당(연등제)	5월 3일 10:00	고창 종합경기장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6일 11:00	각 사찰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4일 09:00	금산사 특설무대

전북 지역의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일정이 결정됐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9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과 세부 행사계획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봉축위원회는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의 주요도로에 가로연등을 내 걸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전 홍보탑을 세워 봉축행사를 전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분위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란 주제로 연등축제와 어린이 큰 잔치, 불교연합 합창제, 군부대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4월 11일부터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 전북불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기원탑이 봉축기간동안 불을 밝히게 되며 4월 18일에는 향토사단 연등제, 4월 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 잔치와 4월 20일에는 익산 솜리예술회관에서 전북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4월 26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부대중 5천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개최되는 등 고창, 군산, 익산, 김제 등 각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임실 탄약창 호국장영사의 연등제와 위문법회가 개최되고 5월 24일에는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는 고창 실내 체육관에서 군민과 24교구 말사가 동참해 불교문화체험전과 부처님 오신날 봉축 한마당이 열린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쌀 나누기 행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지역 시민활동가 격려

광주지역 불교계가 지역사회단체활동가에게 쌀 나누기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지난 3월 19일 '7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사찰과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자비의 쌀 1,600kg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개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불교단체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지원식은 광주전남환경연대 사무실에서 공동대표 행법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총무국장 효진 스님을 비롯해 지원대상 단체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 소감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자비의 쌀은 지원식 후 각 단체에 전달이 됐다.

이날 전달받은 활동가들은 윤샛별(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기홍(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창곤(광주전남녹색연합), 오춘화(광주불교교육원), 신수진(우리문화예술원) 등 광주전남지역 37개 단체 40명 활동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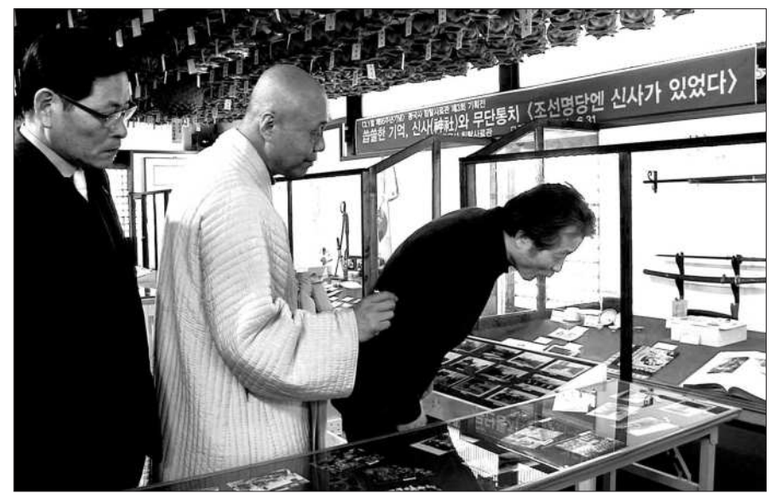
지원에 앞서 행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나누는 쌀이 희망의 포자가 되어 시민사회단체에 전달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법 스님과 효진 스님이 3월 9일 시민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이란 인류의 가장 소중한 먹거리인 쌀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전남지역 사찰에서 부처님전에 청정한 마음으로 올린 쌀을 십시일반 후원받아 지역 활동가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행사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0,000kg이 넘는 쌀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일제 침탈 특별 기획전 개최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3월 10일 '씁쓸한 기억, 신사(神社)와 무단통치-조선명당엔 신사가 있었다'란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다.

3·1절 95주년을 맞아 세 번째로 기획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동국사 종걸스님의 보유하고 있는 5천여 점의 일제강점기 침탈 자료 중 엄선된 200여 점이 전시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한반도 전국에 걸친 명당터와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에 설치된 일본 신사의 사진과 조선을 무단 통치하기 위한 군산, 경찰 관련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종걸 스님은 "일본 아베통리의 신사참배와 일본 각료들의 망언에 분개해서 일제의 조선 무단통치와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사료를 기획 전시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뼈아픈 우리 역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 도법 스님 초청법회



열린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전법도량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은 3월 9일 극락보전에서 화쟁코리아100일 순례단장 도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요가족법회 불자들과 금선암 신행단체 임원,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동참해 도법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도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의 존재이유는 모든 생명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서 찾을수 있다"고 전재하고 "오늘날 한국 불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 불교의 위기는 외롭고 힘든 이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며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불교의 환골탈퇴만이 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설했다.

자성과 쇄신결사본부 총괄부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불교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금선암에서부터 결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선암은 3월 3일부터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기간' 동안 매일 극락보전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출가열반절 특별정진기도



부처님오신날, 성도절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인 출가·열반절을 맞아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 특별 정진 기도 법회가 봉행됐다.

송광사는 3월 8~15일 '출가 열반절 경건주간'으로 정하고 독송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8일 지장전에서 봉행된 독송법회는 대승불교의 진리를 함축시킨 용수보살의 '근본중송'을 1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한목소리로 근본중송을 독송했다.

법진 스님은 "출가 열반절의 특별정진 기간동안 근본중송 독송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바로알고 수행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품절]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봄밤에 힐링과 감성 재충전하세요”

대운사 북카페 쿠무다 3월 29일 문화콘서트



지난 연말 문을 연 쿠무다 카페 전경.


쿠무다 카페는 지난 1월부터 유명인사들을 초청한 문화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혜민 스님 안도현 이수근 등
문화계 인사 초청 공연 눈길
다양한 불서로 대중 포교도

부산 송정에 있는 북카페 ‘쿠무다’는 대운사(주지 주석)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수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향이 가장 먼저 은은하게 다가온다. 바로 주석 스님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커피 향이다. 후각을 느끼고 나면,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원목 인테리어와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책들이 눈에 들어온다.

쿠무다는 3월 29일 안도현 시인을 초청해 콘서트를 연다. 섬세한 표현과 공감을 일으키는 안도현 시인의 시는 봄밤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과 더불어 따뜻한 위로로 가득 채워줄 예정이다. 공연은 안도현 시인의 시 낭독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처음 북카페 공간을 선보인 이곳은 북 카페 외에도 다양한 유명인사들을 초청한 문화공연들이 지난 1월부터 격월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주석 스님은 “사찰은 기도와 정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문화적 포교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또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들과 일반인들 인연 맺어주는 것을 기쁨이자 자비행이라고 생각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이춘호 영남일보 기자가 동요콘서트로 문화콘서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요가 1시간 넘게 펼쳐져 방문한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이날 쿠무다를 방문한 김미희 씨(43)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콘서트에 동참했는데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좋은 공간에서 좋은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 더욱더 좋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쿠무다’는 북카페라는 취지에 걸맞게 1천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서적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에세이부터 소설까지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독서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불교를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사람도 불교서적을 자연스레 읽을 수 있어 포교가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가 세상과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스님은 “스마트폰으로 단절된 세상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쿠무다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다. 또한, 부처님의 법문 속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도 희망과 경험이 녹아있다. 쿠무다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발견하길 바란다”며 의지를 전했다.

쿠무다의 문화콘서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5월에는 개그맨 이수근 씨, 8월에는 혜민 스님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계보를 잇는다.

김나영 객원기자

포항 세심사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출가일 맞아 세심사 및 문수암 신도 79명 수계


세심사에서 열린 대승보살계 수계법회에서는 79명의 신도가 수계를 받았다.

3월 8일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포항 세심사에서는 뜻깊은 법회가 열렸다. 세심사 불교대학 1기를 마친 신도 61명과 김해 문수암 신도 18명 등 총 79명이 수계대중으로 참석하고 세심사 회주 성지 스님을 비롯해 주지 청와 스님, 문수암 주지 일환 스님 등 총 2백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승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전계아사리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교수아사리 법달 스님(태고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갈마아사리 혜주 스님(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장)이 삼 화상으로 증참했다.

세심사 주지 청와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진정한 포교는 스님들의 참다운 수행에 있는 것 같다. 세심사 대중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수행목표로 삼아 불사에 매진하고 아울러 세심사가 포항에서 제일가는 전법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계의식 후 세심사 수계대중 대표로 권 여래심 관음회장 겸 불교대학 총무가, 김해 문수암 수계대중 대표로 황 무량지 보살이 나란히 수계첩을 받았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내빈으로 서진국 포항북구청장을 비롯, 장세헌 경북도의원, 최상원 · 박승훈 포항시의원, 이강덕 前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꾸준한 장학금 보시로 인재 양성”

11일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가 일념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3월 11일 오전 11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백주년 기념관에서 거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총 15명의 학생이 각각 장학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계영 동국대 총장은 “올해로 동국대가 건립 108주년을 맞았다. 불교에서 숫자 108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일념장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뜻대로 교육에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념장학회는 1995년 이영채 이사장과 11명의 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에 뜻을 두고 설립한 단체로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 보시를 행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불교학 전공뿐만 아니라 인문학 · 공학 계열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선정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신도들 마음 하나씩 모아 나눔실천”

3월 12일 해군 훈련병 위한 ‘보국사 수계법회’


보국사 수계법회서 수계 받는 장병. 이날 법회에는 600명이 계를 받았다.

진해 해군사령교육본부 내 보국사 법당에서 ‘보국사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3월 12일에 거행된 이번 수계식에는 해군 및 해양경찰 훈련병, 해군부사관 등 총 600여명의 해군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 및 정종사 신도 40여명이 참석했다. 계를 받은 훈련병들은 총 500여명으로 전계사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으로부터 오계 및 계첩을 수여받았다.

한편, 이번 수계법회는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사됐다. 정종사 신도들의 보시금을 꾸준히 모아온 여해 스님이 약 800만원 상당의 보시금을 보국사에 기부했고, 이 보시금은 보국사 수계식 준비와 햄버거 600개 보시에 쓰여졌다.

김나영 객원기자

“아픔과 갈등 넘어 평화의 다리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10일 부산 입재식 봉행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부산 영도다리 앞에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상임추진위원장 도법)이 부산 영도다리 앞에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3월 3일 제주에서 순례의 첫 시작을 알린 순례단은 7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3월 10일 두 번째 순례지인 부산을 찾았다. 부산 순례의 시작점인 영도다리는 일제강점기 및 6 · 25 피난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갈등과 분립을 떠나 평화를 지향하는 화쟁코리아 순례단의 취지와 일치하여 입재 장소로 선정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회, 영도구불교연합회의 협력으로 봉행된 이번 입재식에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원들을 비롯한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 상임부회장 원범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과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장, 강수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부산추진위원회 부원장 수진 스님은 “오늘 화쟁코리아 순례단 여러분으로 평화의 다리가 놓아졌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첫날 부산 민주 충혼탑을 시작으로 광복동, 한진중공업, 태종대 앞 선원 위령탑 등을 방문하고 15일 토요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공존과 평화의 발걸음을 회향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3월 7일 경내 서원당서


대성사 금강불교대 졸업식

천태종 대구대성사 금강불교대학이 3월 7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제9회 졸업(수료)식 및 제1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학장 화산 스님은 “대성보살도 천태불제자들은 부처님의 혜명으로 자기를 바로보아 자비심을 내어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세상사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으로 서두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여 선 · 악의 씨앗인 연기법을 알아 모든 이에게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천태불자가 되어 달라”고 법문했다.

이날 졸업 및 수료는 1학년 51명 수료, 2학년 46명 졸업, 신입생 110명으로 누계로는 1년 수료 698명, 2년 졸업 545명, 경전반 수료 306명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박광호의 ‘사진모색전’

3월 18일~23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박광호의 ‘내려보다’

오랫동안 전통문화 사진에 천착해온 박광호 씨(불교신문 대구경북지사장)의 ‘사진모색전’이 3월 18일~23일까지 6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7년 동안 찍어온 사진 작품 83점을 선보인다.

박광호 씨는 “불교전통이미지와 자연을 통해 심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작품들이다. 이를 통해 내면을 찾아가는 불교 본연의 이미지를 담아가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 금룡사 탑신 사천왕상, 선본사 갓바위, 거조사 나한전, 불국사 연못, 고운사 창살의 맨드라미 꽃, 운문사 스님, 대견사지 3층탑 등 사찰 곳곳을 찾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053)606-6114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낙성식 및 삼존불•신중탱화 점안 대법회 행

구담자모암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여 6년 끝에 불사를 마치고
낙성식 및 삼존불 신중탱화를 모시어 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사에 동참하신 신도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 태아영가 천도도량을 가꾸고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일 시 _ 3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 소 _ 구담자모암 큰법당
■ 증명법사 _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회주 밀운 큰스님

구담사 자모암 법회
· 태아영가천도재 : 5월 4일(일요일) 입재 ~ 6월 22일(일요일) 회향
· 산 신 기 도 : 4월 20일(일요일) 입재 ~ 4월 27일(일요일) 회향
산신각 1년등을 다시면 산신기도를 올려드립니다.(1인 1등)
⇢출발 버스운행 : 조계사 정문 앞 8시,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8시 30분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99번길 18 문의 (031) 529-2855~6

미륵불 만나는 그 날을 미리 본다

마애불이 있는 사찰 - ③ 파주 용암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용암사 전경

그저 산의 한 편이던 바위에 법의(法衣)를 새기고 그저 세월의 두께였던 바위에 두 손을 빚으니 바위엔 '마음' 이 깃들고, 언젠가는 오신다는 미륵의 얼굴 그 마음 위에 올리니 이제는 불(佛)이라, 바위 품었던 산도 이제는 그저 산이 아니라 도량이네.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과 용암사다.

꿈에서 시작된 불사

아스팔트 도로 바로 곁에 일주문이 서있다. 장지산 용암사. 마치 영화 '해리포터' 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다른 세상을 만난다. 대웅전과 종각, 요사채, 건너편 삼성각. 작은 도량의 마당을 지나 산길을 몇 발작만 오르면 천 년의 세월이 다가온다.

작은 산기슭에 소나무를 구름처럼 두르고 마애불이 서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마애불이 아니다. 대부분의 마애불은 부조 형태이지만 용미리 마애석불은 부조와 환조의 혼합 형태이다.

높이 17m의 용미리 마애불은 천연 암벽을 몸체로 삼아 그 위에 얼굴을 따로 얹었다. 천 년 전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 빚어놓은 것이지만 그 시절을 짐작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았을 불사임이 또한 분명하기에 천년 전의 불사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다가온다. 그래서일까. 마애불의 전설은 꿈에서 시작된다.

고려 선종(재위 1083~1094)은 후사가 없어 고민했다. 후사를 위해 셋째 부인으로 원신궁주(元信宮主) 이 씨까지 맞았으나 역시 후사가 없었다. 어느 날, 후궁인 원신궁주가 꿈을 꾼다. 두 스님이 나타나 "우리는 파주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궁주의 꿈 얘기를 들은 선종이 사람을 보내 장지산 남쪽 기슭을 살펴보니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며칠 후 궁주는 다시 꿈을 꾸는데, 두 스님이 다시 나타나 왼쪽 바위는 미륵불상으로, 오른쪽 바위는 미륵보살상으로 모실 것을 당부하며 "모든 중생이 와서 공양하며 기도하면 아이를 바라는 이는 아이를 얻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칠 것이다."고 말하고 다시 사라졌다고 한다.

선종은 그 바위에 불상을 모시고 절을 지어 원신궁주와 함께 정성을 다해 불공을 올렸다. 그리고 그 해 원신궁주가 회임을 하고 왕자 한산후를 나았다고 한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천연 암벽에 불상 둘을 조각한 것이다. 오른쪽 석불은 사각형 모자, 왼쪽 석불은 둥근 모자를 쓴 모습이므로 '용미리 쌍미륵석불' 이라고도 한다.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 만든 것으로 바위 면에는 몸체를 새기고 몸체 위에는 목과 머리, 갓을 따로 조성해서 올린 것이 특이한 점이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까닭으로 신체의 비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워낙 당당하고 거대한 불상이라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한다. 이 불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고려시대 지방화 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용암사는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이다. 앞서 말한 마애불상으로 알려진 도량이다.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애불 조성 배경과 절의 창건에 얽힌 설화가 전하고 있어 마애불이 조성된 11세기(고려시대)를 창건 연대로 보고 있다. 창건 이후의 절에 관한 역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란에 의해 한동안 절이 소실되었고, 근대에 들어 1930년대 절이 중창되었다. 1935년 장단군에 있던 장선환 대사가 주지로 부임하여 절을 수호했는데, 한 때 혜음사, 대승사로 불리던 사명을 현재의 사명인 용암사로 바꾸었다. 중창 이후에도 화재로 인해 대웅전 등 도량이 소실되어 1946년 대중에 의해 삼창이 이뤄진다. 1984년에 대웅전과 범종각을 중수했으나 1997년 대웅전이 다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2001년 복원 불사를 시작하여 2004년 대웅전 불사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조 · 환조 혼합 형태의 마애불
천연 암벽에 몸체, 그 위에 얼굴 얹어
후사 없던 선종 불사 후 후사 이어

용암사에 가면

따사로운 낮의 햇살이 마애불을 비춘다. 할머니 한 분이 마애불 밑에 앉았다. 경전 위에 놓인 긴 염주를 붙들고 부처님을 바라본다. 부처님도 할머니를 바라본다. 염주알 하나가 경전 위를 건너간다. 할머니가 다시 부처님을 바라본다. 부처님도 다시 할머니를 바라본다. 염주알 하나가 다시 경전 위를 건너간다. 염주알 하나에 부처님 한 분씩이니 지금 이 자리가 마침내 미륵부처님 오신다는 그 날 그 자리가 분명하다.

용암사 뒤 산기슭에는 천 년 전에 누군가 꾸었던 꿈이 벽화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그 꿈속에 또 누군가가 앉아 천 년 전처럼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꿈은 천 년을 이어졌다. 마애불 위로 떨어지는 따사로운 햇살이 아득한 세월을 지나온 태양빛이듯 지금의 이 자리는 언젠가 오게 될 그 날의 모습이 아닐까. 용암사에 가면 먼 훗날 미륵불을 만나는 그 날을 미리 볼 수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천연 암벽에 불상 둘을 조각한 것이다. 오른쪽 석불은 사각형 모자, 왼쪽 석불은 둥근 모자를 쓴 모습이므로 '용미리 쌍미륵석불' 이라고도 한다.

주변보기

-보광사 / 경기도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보광사는 신라시대인 894년(진성여왕 8년) 왕명에 따라 도선국사가 국가 비보사찰(裨補寺刹)로 창건했다. 고려시대인 1215년(고종 2년) 원진국사가 중창했으며, 법민대사가 목조불보살상 5위를 대웅보전에 봉안했다. 1740년(영조 16년)에는 보광사 인근에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 임금을 낳은 숙빈 최씨의 묘인 소령원(昭寧園)의 능침사찰이 되면서 대웅보전과 광응전 (光膺殿)을 중수하고 만세루를 세웠다. 근대에 들어서는 6 · 25 한국전쟁 때 별당 등 일부 전각들이 소실되었으나 이 후 복원불사가 이루어졌고, 1981년에는 거대한 호국대불을 세우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조선의 제8대 임금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의 묘 공릉(恭陵)과 제9대 임금 성종(成宗)의 원비 공혜왕후 한씨의 묘 순릉(順陵), 그리고 제22대 임금 정조의 양아버지 진종(眞宗)과 효순왕후 조씨의 묘 영릉(永陵)이 있는 곳이다. 장순왕후와 공혜왕후는 한명회(韓明澮)의 딸들이다.

-반구정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90

1449년(세종 31) 황희(黃喜)가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재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곳이다. 전국 8도의 사림들이 선현을 추모하는 승적(勝蹟)으로 수호하여 내려오던 곳이었는데 6 · 25전쟁 때 불타버렸다. 그후 황희의 후손들이 복구하였으며, 1967년 6월 옛 모습으로 다시 개축하였다. 문산의 임진강변에 자리하여 앞에는 널찍한 모래톱이 있다. 맑은 날 정자에 오르면 멀리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

〈식당〉
-명가람/ 031-948-3810 간장게장, 보리굴비
-오두산막국수 통일동산점/ 031-941-5273 막국수
-돌솥추어탕/ 031-962-0770 추어탕

〈숙박〉
-유신펜션/ 031-575-1188 광탄면 보광로 774
-혜숙민박/ 031-941-0374
광탄면 부흥로 519번길 46-84
-화이트벨리/ 010-3088-5333 광탄면 보광로 770-14

주지 태공 스님의 '우리 절에만 있는 것'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칠층석탑과 동자상



구전에 의하면 故 이승만 前 대통령 모친께서 용암사 마애석불 앞에서 득남 발원기도를 하여 이승만 前 대통령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1954년 이승만 前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 용암사를 방문하고 참배하며 남북통일과 후손 잇기 기원 기념으로 동자상과 7층석탑을 세웠다. 동자상은 마애불, 왼쪽 미륵불상 오른쪽 어깨 옆에, 7층석탑은 동자상 뒤편에 세워져 있었으나, 이승만 前 대통령이 4.19로 인해 하야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한 후 재야관련 단체들로부터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자 1987년 철거되어 종무소 우측으로 옮겼다고 한다. 2009년에 현 주지 태공 스님이 일반인들의 관람을 위해 삼성각 옆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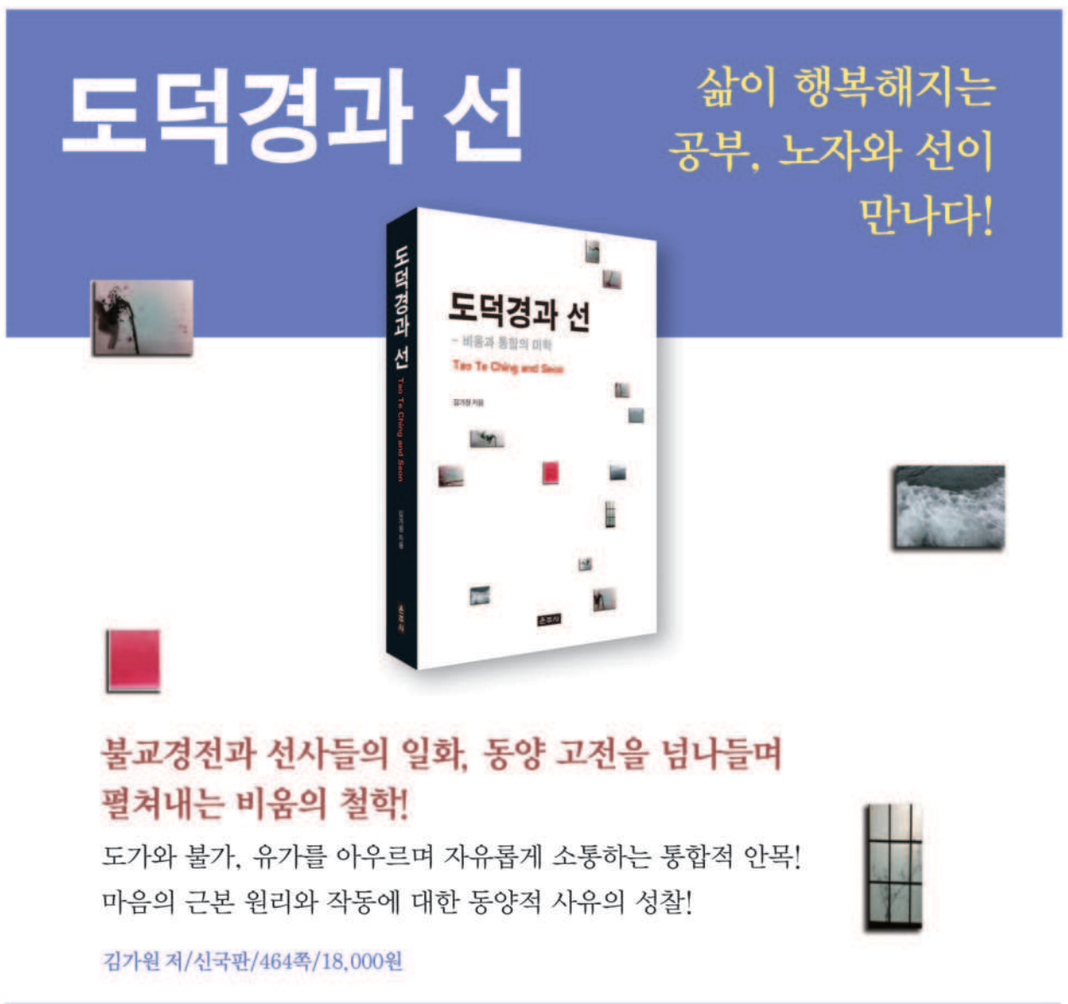
용암사 석등

대웅전 앞 오층석탑의 양쪽에 세워진 석등은 박정희 前 대통령이 참배 기념으로 세운 국토통일 천일기도 광명등으로, 왼쪽 등에는 '국태민안위하여 천일기도광명등' , 오른쪽에는 '구국통일위하여 천일기도광명등' 이라고 적고 있다.

대웅전 수달

용암사 대웅보전에는 닫집기둥에 수달상이 있다. 잦은 화재로 법당이 소실되었던 과거를 생각해 지금의 주지 스님인 태공 스님이 화재 예방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新 사찰 건축
5. 서울 상도선원

곳곳에 불법의 의미·전통 숨어있는 신도량

현대식 사찰 불사를 생각중이라면 꼭 한 번 들려봐야 하는 곳. 상도선원은 도심에 위치한 현대식 사찰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곳이다. 날렵한 '은동불상', 네모난 한지 연등, 인테리어 소품처럼 곳곳에 놓아둔 미술품 등 사찰에 문화를 접목하고 싶었다는 미산스님(상도선원장)의 의도대로 갤러리 사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9년 완공당시 언론마다 선원의 세련된 미감을 입에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를 가능케 한 건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상도선원 설계자, 백경국(55)씨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



상도선원의 108 유리창에는 삼존불과 6근, 6진, 6식에 대한 상징이 담겨있다.


앞건물과 뒷건물을 잇는 통로


지하에 위치한 법당. 상도선원의 미감이 집약된 곳이다.


불상을 위해 조명, 높이, 구조 등을 배려했다.


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벽에는 미술품이 장식되어 있다.

2009년 완공 · 경건축 백경국 설계
유리창 108개 등 곳곳에 불교관 심어
공간적 한계 '분할'로 극복하고
전통 가람배치 형식 · 내용 살려
법당은 '상도선원' 건축미학 집약

창없는 상도선원?

"상도선원덕에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의외였다. 완공된 지 4년이 흘렀지만 그간 인터뷰 요청을 한번도 받은 적 없다니. 워낙 유명세를 탄 상도선원이었기에 사전조사작업에서도 건축가 말 한마디 정도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준공당시 현장 사진 한 장에서 겨우 '설계 시공 경건축' 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건축가의 운명이라 생각해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상도선원이라는 공간을 인정해줄 때 보람, 희열을 느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익숙한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는 불자였다. 한 때는 심각하게 출가를 고민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었다. 들을 이야기가 많겠다 싶었다.

"종교 건물이잖아요. 불교의 상징성을 외부에 표현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불상을 보며 자신을 반추하듯 사람들을 내면적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종교성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건물 초입에 넣자 생각했어요.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일겁니다."

상도선원 전면부에는 창호문의 격자무늬처럼 빼곡한 유리창이 108개다. 불투명창과 투명창이 교대로 늘어선 것이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삼존불과 6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가운데 불투명 유리창은 석가모니를, 양측 불투명창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상징한다. 투명창은 세로로 6개 덩어리로 분할시켜 6근, 6진의 불교 기초교리를 표현했다. 가로 6줄의 유리로는 6식을 표현했다. 6근과 6진이 만나 6식을 일으킨다는 불교 기본 세계관을 담아냈다.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이 안이비설신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들어간다. 명료한 가르침을 닮은 투명한 유리는 의식을 정화시킨다. 10여개의 시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결정됐다. 다른 디자인이 선택됐다면 지금의 상도선원 모습과는 또 달랐을 것이다. 창을 내지 않고 전체를 콘크리트로 마감했을 수도 있었다. 재료 선택은 차후였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건축양식은 시대 변화에 따라 순응되어야겠죠. 그러나 불교의 상징성은 시대 흐름에 관계없이 건축양식안에 녹아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전통의 맥을 잇는 일입니다.

지금껏 몰랐던 상도선원의 '민낯'

상도선원의 입지조건은 전통사찰과 전혀 달랐다. 주변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었고 허락된 땅이래봤자 경사진 언덕의 124평이 전부였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건물 한 동에 필요한 공간을 넣어도 될 일이었다. 평범한 회사나 상가 건물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건축물이었다.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현대라는 이름으로 단절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기와지붕의 건축양식만 차용하는 것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격이었다. 불교건축에 담긴 의미, 본질이 중요했다. 건축가는 불교 의미를 드러내는 구조에 천착했다.

일심(一心)으로 진리 세계로 향하라는 의미를 지닌 일주문에서 보듯 사찰의 구조는 보리심을 되새기며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간 후 보이는 너른 마당, 그 끝의 대웅전. 길어진 동선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의 변화는 길을 걷는 이에게 종교적 이상향을 체험케 한다.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지만 공간에는 세속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는 이러한 불교의 상징성과 전통성을 조그만 땅에 집약시켰다. 우선 4층 높이의 한 덩어리 건물을 두 공간으로 나눴다. 앞 건물은 어린이법당, 나한전, 장경각 등으로 활용했고 두 건물을 잇는 계단을 만들어 뒷 건물을 승방, 공양간 등의 요사채로 구분했다.

앞 건물을 누각처럼 들어올리니 그대로 일주문이 되었다. 양 옆에 사천왕상을 조각할 벽면도 남겨두었다. 일주문에서 몇 걸음가면 갑자기 사방이 트이고 하늘이 드러난다. 왼쪽에는 두 건물을 잇는 유리통로가 있다. 그 너머로 나무도 보인다. 극대화된 공간적 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상도선원의 법당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는 이 '구조' 야 말로 상도선원의 핵심이라 말한다.

"법당에서 종교적 감흥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위해 법당에 높이를 주고 상을 세우면 누군들 그러한 감정을 못 느끼겠어요.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을 지나고 나서야 법당은 드러나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모르게 진계에 대한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공간과 건물의 관계는 바로 이런 데서 의미를 띤다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심리선을 따라 동선을 만들고 공간을 나누는 것. 백 건축가는 '분절' 에서 전통건축의 요체를 짚어냈다. 석굴암에서 전실과 주실을 통로로 이었듯 분절을 통해 공간은 확장되고 종교적 감동에 대한 여지도 확보된다. 백 건축가는 여기에 덧붙여 "건축은 공간과 형태 두 가지로 나뉜다"며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형태가 필요한 것"이라 강조한다. "형태를 위한 형태, 공간을 위한 공간은 없다"는 것이다.

지하에 부처님을 모신다고?

건물을 나눴더니 대웅전이 위치할 면적이 충분치 않았다. 땅을 팠다. 신도들은 난리가 났다. 부처님을 밟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도들을 설득해야 했다. 1년3개월이 걸렸다. 3개월만에 완성된 설계안은 착공하기까지 1년이란 시간을 더 필요로 했다. 전통과 현대의 접점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내홍이었다.

법당인만큼 높이를 고려해 땅을 깊게 팠다. 약 100평(연면적 311.87㎡)에 가까운 크기의 법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건축가의 의도를 이해했다. 확트인 공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운데 기둥을 없애고 양쪽 모서리로 밀어넣었다.

법당에는 상도선원의 조형적 요소가 모두 압축되어 있다. 은은한 나뭇바닥의 색감과 베이지톤의 부드러운 조명 가운데 위치한 날씬한 부처님은 석굴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조각가 서창원 씨가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인 두랄루민이라는 금속으로 제작했다. 건축가는 원불이 위치한 뒷 벽면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입체감을 부여했다. 불상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에도 신경썼다. 한지연등은 한지공예가 김정순씨의 작품이다. 연등 공간을 감안해 천장에 홈을 팠다. 공기정화를 위해 벽면에 넣은 대나무 숯은 미산스님의 의견이었다. 각자의 작품을 적재적소에 수용해 빛을 발하게 한 뒤편에는 백 건축가가 있었다. 법당은 모두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법당을 상도선원의 압권이라고 한다.

선원은 날렵한 느낌의 유리외관과 달리 포근한 느낌의 '나무집' 이다. 뒤편 건물은 적삼목으로 운치를 더했고 내부 역시 바닥, 계단, 벽 등 곳곳에 나무를 썼다. 나무의 종류만도 다섯 가지 이상이다. 특히 실내 계단은 붉은색 아프리카산 부빙가 나무를 써서 무게감 있는 고풍스런 느낌을 자아낸다. 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7미터나 되지만 지루하지 않게끔 벽면에 조각상을 두었다. 갤러리를 두고 싶어 했던 미산 스님의 제안을 벽면에 배치한 것이다.

장경각에 쓰인 나무는 전통사찰의 느낌을 살리고자 고목(古木)을 사용했다. 재료를 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딘가에서 쓰였을 나무는 상도선원에서 다시 살아났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라는 나무의 시간성을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서재안에 나무테마냥 고스란히 새겼다.

상도선원의 주인공은 부처님이 아니다. 6식에 대한 가르침을 품고 일심합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다. 건물을 나누는 것이 먼저였고 법당은 그 후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도선원은 건물을 통틀어 사람들에게 진계에 다가가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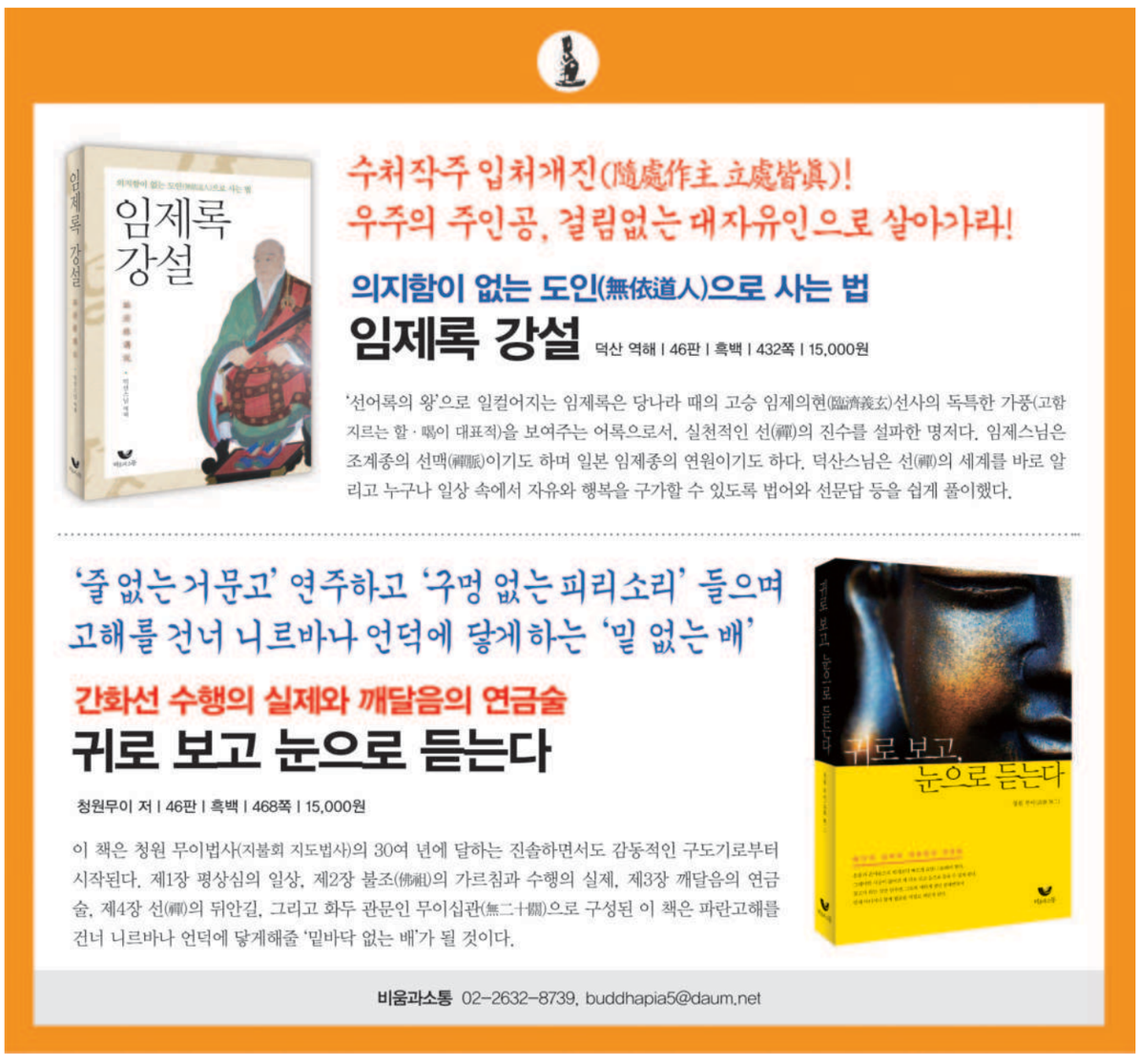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건축가 백경국은



한양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과를 졸업했다. 재학당시 세계 2위 건축그룹 NBBJ에 스카웃되었다. 한양대 교수를 거쳐 현재 경건축 대표이사다. 유학당시 전공서적만큼 불경이 많았다 불광사 광덕 스님께 법명 원명(願明)을 받았다. 16살에 작곡가로 데뷔해 문주란 등에게 곡을 주었다. 부친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만든 백영호 씨다.

설계: 용산 전쟁기념관, 오하이오 주청사, 신도림 푸르지오, 부산 안국선원 등





한국의 구법승
6. 원측 스님

중국 유식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7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경쟁관계는 치열해 졌다. 삼국은 국력을 극대화해 정세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문화역량을 키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7세기 초 중국 구법승들의 활동도 보다 활발해 지는데 원광 스님 이후 627년 경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원측 스님(613~696)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남북조 교학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종파불교가 형성됐으며 천태종을 필두로 화엄종과 법상종이 형성돼 중국교학의 정립기를 맞이했다. 원측 스님은 이 시기 새로운 교학의 진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원측 스님은 유학 후 귀국하여 활동한 원광, 자장 스님과는 달리 신라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머물며 사상을 선양했다.

원측 스님은 신라 진평왕 35년(613)에 신라 왕족으로 태어났다. 영민했던 원측 스님은 출가의 길을 택한다. 원측 스님이 언제 중국으로 갔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15세인 627년 고승들을 찾아 수학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쯤 중국으로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현장 스님이 인도 유식사상을 익히고 경전을 구하기 위해 대장정을 나선 때였다. 원측 스님은 처음 법상 스님과 승변 스님 등 섭론의 대가들에게 수학했다. 이들은 당시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화엄종을 이룬 지엄 스님이나 법상종의 개창조 현장 스님도 이들에게 수학했다.

원측 스님은 총명해 많은 글도 한번 들으면 모두 기억했다고 한다. 원측 스님은 정관 연중(627~645)에 당 태종의 허락을 얻어 왕도의 원법사에 주석했다. 그리고 비담 · 성실 · 구사 · 비바사 등 논서를 익히고 화엄 · 법화 등을 두루 익혔다. 또 이시기 뛰어난 스님들이 그러하듯 어학도 널리 익혀 범어를 비롯한 6개 국어에 통달했다고 한다.

645년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새로운 경론을 가지고 귀국하자 중국불교계의 교학 분위기는 크게 바뀐다. 현장 스님이 〈유가론〉과 〈성유식론〉으로 대표되는 유식의 새로운 경전을 번역해 소개할 때 원측 스님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들 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했다. 여기에는 원측 스님이 능통했던 어학과 그동안 익힌 유식의 기반이 큰 도움이 됐다.

〈송고승전〉에는 재미난 일화가 전해진다. 현장 스님이 규기 스님에게 전수하는 유식론과 유가론 강의를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마루 밑에서 도청해 규기보다 먼저 대중들을 모아 강의했다는 기록이다. 원측 스님이 규기 스님보다 빨리 새 논서를 이해하고, 자신이 익혔던 섭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식을 전개한 것을 비방하기 위해 만든 일화다.

5조 홍인 스님이 야밤에 법맥을 혜능에게 주고 남쪽으로 가라고 한 것이라든지, 지공-나옹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그 직계제자들이 무학 스님이 잇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옆에도 못오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 스님의 직계제자인 규기 스님은 뛰어난 원측 스님을 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에 전해진 부처님의 법이 동쪽 신라로 가는 것을 두려워 한 결과일 것이다.

고익진 선생님은 〈한국고대불교사상사〉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규기(632-682)는 현장이 전래한 호법(Dharmapaala 530-561) 계통의 새로운 유식사상에 입각해서 법상종을 세운 사람이며, 원측과는 여러모로 학해(學解)에 대립되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송고승전〉의 모욕적인 기술은 그 파에서 원측을 비방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고 표현했다.

신라 왕족 출신, 총명함 드러내
6개 국어 능통, 당대 불교 섭렵
현장 스님의 〈성유식론〉 이해
규기 보다 먼저 대중 강의해

〈해심밀경소〉 신라불교 3대 저작
출신 성분 넘어 중국불교 이끌어
제자들 신라법상종 형성에 기여



중국 시안(西安) 흥교사에 있는 원측 스님 사리탑, 현장 스님의 탑을 중심으로 왼쪽이 규기 스님의 사리탑, 오른쪽이 원측 스님의 사리탑이다.





사리탑 내에 모셔진 원측 스님의 상(사진 왼쪽)과 탑에 새겨진 공적비문. 스님의 얼굴이 무섭게 표현된 것은 뛰어난 이방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시샘이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역주한 한국불교전사 중 〈해심밀경소〉. 유식학 경전인 〈해심밀경〉에 대한 원측 스님의 해설인 〈해심밀경소〉는 신라 고승의 3대 저작으로 꼽힌다.

아무튼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원측 스님은 658년 서명사가 낙성되자 이 사찰에 대덕으로 초빙된다. 서명사를 중심으로 원측 스님은 〈성유식론소〉를 비롯한 많은 유식학의 저술을 펴내 현장 스님의 신역 불교를 널리 펴는데 이바지 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실력이 뛰어나면 현지인의 시기를 받기 마련. 원측 스님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자, 그 제자인 규기(窺基) 일파가 강하게 반발했다. 확인 결과 원측 스님의 지적이 정확했음이 밝혀졌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측은 종남산에 암자를 짓고 8년 동안 칩거했다. 671년 무렵은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하던 때로 이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다시 서명사에 돌아온 원측 스님은 측천무후의 지원을 받고 후학들에게 〈성유식론〉을 강의하고 지도했다. 신라 신문왕은 여러차례 원측 스님의 귀국을 요청했으나 측천무후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범어에 능통했던 원측 스님은 여러 번역에 참여해 증의 역할을 맡았고, 만년에는 낙양 불수기사에서 실차난타 삼장이 80권 〈화엄경〉을 번역하는데도 참가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다. 입적한 원측 스님의 법신은 향산사 부근에 다비를 치러 백탑이 세워졌다. 원측 스님의 제자들은 규기 일파의 해코지를 우려해 종남산 풍덕사에 따로 사리탑을 세워 그의 분골과 사리를 안치했는데, 1115년 송(宋)대에 지금의 흥교사로 옮겨졌다. 현재 흥교사 뜰에는 가운데 현장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왼쪽에 원측, 오른쪽에 규기의 탑이 세워져 있다.

원측 스님은 중국 불교의 번영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이는 그의 사후 '사리탑명병서(舍利塔銘并序)'에 적힌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명사의 대덕으로 부름을 받고서 '성유식론소' 10권, '해심밀경소' 10권, '인왕경소' 3권, '강반야관소연론', '반야심경' '무량의경' 등의 소를 찬술하였으며, 현장 법사의 신비로운 전적을 도와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현장을 도와서 불법을 동쪽으로 흐르게 하고 무궁한 교법을 크게 일으키신 분이다."

원측 스님이 주석한 경론은 신라와 일본, 그리고 티베트까지 전해진다. 원측 스님에서 비롯된 서명학파의 유식이론이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측 스님은 그 어떤 학자보다 많은 저술을 남겼다. 탑명(塔銘)에는 원측 법사의 저술이 기록되어 있다. 탑명에 의하면 원측 법사는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 10권, 〈인왕경소(仁王經疏)〉 6권,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 〈관소연론(觀所緣論)〉,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 〈무량의경소(無量義經疏)〉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전하는 저술은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10권과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 1권, 〈인왕경소(仁王經疏)〉 6권뿐이다.

특히 원측 스님의 저서인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는 혜초(慧超)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원효(元曉)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함께 신라 고승의 3대 저작물로 세계 불교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가 저술한 〈해심밀경소〉에 의하면 어떤 역자가 잘못 번역한 것을 자주 지적하고 있으며 교학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태도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원측 스님 만이 소신있게 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원측 스님을 잇는 제자들인 승장, 도증, 도륜 스님들은 당 법상종과는 다른 별도 학파인 서명학파를 이루었다. 이 중 승장 스님은 범어 전문가로 유식 인명에 대한 여러 저술을 남겼으며 원측 스님 입적 후 사리를 나눠 종남산에 사리탑을 세워 숭모풍조를 확대했다.

도증 스님은 신라 효소왕 원년(692)에 신라에 귀국해 천문도를 바쳤는데, 도증 스님의 귀국은 신라 유식사상 전개에 큰 의미를 갖는다. 도증 스님의 사상은 태현 스님에게 계승돼 신라 법상종 성립의 사상적 배경을 이뤘다.

도륜 스님은 당대 유식사상을 집대성한 〈유가론기〉(705) 20권의 방대한 저술을 비롯한 18종 57권의 저작을 남겼는데 규기 스님의 법상종 정통설과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이처럼 원측 스님의 활동은 구법승들의 활동이 비록 본국에 귀국하지 않더라도 본국의 사상진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시안(西安)의 흥교사(興敎寺)에 그의 탑묘가 남아 있으며 탑묘 안에 초상이 새겨져 있다. 초상을 보면 스님의 얼굴이 무척 무섭게 그려져있다. 그림에서 어린시절 고국을 떠나 중국에서 수도자의 삶을 마친 스님의 고고함과 고독함 그리고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자신에게 무척 엄격하였을 것 같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자기 마음 아는 사람은 드물어

철야정진법문 ⑩

왜 눈이 보는 것 아닌고? 눈에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 비치긴 비쳐도 볼 줄 모르거든. 보는 놈은 따로 있거든. 눈에 비친 걸 보는 놈이 따로 있어. 인제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라 말이여. 귀에 지혜가 없거든. 그런데 듣기는 듣는 기관은 기관일지언정 말이지 그 아는 놈은 따로 있거든. 이것이 뭣꼬? 혓바닥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뭣고? 뭣이냐 말이여. 뭣이 마음이냐 말이여.

사실로 마음 아는 사람 좀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마음을 아는 사람 백 명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백 명이 못 되면 오십 명 정도 될까. 오십 명이 못 되면 스물다섯 명쯤 정도 될까 스물다섯이 못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쯤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자리에 대해서 말이지 숱한 명자가 있어요.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숱한 명자가 있습니다. 화두식으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있는데 좌우간 어쨌든지 마음이 말이지 내가 마음을 써. 내가 마음을 쓰긴 쓰는데 모른다 말이여.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허공아까 말했죠?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써. 허공 없는 것 같지만 허공중에서 산하대지가 다 나와. 그럼 허공 없는 건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이것이 지혜가 없는 눈을 가지고 보고 지혜가 없는 귀를 가지고 듣는다 할지라도 말이지 있으니까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그만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실히 봤다. 틀림없이 봤죠. 내가 확실히 들었다. 틀림없이 들었지만 사실 듣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린데 마음이라 하겠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서 찾느냐 이거에요.

허공 걷어잡아야 됩니다. 허공 걷어잡지 않고 마음을 알았다면 그건 만년 거짓말입니다. 석가세존이 그랬더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허공 걷어잡아야 돼. 허공 걷어잡기 전에는 마음 몰라. 그러면 허공을 내가 또 알아야 되겠다 말이지. 마음 걷어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말이지 허공이나 마음이나 매 한가지라. 매 한가지라. 아까 크고 적은 걸 말했지만 말이지 공부하는 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헤겔이 이걸 못 걷어잡았어. 헤겔 머리 좋은 사람이여. 굉장한 사람이여. 그러나 이 절대성 자리, 이 마음자리 못 걷어잡았거든. 이것은 말이지 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내 무식하거든. 내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여. 못 걷어잡았거든. 다윈도 역시 그래요. 요 절대성자리 딱 파악을 못 했어요. 굉장한 세계적인 우수한 학자인데 세계적인 우수한 삼계의 학자라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지 별 수 있나요?

그러하니 그러면 절대성 자리가 있어. 이거 절대성이라고 합시다. 마음이라 뭣이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절대성 자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투는 건 전부 상대성이여. 태양도 상대성, 지구도 상대성, 어느 것 상대성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 이름 붙인 건 상대성이라.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절대성에서 온 것이거든. 절대성자리에서 그걸 무명이라 하는데 안밝음, 우리말로 안밝음. 한문으로는 무명, 그러니까 입처가 다르거든. 다르니까 이 사람 이대로 나타나고 저 사람 저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삼라만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 **허공 걷어잡지 않고**
> **마음을 알았다면**
> **그건 만년 거짓말입니다.**
>
> **허공이나 마음이나 매한가지**
> **헤겔도 마음자리 파악못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 말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지 우주를 싸고 있든지 그 다음에 조그마한 바늘귀 속에 앉아 있든지 그건 별문제여. 자유자재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나 한 가지에요. 산하대지가 나왔으니 어땠겠죠? 또 이 허공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하고 꼭 한가지거든. 그러면 허공은 지혜가 없어. 여러분의 마음은 지혜가 있어. 알았죠? 허공은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있는지 모르죠. 허공, 여러분의 마음은 지혜가 있어. 요래 할까 저래 할까. 부회(화)가 난 일이 있으면 한 주먹 갈기기도 하고 이런 지혜가 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겸손한 생각으로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있겠죠? 난 누리의 주인공 아니다 이래 하는 그 놈이 바로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상대성이라 하는데 지구니 태양이니 뭣이니 나무니 돌이니 할 것 없이 사람이니 전부 상대성에 속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실은 절대성의 작용이에요. 절대성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면 말이지 벌써 인간이란 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 잘나고 못나고 간에. 못나면 못난 대로 누리의 주인공이고 잘나면 잘난 대로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 다 포기해 버리고 나는 못나서. 물론 잘 살고 못 사는 건 있어. 그건 복덕관계여. 인연관계여. 잘 사는 일을 하면은 벌써 그 자리가 입처가 잘 살게 돼. 전생에 내가 어쨌든지 말이지 내가 행동을 잘못 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자리 태어나지 못하고 나쁜 자리 태어나게 마련이여. 그래서 고생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까짓 거 이 자리, 이것만 알아버리면 그건 저절로 해결이 돼. 그러하기 때문에 인연관계, 잘 산다 못 산다 요걸 갖다 인연관계라고 생각이 딱하게 자신이 딱 서면 아무리 잘못 살아도 바로 천당이여. 그 사람에게는. 참 좋은 거여. 재미가 나는 거여. 아, 내가 빚 갚아야 되겠다. .누가 와서 뺨 한 대 때려도 곱게 맞아. 웃으면서 맞아. 이런 도리가 있는 거여.

왜 그러느냐. 그 전생관계, 절대성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데 헤겔 같은 사람 이걸 몰랐거든. 사람은 다 공평한 거예요. 절대 공평한 거여. 그건 틀림이 없어. 절대로 공평한 거여. 공평하겠지만 작용하는데 있어서 말이지 그 씀씀이에 있어서 말이지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되고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는 건 절대성자리 몰랐다 이것이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삼보는 깰 수 없는 다이아몬드

4-9 귀경례

이렇듯 지관(止觀)의 수련을 통해 문(門)에 대한 의심을 풀어 버린다.

불교는 전진적(前進的)인 것이다. 삿된 집착을 버리고 부처의 도(道)를 넓히고 널리 선포하는데는 '나' 라 하는 것, 조그만 나의 견해 같은 것을 버리고 우주적인 대아(大我)와 공정성(公正性)에 의하여, 방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후퇴하지 말고 끊임없이 분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아비발치라고 하는데 불퇴전(不退轉)이라는 뜻이다.

至心歸命 十方法界常主三寶(一拜)

시방(十方)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유사방(四維四方)인 동서남북과 상중하(上中下), 그리고 과거 · 현재 · 미래 · 이렇게 열 개의 방위라는 뜻이다. 우리말로 시방이란 시간적으로 현재를 가리키는데 비추어 언제나 현재가 이 모든 방위의 중심이 된다.

법계(法界)는 종횡이 구족한 경계를 이름. 종횡이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이 두루 갖추어져 만족한 상태에 놓인 세계라는 말. 이는 원효대사가 풀이한 말씀이다. 상주(常住)는 〈열반경(涅槃經)〉에서 말하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이 한가지로 구비된 자리다. 불교에서 무상(無常)이라 할때는 반드시 유상(有常)을 내다보고 하는 소리며, 고는 극낙(極樂)을 전제한 명제이며 무아(無我)라는 것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열반(涅槃)의 대아(大我)를 지향하는 말인 것과 같이, 번번히 염구(染垢)를 들먹거리는 것은 청정상(淸淨相)을 이에 대비하여 강조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여기 상주(常住)라는 것은 상낙아정이라는 이 네 글자가 가리키는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삼보(三寶)는 이미 말하였거니와 불보(佛寶)인 부처님과 법보(法寶)인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승보(僧寶)인 부처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회단체. 이 셋은 광명(光明) · 정대(正大) · 화합(和合)으로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광명의 반대가 암흑이고, 정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왜곡과 모략이며 화합을 그르치는 것이 파괴라는 것을 상상해 보라. 광명, 정대, 화합의 반대 세계, 즉 암흑과 왜곡 · 파괴로만 뒤엉킨 세계는 정말로 겁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보를 성취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불가사의한 덕과 진리가 모두 망라하여 갖추어져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자재(自在)로운 마하반야(摩訶般若)가 무르녹아 있다. 이러한 마하반야의 삼보는, 밝고 바르고 사이 좋은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다. 이 세가지 덕성(德性)을 갖추었을 때 어떠한 헐뜯는 쟁논(諍論)도 이를 깨트리지 못하고 물러난다, 이것이 금강불괴(金剛不壞)이다.

원효대사는 삼보의 덕을 세 가지로 보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

첫째는 심덕(心德)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또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업상(業相)이 참으로 위대하여 생(生)으로부터 사(死)에 이르기까지 다 풀이하시었고 또 광대 무변한 부처님의 일을 이룩하시었다. 이것은 심덕의 체(體)를 표현한 것이다.

> **불보 · 법보 · 승보**
> **덕과 진리 모두 망라한**
> **원융무애한 자재로운**
> **마하반야가 삼보에 있다.**
>
> **원효대사는 삼보의 덕을**
> **심덕 · 색덕 · 명호에**
>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심덕(心德)의 용(用)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저 도솔천(兜率天)에서, 마야부인(摩耶夫人)의 태중에서, 룸비니원에서 나서, 커서, 장가 들고 성(城)을 넘어서, 입산(入山)하여, 수도하고, 마구니 항복받고, 중생을 교화하고 마지막으로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 입적열반하셨다. 이를 팔상성도(八相成道)했다고 한다. 팔상성도로써 인간이 가진 모든 현실적인 양상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큰 공덕(功德)을 베푸셨다.

둘째는 색덕(色德)인데 이의 체와 용은 앞에서 얘기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셋째 명호(名號)에 큰 덕이 있다. 이름을 이어 관세음보살 · 아미타불 · 대세지보살 · 문수보살 · 보현보살 · 원효보살 하면 그 명호 자체가 중생을 건지는 덕이 있어 대자대비를 표현하고, 부처님의 위대한 지경, 인간의 모든 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대비를 주로 삼아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불법승 삼보의 보(寶)라는 글자에는 위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다.

5. 탄불게(歎佛偈)

如來妙色身 世間無與等
無比不思議 是故今敬禮
如來色無盡 智慧亦復然
一切法常住 是故我歸依

집은 청소를 하였다. 몸과 집을 쓸고 비질을 하여 청청히 해 놓고 다음엔 더 정성을 들여 오분향(五分香)을 피워 향기롭게 만들었다. 여기 우리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대성자들을 모시었다.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님과 부처님의 이상을 상징한 모든 덕(德)을 구비한 아미타불(阿彌陀佛)과 또 이를 각이덕상(各二德相)의 부분적으로 표현한 문수보살(文殊菩薩) · 보현보살(普賢菩薩) ·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또 이러한 모든 부처님의 덕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되새겨 잘 풀이하신 원효보살(元曉菩薩)등을 시방상주(十方常住)의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가 갖추어진 우리의 집, 법당(法堂)안으로 모셨다고 하자. 이와같은 거룩한 어른들을 모시고, 마주 대하고, 바라보노라니 그분들의 덕행(德行)이 장엄한 데에 대하여 환희심이 나고 칭양 찬탄을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분들께 게송을 한다. 게송은 범어로 〈가타〉라고 한다.

이 게송의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여래의 미묘하고 유다른 색신은(如來妙色身) 우리의 눈에 환히 보이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어 묘한 빛갈의 카야(世間無與等), 그 몸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할 바 없다(無比不思議).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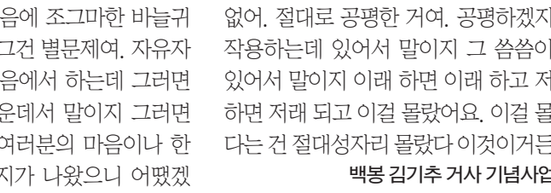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인고 견딘 힘은 '초의 편지·茶·불경'

유배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추사의 열망은 1849년에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가 제주로 유배될 초기까지만 해도 9년이나 제주도에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당대의 권세가였던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1785~1840)이 그와 뜻이 통했던 인물이었고, 그와 절친했던 권돈인의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인연은 무심한 것인가. 그토록 기대했던 김유근이 1840년 1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로 인한 그의 상실감은 한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혔으리라. 아! 세월의 인고를 견딘 추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는 바로 차와 불경이다. 더욱 그를 위로했던 것은 초의의 편지와 차였다. 아울러 간간이 찾아오는 그의 제자들과 승려들, 가족들의 소식도 더할 나위없는 청량제가 되었다. 호의와 초의는 추사의 오랜 벗. 1846년 정월에 보낸 그의 편지엔 따뜻한 훈풍처럼 그의 언 가슴을 녹일 희소식을 들었던 것일까. 늦봄쯤이면 해배될 것이란다. 한껏 부풀었던 추사의 기대는 호의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 가득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글씨 '명선'. 간송미술관 소장

호의, 초의스님들께

새해가 바뀌는 것을 기다림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스님의 편지를 받고, 곧 정월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행의 자취와 분율(分律)이 더욱 길하다니 천만번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그대들이 축원하는 힘에 힘입어 몸과 마음이 모두 맑고 복됨을 얻었으니 복되고 복됩니다. 다만 객의 마음은 때로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유배에서 풀려 돌아갈 날이 아마 늦은 봄쯤이 될 듯합니다. 이만 정오(1846)년 정월 4일 늑편

(縞師 草師 僉尊 歲新翹耿 卽於謂外 承梵椷 就認元正 戒履分律增吉 慰荷萬千 俗人賴師輩祝釐之力 身意俱得淸福 可喜可喜 但客懷有時悶苦 歸期似在晩春間耳 不式 丙午 正月 四日 泐便)

추사가 초의와 호의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 전, 1845년 5월, 집으로 보낸 그의 편지에 '제주목사가 내직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모로 다행이다. 임금께서 지척에 계시고,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어 (내가)한번 회생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더욱 감축할 일이다.' 라고 했다. 당시 제주 목사는 이원조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원조는 초의와도 교유했던 인물로, 추사와 가까운 사이었다. 따라서 이원조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내직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임금에게 자신의 무고를 변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듯하다. 실제 이원조가 추사의 해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846년 정월 추사의 해배 논의는 본격화되어 거의 해배가 결정되었던 것일까. 그가 '유배에서 풀려 돌아갈 날이 아마 늦은 봄쯤이 될 듯' 하다고 한 것은 이미 해배의 희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 편지는 새해의 첫 날을 보낸 후, 5일 만에 보낸 편지이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 의미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다' 는 것이다. 누구나 새해는 새로운 계획과 희망으로 부푼다. 하지만 제주 유배지에서 그가 느낀 덤덤한 새해를 새롭게 일깨워 준 것은 바로 초의였다. 그가 '스님의 편지를 받고, 곧 정월이 되었음을 인정' 했다는 대목은 이것을 알게 한다. 한편 객지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그의 마음은 '때로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실로 인간적인 그의 속내가 또렷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초의처럼 뜻을 나눈 벗을 염려하는 그의 정 깊은 배려는 '수행의 자취와 분율(分律)이 더욱 길하다니 천만번 위로가 됩니다' 는 대목에서 이들의 오롯한 우정을 느낄 수 있다. 호의는 완호의 제자로, 초의의 형이다. 완호의 제자 중에 삼의(三衣)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호의, 하의 초의였다. 이들은 모두 추사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특히 한통의 편지에 수신자가 둘인 사례는 추사의 이 편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편지를 쓰는 형식 중에 하나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소외된 이웃 돌봄은 수행이며 자비행"

지원 스님 (위드아시아 이사장)

"불교의 가르침은 소외된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함께 가야 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돌보지 않는 포교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국제구호NGO인 위드아시아(with ASIA)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첫 마디로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북한 어린이 인도적 지원 사업은 물론이려니와 합천 평화의집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소수민족 절대빈곤층 국제구호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 대북 사업까지 스님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이러한 말은 더 크게 다가 왔다.

부산 문수사에 주석하는 스님은 3월 12일 심양에서 조불련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사전회의로 서울로 올라온 상태였다.

스님을 만나며 스님이 NGO단체인 위드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동진 출가… 불가와 인연의 시작

먼저 스님에게 출가연을 여쭈었다. 가문의 장손이었던 스님은 12세의 나이에 송광사 원로이신 법흥 스님의 상좌로 출가한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집안에 출가한 이들이 많았다며, 어려서부터 출가한 친척들이 자주 원효 스님의 일대기 등 스님들의 구도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7촌 누이가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스님의 '진짜 공부는 부처님께서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뭇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출가한 원력을 따르는 것' 이라는 말을 듣고 출가의 원이 생겼어요. 그 날로 위에 누님의 50원짜리 두 장을 쥐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동네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포항 보경사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라 보경사에서는 스님을 스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은 부처님 열반하신 2월 8일 이었습니다. 낙담할 때였어요. 공양주 보살께서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이 되는 것 만큼 큰 공덕을 쌓는 것이 없다. 출가하기로 잘 생각했다' 고요. 그 공양주 보살이 절에서 며칠 기거하다보면 절에서도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용기가 났죠."

스님은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3일간을 마루에서 잠을 잤다. 결국 스님은 사찰에 남게 됐다. 스님은 그때부터 나무도 하고, 밥도 지으며 일종의 행자 생활을 했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냈다.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공부

스님은 1969년 송광사 법흥 스님을 만나 정식으로 출가했다. 지원 스님은 지금도 스님을 오늘에 있게 한 힘이 은사스님의 한결같은 수행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님께서는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었어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은사 스님과 헤어져야 했다. 법흥 스님이 공부 차 향곡 스님이 머물고 있던 묘관음사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도 은사 스님의 뜻에 따라 통도사로 발길을 돌렸다. 어린 그의 손엔 편지 한 장만 쥐어주었을 뿐이다.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던 홍법 스님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이었다. 홍법 스님은 한국전쟁 전후 수행진작과 포교를 이끌었던 선지식이다. 세납 49세의 나이로 입적했지만 지금도 스님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할 동안에는 통합종단 조계종 중앙종회 초대의장 이후 2·3대까지 역임하고, 통도사 방장도 지낸 벽안 스님을 시봉하기도 했다.

"그 때 당시 노스님께서 하신 말은 아직도 저의 삶의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출가한 이가 다른 이에게 누가 돼서는 안 된다' 는 겁니다. 스님은 스스로 바느질하고, 방 도배를 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도 직접 하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세가 되던 해 스님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당시 강원에서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졸업한 도반들이 상당수 있었다. 스님은 통도사를 나와 범어사로 향했다. 여기서 부산 문수사 덕암 스님을 만나게 된다. 덕암 스님은 경보 스님의 맏상좌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 온 실력파 스님이었다.

"스님의 영어, 일어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스님은 한 눈에 몇 줄씩을 읽어 가셨습니다."

부산 문수사 일을 거들며 덕암 스님으로부터 영어와 수학을 배운 후 고등학교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후에, 덕암 스님은 지원 스님을 법상좌로 받아들였고, 문수사를 지원 스님에게 맡겼다.

"스님께서는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 세 시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오셔서 예불 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교학은 물론 외전 공부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가져

배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스님은 점차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눈이 갔다. 평생 수행 정진을 할 것 같았던 스님이 인권, 반핵, 평화 운동가로 나서게 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법흥 스님 은사로 동진 출가
어려운 이웃 돌보는 원력 세워
진관 스님 만나며 사회운동 전개
참여불교운동본부서 북한 구호 활동
2011년 국제구호 위드아시아 창립
캄보디아·미얀마 등지 교육불사
합천 평화의 집 운영 지속 지원
"소외계층 보살핌이 부처님 가르침"

"불교를 공부할수록, 불교가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진정 무엇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러던 차에 사회운동에 한창이던 진관 스님과 만나며 함께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은 1980년대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다. 스님은 진관 스님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며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사회의 그늘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 때 깨달았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스님은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04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맡으며 대북활동에도 나서게 된다.

"사회부장을 맡으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북한 지역을 들락거리며 보니, 그 실상이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어려운 이웃들보다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2004년 4월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복구사업을 지원을 계기로 부산 지역 스님들을 비롯한 사회운동가 스님들은 뜻을 모았다. 바로 참여불교운동본부의 탄생이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조선족 어린이 장학금 지원사업,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 등을 펼쳤다. 특히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북녘어린이에게 신발 보내기 운동'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당시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등이 참여했다.



미얀마 아이들에게 직접 강연하는 지원 스님



캄보디아 세인야디나 사원 공부방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



지원 스님은 … 1966년 송광사 입산, 법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를 졸업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문수사 주지를 지내고 있으며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사회문화특보, 제11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산문에 부는 바람〉〈걸망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이별 연습〉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남북 분단은 어른들이 지은 '업' 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산에서 따먹을 열매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님은 정치와 별개로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 특히 아이들과 여성을 보살피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의집 운영 지원… 불자 관심 절실

스님의 발원은 원폭피해자 2 · 3세들의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 개소에도 이어졌다. 210년 3월 개소한 한국원폭2세 환우 쉼터 '합천 평화의 집' 은 환우 지원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평화의집은 심리치료프로그램과 희생자 추모제 등 물질적인 지원을 넘은 이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합천 지역이 가장 원폭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더군요. 전쟁의 잔재로 인해, 그 영향 하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2012년 민간단체들이 주도한 합천 비핵 · 평화대회를 평화의 집이 주도한 것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평화의집' 은 홍보대사가 마라톤을 1km를 뛸 때마다 100원씩 기부하는 기부캠페인을 펼치기도 해 큰 관심을 받았다.

"원폭 2세대 사람들은 이제 병들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그들의 병은 누가 치유해 주어야 합니까? 그들이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불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위드아시아' 로 이제 세계인과 함께

스님은 이후 인도를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과 소수민족 절대빈곤층의 고뇌도 끌어안았다. 바로 2011년 '위드아시아' 의 창립이다. 스님은 참여불교운동본부를 이때 새롭게 NGO단체로 발돋움 시켰다. 지구상 곳곳의 절대빈곤층의 고뇌도 끌어안았다. 1999년부터 중국 조선족 돕기 사업을 필두로 전개한 사업은 10여 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절대빈곤층 지원 사업으로 이어졌고 2011년 대북인도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와 통합하면서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를 탄생시켰다.

"국내와 북한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돕다보니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시선이 돌려지더군요. 하루 한 끼를 못 먹어 굶주리며 죽어가는 아이들, 오염된 웅덩이 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하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등 작은 도움이면 이런 아이들이 죽지는 않고 자랄 수 있습니다."

위드아시아는 인도 불가촉천민 대상 학교를 비롯해 인도 · 태국 · 캄보디아 · 미얀마 등에 공부방과 학교를 건설하는 교육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스님이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근본적인 빈곤을 퇴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위드아시아 드림나래센터' 를 개원해 드림마을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물 파기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어요. 여러 후원자들의 소중하고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 앞으로 더욱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스님은 끝으로 여생동안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헌신하겠다며 불자들의 참불교정신 발현을 기원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의 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위에 눈을 돌려 관심과 나눔 배려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힘든 삶을 헤아려 어려움을 나누고 치유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과 희망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캄보디아 드림 나래 센터 개원식 모습. 위드아시아는 현재 미얀마 · 캄보디아 · 인도 등지에서 구호 활동 중이다.

전법일기

군법회의 먹을거리 X파일

올해로 통도사 강원에서 생활하다 입대한지 16년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배고픈 곳입니다. 특히 한창 나이인 장병들이 느끼는 배고픔은 더합니다.

군법사로 살다보면 종종 부대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한번은 전방의 대대를 방문했는데 대대장께서 병사들과 동석 식사를 하며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점심 메뉴가 '돈가스' 였던 것입니다. 배식대에 긴 줄이 서있는 가운데 대대장과 제가 배식을 받는 차례가 왔습니다. 대대장은 눈치도 없이 자신의 분량을 떠서 먼저 자리로 갔습니다. 육식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데 뒤에 있는 병사에게 제 몫까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병사는 돈가스 두 개를 자신의 식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제 뒤에 있던 병사가 돈가스 두 개를 식판에 올려놓는 것을 본 다른 병사들이 할당량은 분명 개인당 한 개 임에도 불구하고 돈가스를 두 개씩 식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배식하는 과정에서 한 개씩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룰이 깨진 겁니다.

장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개씩 뜬 장병들의 식판이 식탁에 올려지자 심지어 이미 식사를 마친 병사들도 여럿이 돈가스 한 개를 더 먹겠다고 배식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약 3분 만에 식당 배식대 인근은 아수라 장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개씩 갖고 가도록 공지를 하고서야 이런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이런 먹거리에 대한 욕구는 법회에도 여전합니다. 법회가 시작되면 군종병들은 법회 인원을 세기 위해 신발장으로 갑니다. 바로 공양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투화가 몇 켤레 있는지를 세어보고 이를 토대로 공양물을 준비합니다.



그림 · 박구원

그런데 법회 후 간식을 나눠주면 공양물이 남는 경우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군종병이 분명히 정확하게 인원을 계산하고 간식을 준비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간식은 모자랍니다.

누군가 분명 한 개를 더 먹은 모양이지요. 문제는 옆에서 한 개를 먹던 병사들이 옆에서 몰래 두 개를 먹는 병사를 보면 자신도 하나를 더 먹으려는 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의 간식도 누군가가 시주한 보시물인데, 남들이 하나 더 먹는 것을 보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법사 입장에서야 간식 하나 더 챙겨주고 싶지만, 그 것도 한두 명에 한두 번입니다. 일 년 내도록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만약 통제가 되지 않으면 간식 소요량이 늘어날 뿐입니다.

한창 나이에 잘 먹어야 할 장병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부족한 간식이 애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정이 난다고, 부족하지만 더욱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일요일 법회에서는 장병들은 법회 후 작은 공양을 합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음료 하나 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제과점 빵에 콜라가 한 캔씩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공양물들은 부대 신도들이 낸 월정 헌공금과 초파일에 올려진 연등 공양비, 그리고 민간 사찰 등에서 후원받은 보시로 구매한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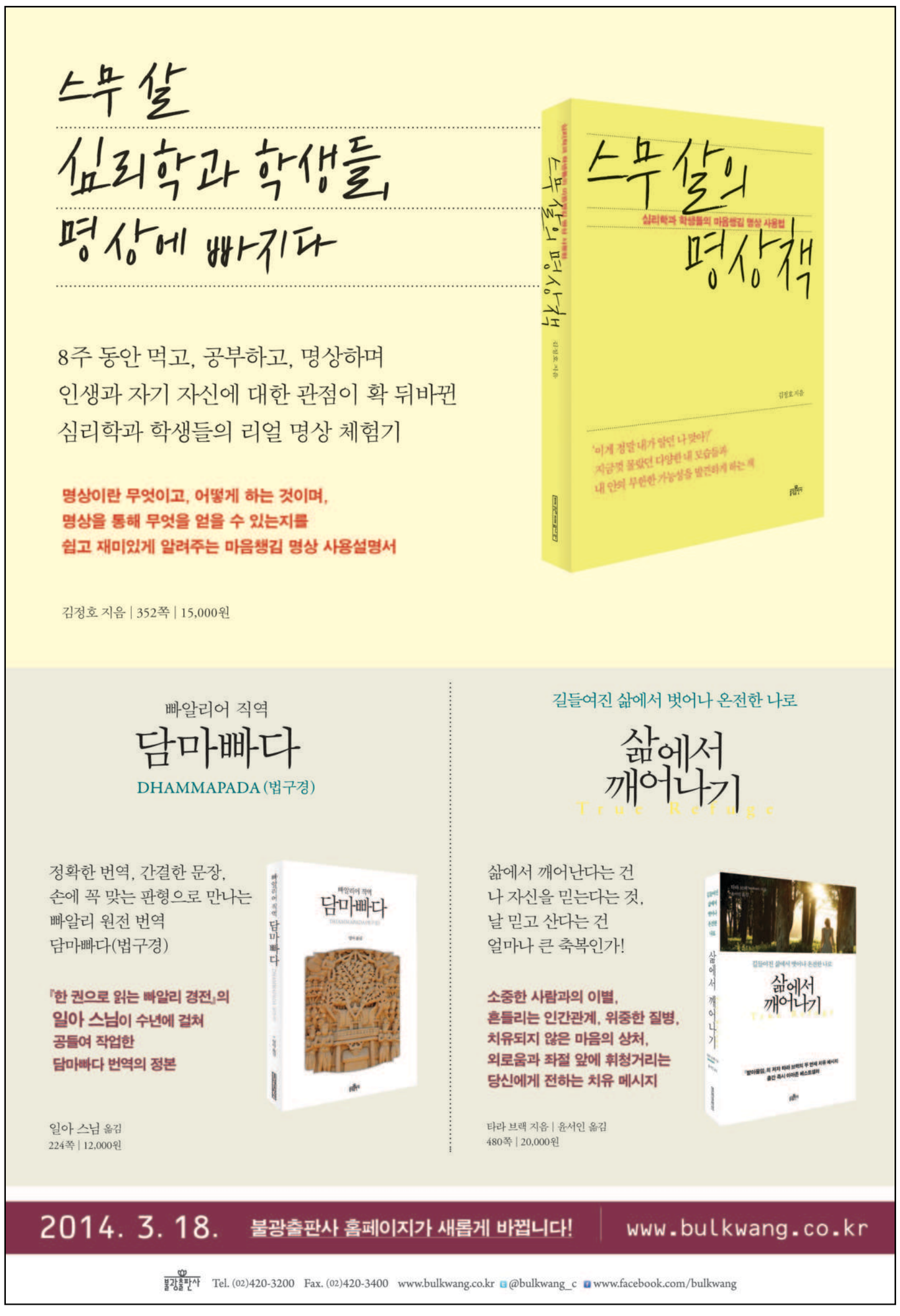
일선 교회와 연결된 군교회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겠지요. 다른 종교보다 못한 간식을 주는데도 일요일이면 법회에 나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을 보면 아주 흐뭇합니다.

군법당에 지원이 는다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빵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음료수 하나가 두 개가 되겠지요. 그만큼 이들이 법당을 찾는 마음도 푸근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군법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땅의 장병불자들과 알게 모르게 군법당을 위해 시주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美 텍사스 롱뷰 매료시킨 '구앙 스님'

유치원서 한자 · 동화 가르치고 성인들에게 '걷기 명상' 지도


미국 텍사스에서 중국인 구앙 스님이 현지인들에게 걷기 명상 등을 통해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롱뷰 공립유치원 계약직 교사로 있는 스님은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중국 옛 우화도 들려준다.

미국 텍사스 주의 도시 롱뷰(Longview)에서 젊은 중국인 스님의 활동에 벽안의 지역 주민의 신심이 움직이고 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 지는 "중국 랴오둥 반도 남단부에 있는 다롄(Dalian)에서 온 구앙(Yin Guang · 29) 스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롱뷰 지역 주민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전하고, "구앙 스님이 롱뷰에서 중국불교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 지는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롱뷰의 지역 주민에게서도 불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미국인을 좋아한다"는 구앙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지난해 가을 스승인 후이(Yi Hui) 스님과 함께 롱뷰를 처음 방문한 구앙 스님은 스승의 출국 뒤에도 홀로 남아 롱뷰 지역의 중국불교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벽안의 지역 주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앙 스님은 롱뷰에 남아 중국불교를 알리겠다는 뜻을 스승 후이 스님에게 간청했다"고 전한 웬디 얀(Wendy Yan) 씨는 "구앙 스님의 서원이 실현되는데 롱뷰의 중국불교 공동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스님은 현재 지역 중국불교 공동체의 법회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 미취학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청소년 이상 성인들에게 '걷기 명상'을 가르치는 등 벽안의 불심을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롱뷰 중국불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웬디 얀 씨는 중국불교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후이 스님을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해 왔다. 후이 스님의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해 12월 롱뷰 외곽에 개원한 지관(Zhi Guan) 명상원에 머물며 일요일마다 중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관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 구앙 스님은 "롱뷰 중국불교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데 작은 힘이라도 더하는 게 스승의 당부였다"며 "그 과정에서 영주권도 획득해, 벽안의 지역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불성을 심어줄 수 있기를 서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 지에 따르면 구앙 스님은 현재 중국불교 공동체의 도움에 힘입어 롱뷰 공립유치원 계약직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한편 중국의 옛 우화를 들려주고 있다.

유치원생 벨라(Bella · 5)의 어머니 베키(Becky Schneibel) 씨는 "벨라가 '노란 승복에 삭발한 구앙 스님'을 무척 따른다"며 "특히 스님이 들려주고 얀 씨가 통역해주는 중국의 옛 우화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마델린(Madeline · 6)의 어머니 팸 라이트(Pam Wright) 씨는 "마델린은 한자를 배우는 것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한자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앙 스님의 열정이 있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앙 스님은 롱뷰 공공도서관 측에 문화 강좌로써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 진행하고 있다"고 〈데일리 뉴스 온라인〉 지는 전했다.

걷기 명상은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공공도서관 강단을 거닐며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걷기 명상 도중에는 보폭도 크지 않고, 철저히 묵언이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 지는 "우리는 걷기 명상을 하는 동안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강변의 숲길을 걷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라는 참여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걷기 명상'은 롱뷰 지역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명상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앙 스님의 활동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등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웬디 얀 씨는 "구앙 스님의 존재는 롱뷰 중국불교 공동체는 물론 지역 사회에 큰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소림사, 백두산에 사찰 건립 검토

스융신 방장, 3월 11일 백두산 관리위원회와 논의


중국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 무술학교 스님들이 무술시범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상업화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 소림사가 백두산 지역에 사찰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길림신문망(吉林新聞網)은 3월 12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방장은 11일 베이징에서 창바이산(長白山 · 백두산의 중국명)관리위원회 셰중옌(謝忠岩) 주임과 만나 백두산에 불교 사찰을 건립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셰 주임은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 현황과 사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스융신에게 "백두산 사찰의 방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융신 방장은 이에 대해 "백두산에 동(東)소림, 북(北)관음에 해당하는 사찰을 건립해 불교성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교의 도리를 선양하고 백두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백두산을 시찰해 사찰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망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북방 소수민족들과 청나라가 여러 차례 백두산 기슭에 사찰을 세웠지만 전쟁으로 모두 파괴됐고 중화민국 초기에 세워진 숭덕사(崇德寺) 역시 문화혁명 기간에 헐렸다"고 전했다.

또 현재 중국의 푸타(普陀), 싼야(三亞), 시짱(西藏)에 각각 동 · 남 · 서 3대 관음기도 도량이 있고 허난성 쑹산(嵩山)과 푸젠성에 북 · 남 소림이 있어 백두산이 북관음, 동소림 사찰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쿵후(功夫)의 발원지인 소림사는 496년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달마(達磨)대사가 530년부터 9년간 좌선해 선종(禪宗) 불교의 기원지가 됐다.

소림사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쿵후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으로 수익사업을 확장, 최근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배우 해롤드 래미스, 美 코미디계 '붓다'

'고스트 버스터즈' '사랑의 블랙홀' 대표작…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의 해롤드 래미스(Harold Ramis, 1944~2014). 2월 24일 별세했다.

지난 2월 24일 별세한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의 해롤드 래미스(Harold Ramis, 1944~2014)가 불교신자였던 것이 알려 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huffingtonpost.com)는 3월 12일(현지시간) "해롤드 래미스는 항상 포켓사이즈의 불교가이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불교적인 사람(Buddhish)이었다"고 전했다.

해롤드 래미스는 생전에 '광란의 골프장(Caddyshack 1980 · 1988)', '괴짜들의 병영일지(Stripes · 1981)', '고스트버스터스(Ghostbusters 1984 · 1989)', '애널라이즈 디스(Analyze This · 1999)', '일곱가지 유혹(Bedazzled · 2000)', '애널라이즈 댓(Analyze That · 2002)' 등 다수의 시나리오를 쓴 감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불교에 매료 됐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허핑턴포스트는 해롤드 래미스를 '코미디의 부처(Buddha of Comedy)'라 평하며 "시카고 태생인 그는 어디든 갈 때마다 포켓사이즈의 불교입문서를 들고 다녔다. 심지어 그는 '5분 불자(5 Minute Buddhist)'를 복사해 가지고 다니며 영화 감독인 주드 아패토우 (Judd Apatow) 등 그의 동료들에게 전해줬다"고 보도했다.

해롤드 래미스가 별세한 2월 말 레드40 엔터테인먼트(Red40 Entertainment)의 토드 쿤스(Todd Kuhns)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불교입문서를 PDF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토드 쿤스가 제작한 불교입문서는 해롤드 래미스가 2009년 샴발라 선에 온라인용으로 만든 버전을 복사한 것이다.

해롤드 래미스는 불교입문서를 제작하면서 "이 입문서는 쉽고 간단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중국 테이크아웃 메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제작했다"고 샴발라 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가 제작한 입문서에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 푸른 대지 위를 걷는 것.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이다"와 같은 틱낫한 스님의 법문도 담겨져 있다.

유대인인 해롤드 래미스는 선 불교에 대해 "불교는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갑옷과 같다"며 "불교는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내가 온전히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트리뷰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런 그의 신심은 아내인 에리카 만 래미스(Erica Mann Ramis)와 장모에게도 전해져, 그들이 불교 명상센터에서 생활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해롤드 래미스의 불교적 사상은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앤디 맥도웰과 빌 머래이가 주연한 영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 1992)이 그렇다. 자기 중심적이고 시니컬한 주인공 필 코너스(빌 머래이)는 자신에게만 시간이 반복되는 마법에 걸려 매일 하루를 반복되며 산다. 끝없이 반복되는 같은 날에 미칠 것 같은 필 코너스는 돈을 훔치고, 여자를 유혹하고, 자살도 해보지만 항상 같은 날 새벽 6시에 눈을 뜬다. 결국 그는 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한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구하고, 기도가 막힌 아저씨를 응급조치 하는 등 매일 같은 행동을 하지만 행위의 주체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느끼고 반복되는 삶에서 의미를 창조한다. 결국 주인공은 영원한 반복을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루의 의미를 완성한 날 영원할 것 같던 하루는 끝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롤드 래미스는 2008년 시카고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불교신자(Buddhist)가 아닌 '불교적인 사람(Buddh-ish)'라고 농담조로 말하면서, 불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불교의 핵심신념은 '믿음에 기대'는 것이지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불교 기본서인 '붓다의 가르침(What the Buddha Taught)'을 읽고 나는 '아 그거 말 되네'라고 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불교는 간단명료하고 믿음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종교라는 점에서 존중할 만하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하지 않고 개종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 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께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10-3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자성주(自性珠)를 아시나요?

화장(火葬)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섞지않고 섭씨 2,3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자성주(자성사리)** 입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자성주(자성사리)로 하여 종교시설 및 납골당 가정에 모실수 있습니다.

자성주 결정체의 특징
자성주로 모시면 잘못된 묘자리 또는 화장된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어 좋은 인연을 이루어줍니다.



NAVER 자 성 주 네이버 검색

납골당 분양 및 지사지국 모집

(주) 보은의 사랑
010-3679-1080,1899-1042

반드시 발복 흥성하는
혈맥생기터

혈맥터는 천년지기이자 보궁이다!

물은 강길따라 흘러 바다를 살리고,
산은 맥따라 혈 맺어 사람을 구하는 도다!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태극상)
- 맥과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백점백혈)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전수

- 흥망성쇠좌우 터 길흉감정
- 명당혈맥터 확보 인연점지
- ▶절암자, 주택산장, 사업장, 묘지, 가족납골수목장 등

명당은 반드시 3-5년 안에 발복되어야 진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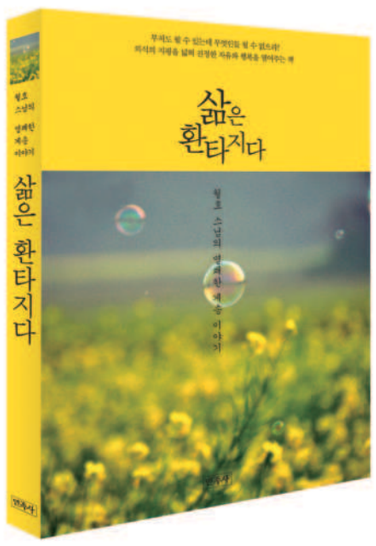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합니다.

지장법사 휴담
010-4600-7399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주는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
행불선원 월호 스님의 화제의 신간

삶은 환타지다

월호 스님의 명쾌한 게송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등 주제별 게송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부터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삶은 환타지다' 강연 및
즉문즉설 향연이 열립니다.
저자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착순 입장

✻모든 궁금한 점을 통쾌 상쾌하게 풀어 줍니다!!

■ 월호 스님 지음 | 신국판 328쪽 | 13,500원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의 50년 수행의 결정체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이 책의 공리空理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파지把持하였던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책자는 50여 년 동안 만들어져 온 셈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묵은 책입니다. (중략) 27개의 공리를 음미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서 타ㅡㄱ 트인 해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초기에는 공리를 관행할 때만 걸림 없는 해탈감을 느끼겠지만 그 관행의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삶 전반이 해탈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지고한 행복으로 이끄는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독자들에게 공空을 깨닫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 용타 지음 | 120쪽 | 10,000원 | 변형4·6판 양장, 작은 책 부록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민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되십니까?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 총재

현오스님 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교육생 수시모집 [최면. 퇴마. 자극요법. 기공]

서울 은평구 |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8-14 | 인터넷상담 가능

010-5656-3915 | 010-9229-3801

빙의 · 신병 · 천도재전문 현오스님 을 찾으세요

연등시공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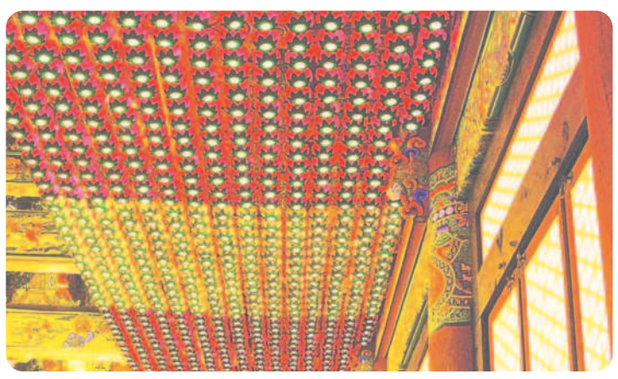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사찰명 인쇄 접수중 마감임박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 화 연 등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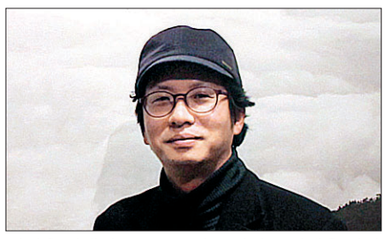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 031)526-2202

전통 한지 위에 펼쳐진 전국 명산과 사찰의 앵글속 풍경

임채욱 사진전 'Inside Mountains'



임채욱 작가의 사진전이 3월 2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서 열린다. 작가는 설악산, 덕유산 등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렌즈에 담아 한지에 인화한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쳤다. 사진은 백담사 초입 설경.



사진은 현대적 소통도구라고 말하는 임채욱 작가

고성 금강산 화암사에서 방학을 보내던 중학교 1학년 소년은 탱화와 보살상, 달마도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림에 재미를 붙인 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선을 했고,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은 매달 용돈을 보내주며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격려했다.

그렇게 청년이 된 그는 서울대 동양화과에 입학해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좀더 현대적 매체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섰다. 그때부터 전국 명산을 돌며 셔터를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설악산을 촬영하던 중 어린시절 스님이 문득 생각나 금강산 화암사에 들렀다. 주지 웅산 스님은 불혹에 접어든 그를 단번에 알아봤고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30년전 그가 그린 그림 한 장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작가 임채욱 씨의 이야기다. 그가 그동안 찍은 사진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3월 2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임채욱 사진전 'Inside Mountains'. 작가는 설악산, 덕유산, 인왕산 등의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카메라로 그린 산수화' 라는 명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진, 설치(입체), 영상 등 66점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는 △구름 – 기운이 생동하다 △설산–뼈대를 드러내다 △능선–숨결이 흐르다 △나무–생명을 품다 △바위–영원을 꿈꾸다 △인왕산–영원을 꿈꾸는 바위 등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은 사진을 한지에 인화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또한 한지를 부조화한 사진 작품은 미술사상 최초라고 할만큼 독특한 형태의 예술을 창조해내고 있다.

"늘 동양화를 그리다 보니 산수화에 관심이 많았고 산에 대한 관심도 많았죠. 그리고 어느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것이 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데 좀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를 부조화한 작품을 선보이는데, '한국산의 내면' 을 '한지' 에 담아내면서 '부조사진' 을 우연히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백담사 초입 눈오는 풍경과 설악산 천불동 계곡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는 자연을 담아내는 과정은 지극히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산으로 가는 것은 자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결국 산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식 내면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죠. 비우고 또 비우면 세상사의 많은 것들이 지워지고 텅빈 여백이 됩니다."

사진, 설치, 영상 등 66점 전시
'구름' '설산' 등 6개 섹션으로 구성
"카메라로 그린 산수화"
2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서



설악산 토왕골 부조 사진

8년 동안 산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온 임채욱 작가. 등산을 하기에도 힘든 지리산을 1박 2일 동안 카메라 장비를 동원해 종주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과 다름이 없었으리라. 울산 바위를 찍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기도 했고 겨울철에는 영하 20도가 되는 산에서 맨손으로 필름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산은 끊임없이 그를 불렀고 그는 산에서 영혼을 발견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산을 찍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산은 자연 환경이기 이전에 영혼의 영역이죠. 저는 작업을 할 때마다 살아있는 산을 만납니다. 제 자신과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매개체가 곧 산이죠."

산은 자연의 절대성 위대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끊임없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존재 아니던가. 역시나 작가는 산에서 그림을 배웠고 산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으며 산에서 자신을 만났다. 그래서 그 산을 담는 작가는 자연의 섭리를 온몸으로 배우고 느끼며 스스로의 내면을 닦고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지 모른다. 10여년 수행 모임을 통해 자신을 닦아 나가는 임채욱 작가. 그는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로 산을 담으며 그 산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비의 승무로 구도의 세계 펼친다

2014,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4월 3일~27일 성균소극장서

2009년 30일간의 승무 이야기, 2010년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2013년 108승무에 이은 대학로 승무 시리즈가 새롭게 펼쳐진다. '2014,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가 봄(4월 3일~27일) 가을(9월 4일~28일)에 나뉘어 총 32회 공연된다.

100일 승무–108 승무로 이어온 전통무용가 이철진 씨의 승무 공연은 '구도의 승무, 그 40분의 신비스러운 완판' 의 세계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오직 승무만을 고집하는 전통춤꾼으로 8년째 승무 장기공연을 소극장에서 지속하고 있는 이철진 씨는 한성준– 한영숙– 이애주–이철진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전승계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승무를 승무답게 해석하는 몇 안되는 불교예술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공연이 펼쳐지는 대학로 성균소극장의 구슬주머니 주식회사는 2013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불교문화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연에는 승무 이외에도 진주 검무, 교방굿거리춤, 살풀이춤, 한량무, 맨손 살풀이, 교방살풀이춤, 소고춤, 창작춤 내안의 너 등 이철진의 춤벗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전석 2만원이며 봄공연은 대학로 성균소극장서 4월 3일~27일 매주 목~토요일 공연된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해탈의 정토세계 뮤지컬 '니르바나' 로

불교음악과 전통 어우러진 무대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3월 22일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가 3월 22일 오후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자명스님(영종불교회관 주지)이 기획, 제작한 '니르바나' 는 모든 번뇌와 집착을 물리친 해탈의 정토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서원이 담긴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 1월 인천과 창원에 이어 서울에서 공연된다.

불교음악과 전통 국악, 그리고 현대적 예술 장르가 결합된 이번 공연의 출연진으로는 찬불 가수 자명 스님과 춤꾼 하유스님, 국창 박윤정 교수, 젊은 국악인 정남훈 예술감독, 시노래 낭송가 김차경, 다례 퍼포먼스 명인 최송자,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자산 50호인 영산재 이수자 효성스님, 소리코리아 예술단원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여기에 뿌리패 무용단과 국악실내악단 '티나' 와의 협연이 더해진다.



뮤지컬 니르바나 공연 장면

이번 공연을 기획, 제작한 자명 스님은 "시간적, 재정적, 육체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 불교문화를 알려보겠다는 의지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며 취지를 설명했다. (010)9343-3001 정혜숙 기자

좋은벗풍경소리 '연등회의 노래 9집' 발표

박애리 · 우순실 등 참여

불기 2558(2014)년 연등회를 맞아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찬불가의 대중화와 보급에 앞장 서오고 있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연등회의 노래 9' 를 내놓았다.

풍경소리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노랫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가사를 담아 더욱 풍성한 내용을 선보였다" 며 "또한 아름다운 노랫말(가사)로 명성 높은 덕신 스님을 비롯해 반영규, 이종만, 정유탁 등도 참여했다" 고 전했다.

이번 앨범에는 국립창극단과 TV 프로그램에서 활동중인 국악인 박애리가 '초파일 아리랑' 과 '하늘 꽃 내리고' 를, 가수 우순실이 '벗이여 오라' 에 참여해 연등회 전통의 멋과 흥겨움을 잘 표현했다.

또한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이 노래에 참여해 신명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연등회의 노래 9집 앨범 표지

이외에 연등회의 노래 9집은 축제의 신바람나는 분위기가 물씬 넘치는 '해피 스마일' , '환희의 노래' , '우린 꽃이다' , '허그' '님이 오신날' 등 총 9곡의 노래와 각 사찰과 단체에서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곡의 연주곡도 수록되어 있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명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3중추돌사고에서 살아나다

저는 현지사 부산분원에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7년 아들 전규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10월 26일 강서구 서부산 삼거리에서 아들이 새벽 출근길에 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들 차의 타이어가 날아가고 뒷문 유리는 다 깨졌고 이미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타박상 하나 없이 멀쩡했고 후유증을 걱정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상도 없고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기적이겠지요. 그리고 아들은 100일 기도에서 발원했던 좋은 인연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저의 기도에 대한 관세음보살님의 명훈가피임을 확신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박문자)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4월 부산분원 정기법회 : 4월 6일(일) 오전 9시

육도윤회와 지옥 극락의 실재, 인간본체인 영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아설에 대한 비판, 인간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미증유의 법문 등 21세기를 열어가는 현지사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 만현 큰스님 동영상 법문(235회 째)을 현지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 됩니다.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매월 음력 15일, 25일 오전 10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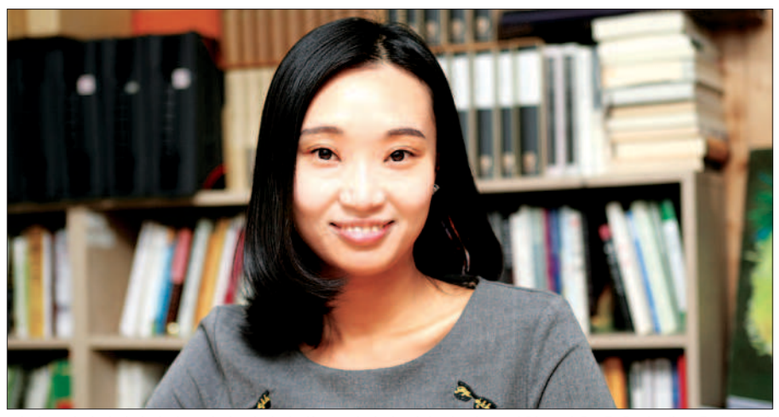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556-5150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문화

“현대화된 단청문양으로 새로운 디자인 선보였어요”

텍스타일 디자이너 강수경 씨



마인드디자인 ‘라이징코리아 디자이너’로 선정된 강수경 씨는 사찰문양을 응용한 제품을 불교박람회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마인드디자인과 손 잡고 스카프 등 신제품 디자인 불교박람회서 호평 받아

전통문화콘텐츠기업 마인드디자인(대표 김민지)은 2014년 불교박람회에서 사찰의 단청문양을 활용한 숄더백, 스카프, 카드지갑, 파우치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40~50대 여성들을 타켓으로 한 이 제품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품 개발을 위해 1년반 준비 기간을 거치는 동안 마인드디자인은 한국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만들자는 취지로 ‘라이징코리아 디자이너’를 선정해 제품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 디자이너로 선정된 주인공이 바로 텍스타일 디자이너 강수경 씨(34)다.

“단청에서 사용된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했어요. 연화문 금문 연환문 등의 문양을 응용하되 현대화되고 세련된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단청의 문양은 그대로 가져 오되 색상의 변화를 줬어요. 녹색을 블랙으로 변환한다든지, 제가 드로잉한 작품에 단청문양을 응용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했죠. 반응이 좋았어요. 신선한 디자인이라는 평도 들었죠. 박람회에서 준비한 제품이 완판 되고 추가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으니 일단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대학에서 섬유공예를 전공한 강수경 씨는 베이직하우스, 코데스컴바인 등 국내 유명 의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하지만 꽉 짜여진 조직생활보다는 자신만의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표를 썼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직물디자인과에 입학해 새롭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마인드디자인 ‘라이징코리아 디자이너’로 선정되면서 사찰 문양에서 뽑은 디자인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마인드디자인은 앞으로 디자인을 라인별로 특화해 가는 게 목적이에요. 마인드디자인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제가 맡은 단청문양을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 제 디자인을 상품화하는데에는 마인드다자인 상품기획총괄을 맡은 배보람 팀장의 노고가 컸어요. 불교 디자인과 전통디자인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마인드디자인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 세계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디자인은 앞으로 한옥 등 다양한 전통 문양들을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 상용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서양식 디자인을 전공한 강 씨가 전통문양을 디자인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은 그녀의 성장배경이 큰 몫을 차지한다. 강 씨는 재가수행자이자 한국화가인 강행원 씨의 딸이다. 또 50여년 장좌불와 수행과 일종식을 지켜온 故청화 스님은 오촌당숙이 된다.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늘 아버지를 따라 화실에 놀러갔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은 무조건 화가였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때 화실에서 보았던 화려한 색채들이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었죠. 지금도 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색상이에요. 화려한 색채를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을 일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화 스님이 주석하던 전남곡성 태안사는 강 씨의 어렸을 적 추억이 묻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수경(秀京)이라는 이름과 우선(宇宣)이라는 법명도 청화 스님이 지어주었다고. “어렸을 때 태안사에 부모님들이랑 자주 들렀어요. 스님이 무릎에 앉혀 놓고 용돈을 주셨던 기억이 있죠. 지금 스님은 입적하셨지만 스님의 책을 많이 읽어요. 특히 스님의 〈정통선의 향훈〉은 제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죠. 큰스님께서 지어주신 법명인 우선은 하늘에서 뜻을 잘 펼치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제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강 씨는 현재 ‘포카 앤 넛’이라는 다지인 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와 함께 디자인 회사를 창업해 디자인 작품과 상품을 동시에 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마인드디자인과 함께 전통문양을 소재로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도 매진할 거구요.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영108인에 가입해 앞으로 불교계와도 꾸준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불교박람회에서 판매된 단청문양 디자인 제품들.



드로잉 작품에 단청의 금문을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절경 속에 간직된 아득한 시간의 흔적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⑫ 이덕무와 승가사





이덕무 등 조선의 선비들은 승가사를 자주 방문했다. 삼각산 승가사 승가대사상.

승가대사의 행적 담긴 고찰

승가사(僧伽寺)는 삼각산 비봉 아래 위치하는 고찰이다. 〈동문선〉권 64에 전하는 이예(李預)의 ‘삼각산중수승가굴기(三角山重修僧伽 記)’를 통해 그 창건 연원을 보자.

최치원(崔致遠) 공의 문집을 보면, “옛날 신라 시대에서 낭적사(狼迹寺)의 중 수태(秀台)가 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익히 듣고, 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좋은 장소를 골라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을 조각하여 얼굴을 묘사하니 대사의 얼굴이 더욱 우리나라에 비치었다. 국가에 천지의 재변이 있을 때나 수재나 한재 등 모든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를 올려 이를 물리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대사란 승가대사(僧伽大師 627~708)를 말한다. 기문을 쓴 고려의 문신 이예는 이 기문의 앞부분에 승가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승가대사는 서역의 승려인데 나이 30에 당나라로 와서 신이한 법력으로 중생교화를 하였고 왕실마저 그에게 깊이 귀의하여 귀하게 우러렀다는 내용이다.

관음의 화신으로 불렸던 당나라 고승 승가대사의 수행력과 중생구제 원력에 감화된 신라의 수태대사가 삼각산 남쪽에 절을 짓고 승가대사의 존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것이 승가사 창건의 주요 내력인 것이다. 승가사 승가굴(약사전)에 모셔진 승가대사상은 보물 1000호로 지정되어 있다. 승가사는 그 역사만큼이나 풍경도 장엄하다. 뒤로 우뚝한 봉우리들이 사람의 기상을 치솟게 해 주고 앞으로 광활하게 트인 서울 풍경이 후련하다. 조선의 선비들도 한양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승가사를 자주 방문했다.

차사문유숙(此寺聞惟夙)
제군회역량(諸君會亦良)
수제평부초(樹齊平俯杪)
성대근반광(星大近攀光)
굴불무단소(窟佛無端笑)
봉비만고창(峯碑萬古蒼)
동소서자념(洞簫徐子捻)
야반숙생량(夜半 生凉)

이 절을 들은 지 이미 오래라
제군들의 모임이 역시 훌륭하군.
나무가 가지런해 평평히
가지를 내려다보고
별이 커서 가까이 빛을 휘어잡겠네.
굴속의 부처는 무단히 웃는데
봉우리의 비석은 만고에 푸르구나.
서자의 퉁소 소리 듣고 나서
한밤중에 홀연히 서늘해지네.
-이덕무 ‘승가사’ 〈영처시고(嬰處詩稿二)2〉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시다. 이덕무는 박학다식했으나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크게 등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의 북학파 실학자들과 교유했고, 기균(紀均) · 이조원(李調元) · 이정원(李鼎元) · 육비(陸飛) · 엄성(嚴誠) · 반정균(潘庭筠) 등 청나라 석학들과도 교류하였다.

시의 내용에 따르면 화자(話者)는 혼자 승가사를 방문 한 것이 아니다. 여럿이 흥겨운 마음으로 수려한 경치 속의 절,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명승을 방문한 것이다. 잠시 다녀 온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유숙하며 승가사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수련에서는 유서 깊은 절은 벗들과 함께 찾아 온 정황을 소개하고 함련에서 절의 풍경을 소개한다. 수목이 울창하여 나뭇가지가 서로 크기를 다투고 밤에는 별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며 더욱 밝은 빛을 발한다니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 속의 승가사 풍경이 그려지지 않을 수 없다.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5살의 나이에 세종에게 불려가 ‘삼각산’을 주제로 시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다. 그 어린 신동은 “삼각산 높은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니/ 그 위에 올라 북두성 견우성도 잡을 수 있겠네/ 바위굴은 비와 구름만 만들 것이 아니라/ 왕조를 영원히 평안토록 할지어다”라는 절구를 지은 바 있다.

세종은 왕비 소헌왕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승가사와 흥천사 진관사에서 불공을 하게 했고, 비의 병이 낫자 보은으로 절의 중수를 도왔다. 이 때 승가사의 승가굴이 약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아무튼, 시는 경련으로 접어들어 굴속 부처(승가대사상)의 미소와 비봉의 비석(진흥왕순수비)이 상징하는 무량한 시간의 이미지로 더욱 아득하게 확장된다. 절경 속에서 아득한 시간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 시의 ‘맛’이라 하겠다. 그 무량한 시간을 느끼는 서정은 밤중의 피리소리로 인해 더욱 처연해 지는 것이다. 서정과 서사가 조화를 이루며 기승전결이 잘 짜인 시다.

‘노파와 같은 모양’의 승가대사상

이덕무가 이 시를 지은 내력을 알게 하는 글 한 토막이 그의 문집에 전한다. “동지(同志) 5~6인과 함께 삼각산(三角山) 서쪽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닌 일이 있었네. 절 북쪽에 동굴(洞窟)이 있고 그 가운데는 가부좌(跏趺坐)를 하고 있는 부처가 하나 있는데, 파리하여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데다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마치 노파(老婆)의 모양 같더군. 그 뒤쪽 석벽(石壁)에는 큰 연꽃이 새겨져 있으나 다 떨어져나가고 겨우 글자나 알아볼 수 있었네. 거기에 ‘태평 사년 갑자(太平四年甲子)’라고 씌어 있었는데, 이는 아마 고려 현종(顯宗) 때인 거란의 성종(聖宗) 태평(太平) 4년으로, 금년(을유)까지를 계산해보면 8백 2년이 되네.” 이덕무가 족질(族姪)인 복초(復初) 이광석(李光錫)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아정유고(雅亭遺稿)권7〉에 전한다.

승가사에 대한 기억을 전하는 글인데, 실학자다운 관찰력과 고증의 태도가 드러나는 글이다. 승가대사상을 ‘노파의 모양’으로 비유한 것도 재미있다. 편지글에 적은 승가사의 인상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의 다른 문집인 〈앙엽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5 ~ 3/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3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불광출판사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마을
7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8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9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10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자연화된, '철학' 으로서의 불교



보살의 뇌 -자연화된 불교
오웬 플래나간 지음
박병기, 이슬비 옮김
씨아이알 펴냄
2만5천원

"'자연화된 불교' 라고 이름붙인 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마찬가지로 불교도 포괄적인 철학이다."

2011년에 초판이 나온 〈보살의 뇌-자연화된 불교〉는 미국 듀크대학의 철학교수 오웬 플래나간이 심리철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 저서이다. 지금까지 많은 불교 및 불교철학 입문서들이 출간됐지만, 서양의 주류 철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불교철학 입문서가 아니라 불교철학으로 분석철학의 문제들을 서양 철학계가 인정한 방식으로 논의한 몇 안 되는 저서 중 하나이다. 박병기, 이슬비 번역으로 국내에서 출판됐다. 플래나간은 분석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논제와 주장들, 한국의 불자들 대부분에게 익숙한 불교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1부에서 비교신경철학을 논의하고, 2부에서는 자연철학으로서의 불교를 논하고 있다.

책은 불교가 존재론과 인식론, 가치론의 영역에서 훌륭한 철학이자 윤리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불교도가 되지 않고도 불교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즉 윤리학에서 다뤄야 할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를 위해 저자는 '자연화된 불교' 를 이야기한다.

'자연화된 불교' 란 불교가 윤회나 업 같은 자연주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요소들을 제외하고도 가능한 철학 및 윤리의 체계라는 것이다. 윤회나 환생, 서방정토 같은 특별한 종교적 믿음이 필요한 교리를 유보시킨 것이다. 즉 그러한 초현실적인 교리 없이도 불교는 존재론과 인식론, 가치론의 영역에서 훌륭한 철학이자 윤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자연화된 불교' 는 불교윤리학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하게 보여준다. 모든 종파의 불교가 인정할 수 있는 초기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현대 인식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연주의' 를 통해 상당한 체계성과 막강한 경험과학적 근거를 가진 불교이론으로 불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믿음에 대한 정당화의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불교윤리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플래나간의 '자연화된 불교' 가 갖는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화된 불교는 특정한 종교로서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불교적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불교 자체에 근거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연화된 불교는 자연주의를 통해 기존 불교철학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보편윤리로서 불교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천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연화된 불교는 자연화된 윤리학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 대한 훌륭한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넷째, 자연화된 불교는 명상을 단순한 정신훈련을 위한 기술이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교철학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명상에 대한 철학적, 자연주의적 기반을 제시해주고 있다.

불자 아니면서 '불교적 행복' 가능
'자연화된 불교' 가 해답
윤회·업 등 초현실적 교리없이도
불교는 훌륭한 철학이자 윤리학

제1부 '신경철학에 대한 에세이' 에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심리철학 연구가들에게는 비상식적일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다. 플래나간의 결론은 보살의 뇌를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식적인 마음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넘어서는 '가장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 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제1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우주의 자연적 일부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오직 여기에 존재하는 이 자연적 세상 속에 있는 체화된 우리의 신경 체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여 불교나 어떤 다른 영적 전통으로부터 황홀경, 혼란스러움 또는 신비주의의와 같은 것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제2부에서 다룬 것은 '자연철학으로서의 불교' 로, 저자는 "덕(德)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행복의 원인이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 주장을 위해서 플래나간은 분석철학자로서 서양의 여러 윤리학 이론과 불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설명한다.

21세기 초반 한국의 상황 속에서 불교는 주로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의 극복은 우리 불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삶의 의미 모색이라는 정신적 영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출발점은 불교윤리의 회복에서 모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윤리는 다시 불교의 종교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한 종교적 신앙보다는 삶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윤리적 신념에 근거해 모색되어야만 한다. 관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윤리적 신념에 근거해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청의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화된 불교' 라는 플래나간의 새로운 시도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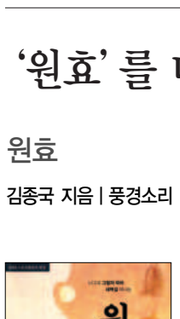
플래나간은 기본적으로 세계시민적 관점과 비교 신경철학의 관점에서 불교의 핵심 교리를 분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의 세계시민적 관점은 동양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과 서양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대비시키는 데서 잘 드러나고, 비교신경철학의 관점은 불교적인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보살의 뇌가 일반인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역자는 말한다. "이러한 그의 시도들은 전통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의 불교 인식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잠언 160편속에 담긴 불교적 가르침

그대 속눈썹에 걸린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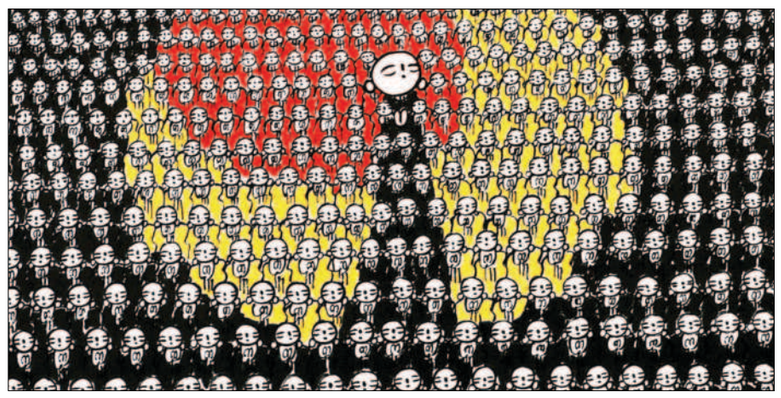
허허당 글 그림 | 북클라우드 펴냄 | 1만3800원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면 세상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다. 나를 버리면 일체만물이 내 가된다."(나를 버리면중에서)

30년째 선화를 그리며 글을 쓰고 있는 허허당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홀로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 왔다. "누군가 깨달았을 때는 빛이 흘러나가게 마련이다, 꽃향이 번지듯이. 세상 사람들이 덩달아 밝아지고 깨달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허허당 스님. 그래서일까.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수만 트위터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전작인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에서는 세상 모든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었고,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에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갖고 있다며 응원을 전했다. 이번 새 책에서 허허당 스님은 위로와 응원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통쾌한 답변을 들려준다.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라고 허허당 스님께 물으면 답변은 분명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노는 일 외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어느 인터뷰서 스님이 밝힌 인생의 정수다. "다섯 살 땐 내가 울면 하늘이 울고, 내가 웃으면 하늘도 삼라만상도 따라 웃더라고." 천진한 다섯 살 아이처럼 세상 모든 것에 존재 자체가 반응하며 즐겁게 놀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님조차도 50세의 나이를 넘기고서야 다섯 살 때 품던 동심을 되찾았다고 고백한다. 고단한 인생서도 아이의 동심을 기억하며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세상은 놀이터처럼 신명 나는 즐거움을 건넬 것이라는 게 바로 스님의 생각이다.


허허당 作. 화엄법계도-범아일여

이 책은 한마디로 허허당 스님이 들려주는 짧은 글 속 긴 울림을 남기는 통쾌한 지혜가 가득한 책이다. 가령 '최고의 행복' 이란 제목이 달려 있는 글을 보면 "그대가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해도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다면 그보다 큰 불행이 없을 것이다. 나누어라, 그것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맛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전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삶의 정수를 오롯이 담은 1장 '인생은 노는 것이다' 을 비롯해 자신의 내면과 조우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2장 '끝에서 끝을 보라' ,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3장 '쉬어가라 세상 그리 바쁘지 않다' , 자연에서 길어 올린 깨우침을 전하는 4장 '아름다운 것들이 더욱더 아름답다' 등이다. 이와 함께 스님의 그림 70여 점도 실려 있다. 이미 유럽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한 내공이 돋보인다. 글처럼 마음을 울리는 선기가 전해지는 그림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주는 보너스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 를 다시 읽는다

원효
김종국 지음 | 풍경소리 펴냄 | 2만원



요석공주, 설총, 화쟁, 소성거사, 일체유심조, 대승기신론소…. 신라시대,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수많은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된 원효(617~686) 스님의 이야기다.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스님의 이름과 발자국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책은 경산시립박물관장을 역임한 김종국 박사가 원효 스님에 대한 기록과 구전을 모은 원효 설화 모음집이다.

이번 책은 실제로 원효 스님이 체험한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설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 강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 책은 전국에 전해져 오는 원효 스님의 설화를 집대성하면서 스님이 남긴 위대한 사상과 업적, 그리고 학문적 입장을 숨김없이 표현하려 했다.

저자는 "통일신라 직전 신라의 불교가 소승과 대승화 과정을 겪으면서 스님에 대한 기존 세력들의 편향적 입장이 스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흐리게 한 바 없지 않지만, 후대 〈송고승전〉에 나타난 스님에 대한 기록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며 이번 책이 스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님의 사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에는 〈송고승전〉, 〈삼국유사〉, 〈임간록〉 등 내용들을 비교한 글도 함께 싣고 있다. 한편 저자는 초판본 500권을 대부분 전국의 스님들께 법보시했으며, 이번 출간된 증보판은 초판 (307쪽)에 50여 쪽을 덧붙여, 총 80여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박재완 기자



현대적으로 풀이한 간화선 참구 공부법



선가귀감
휴정 지음
정우 강설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선가귀감〉은 글자 그대로 간화선을 참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길을 일러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가 1564년 금강산 백화암에서 찬술했다.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던 당시에 서산대사는 50여 불교 경전과 어록서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뽑아 배치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주해와 송, 평을 달아 말 그대로 선가의 '귀감' 이 되고자 했다. 정우 스님이 강설한 신간 〈선가귀감〉은 서산대사의 조선불교와 지금의 한국불교가 시대적 상황은 다를지라도 깨달음의 길을 방황하는 것은 매우 상통하고 있는 즈음, 수행자들에게 반가운 경책이 된다. 선(禪)을 중심으로 간경, 염불, 주력 등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 담겨 있고, 불교 수행의 근본인 계, 정, 혜에 대해 설하고 있는 이 책은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지 수행법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다. 이것이 간행된 지 450여 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해설서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정우 스님은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어 온 불서의 고전 〈선가귀감〉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풀이하였다.

정우 스님(구미 금강사 주지)의 은사는 철우태주(1895~ 1979) 선사로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출가하여 평생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법향을 전했다. 근세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제자인 수월 스님과 혜월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은 철우 스님은 불과 27세의 나이에 통영 용화사 조실로 추대될 만큼 수행력이 뛰어났다. 정우 스님은 철우태주 선사의 법을 이어, 은사 스님이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해설했다.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선사는 임진왜란을 맞은 선조의 요청으로 전국 승려들을 결집해 활약한 승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산대사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의 암흑기였음에도 문정왕후와 허응당 보우선사의 노력으로 잠시 불교 부흥의 조짐이 보이던 때에 부활된 승과를 통해 등장한다. 이후 선교양종을 아우르는 판사직을 맡아 불교중흥의 노력을 하지만 시대적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수많은 사찰들은 폐사되고 승려들의 지위는 천민으로 떨어졌다. 속세로 돌아가는 승려도 많았고, 유능한 지식인의 출가는 잦아들었다. 불교수행의 고전이자 최고의 깨달음 입문서 〈선가귀감〉은 이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서 탄생하였다. 불교탄압의 시대적 상황에 길을 잃은 후학들을 위해 찬술한 〈선가귀감〉은 오늘날까지 시대를 뛰어넘는 깨달음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수행에 몰두하며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던 서산대사가 제시한 새로운 불교의 길이었다.

휴정선사가 1564년 금강산서 찬술
50여 경전과 어록서 가려 뽑아
'활구' 들어 철저히 의심하길 당부

〈선가귀감〉은 언해본이 판각되었고, 여러 사찰에서 다양한 판본이 간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수행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읽히고 있다.

서산대사는 이 책에서 참선수행과 교학의 중요성, 염불, 간경, 주력 수행의 필요성 등을 모두 아울러 짚어 주며 여러 근기(根機)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일러 주고 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敎是佛語)라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돈오와 점수의 논쟁과 더불어 선과 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 둘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산대사는 선으로 가는 길에서 간화선 수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이때 사구(死句)가 아니라 펄펄 살아 숨 쉬는 활구(活句)를 들어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핵심사상은 '무위진인' 의 삶

임제록 강설

덕산 스님 역해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5천원



'선어록의 백미' 로 일컫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 임제의현(?~867)선사가 임제원에 주석하면서 가르칠 때의 독특한 가풍(고함 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준다. 책의 주인공인 임제 스님은 우리나라 조계종의 선맥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故 서옹 스님은 평생 이 어록을 종지로 삼아 '참사람(無位眞人)운동' 을 펼쳤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가진 불성을 상징하는 '무위진인' 이란 말은 위아래가 따로 없는 평등한 진리차원에서 마음을 쓰는 참사람으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임제스님 역시 이 '하나의 마음자리' 를 깨달아 여기에 마음을 두고 평생동안 중생을 교화하시며 사셨다. 결국 우리도 임제 스님처럼 일심을 깨달아 무위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임제록〉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덕산 스님(청주 혜은사 주지)이 〈임제록〉을 강의하게 된 목적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였다. 저자가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선 것은 임제록 법문을 통해 불자들과 보리심을 나누고자 한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알던 불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괴로움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서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아미타불 실체 집중 고찰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3천원



불교수행중 가장 근본은 참선과 염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의 정통 수행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타력에 의지하는 염불은 대승불교 성립 이래 널리 성행했으며, 실제적인 수행문으로 두루 인정돼왔다. 그렇다면 왜 정토염불이 현실적으로 요긴한 수행문으로 성행하게 됐을까? 염불문이 이행문이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는 중생의 근기가 하열해 자력수행으로는 깨달음을 증득키 어려우므로, 현실에 상응하는 쉽고도 빠른 타력수행이 요구된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중요한 불교수행중 하나인 정토염불에 대해 방대한 정토 경전과 논서, 그리고 역대 논사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정토사상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과정, 정토경전의 성립과 그 내용분석, 대표적 정토로 인정되는 서방극락과 아미타불의 실상에 대해 집중 고찰한다. 또한 인도의 용수에서 비롯돼 중국서 꽃피운 정토에 대한 다양한 교상판석과 정토교학의 계보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토사상의 핵심이라할 아미타불의 본원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그리고 염불의 종류와 방법, 정토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불신론과 불토론 등에 대한 여러 논사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윤회 주체는 지금의 나일까?

윤회의 본질

크리스토퍼 M.베이치 지음 | 김우종 옮김 | 정신세계사 펴냄 | 1만5천원



현대의 연구가들이 조사한 전생의 기억은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자발적인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환기된 기억이다. 전자는 대개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즈음에 예기치 않게 떠오르고, 후자는 소위 '의식을 확장시키는' 정신요법들에 의해 촉발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고, 실제로도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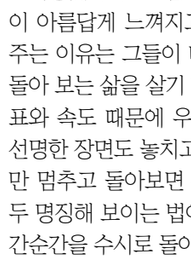
일부 연구가들은 전생퇴행의 수준을 넘어, 죽음과 환생 사이에 겪은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최면기법을 발달시켜왔다. 이들이 수집한 수백 건의 경험담은 티베트 불교경전인 〈사자의 서〉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 수준, 성향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지만, 현대의 연구결과와 고대의 가르침을 통합하면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전생의 세부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음으로써 심리적 자유를 얻는 치유 효과는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이 좁아지기 십상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윤회에 관한 온갖 담론들을 한데 모아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정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윤회론은 생과 생 사이의 상호작용, 즉 수직적 차원서 우주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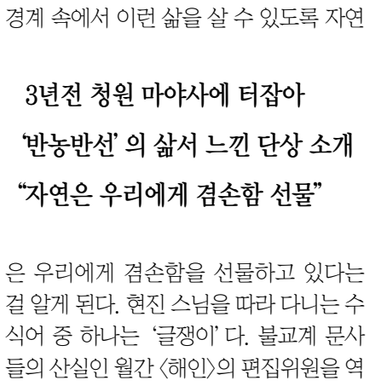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삶과 수행은 간절할때만이 목적하는 바에 다다를 수 있어"

산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

현진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4천원





3년 전 마야사에 자리 잡은 현진 스님이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겸손해지는 꽃과 나무, 계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님은 매 순간 우리는 '간절하게 살고 있는가' 를 물으며 삶은 수행이 간절해질 때, 수행이 목적하는 바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선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스님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철마다 피는 꽃과 나무를 따라 산길을 걷는 듯하다. 꽤 오랜 시간 때가 되면 복닥대던 도심 포교당을 홀연히 떠난 스님은 청원 불모산 자락의 작은 암자로 옮겨와 반농반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스님에게 봄의 매화나무, 여름의 느티나무, 가을의 비비추, 그리고 겨울의 설화는 삶이고 수행이고를 반추하게 해 주는 좋은 소재들이다. 그 속에서 스님은 "행복의 꼬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빠른 속도는 재미가 없다" 같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들을 농익은 글솜씨로 사람들에게 두런두런 이야기 하듯 꺼내놓는다.

이렇듯 현진 스님과 같은 수행자의 글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매일 매일 자신을 되돌아 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일상의 목표와 속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선명한 장면도 놓치고 살 때가 많다. 하지만 멈추고 돌아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명징해 보이는 법이다. 현진 스님이 순간순간을 수시로 돌아보며 반추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내놓은 이 책의 이야기는 바로 느슨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다.

"나뭇가지의 눈을 털어 주면서 가진 것이 적으면 근심도 줄어든다는 걸 배웠다. 가지가 적거나 잎을 지니지 않은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피해 갔지만, 가지가 큰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긴 가지가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지만, 겨울에는 그 길이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떨 땐 재주 없는 단순한 삶이 세상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그 욕심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몸이 상하거나 재산을 잃기 쉽다." 이 대목은 스님이 폭설 앞에서 쓴 단상이다.

이런 단순한 삶의 추구는 결국 소박한 생활로 이어진다. 하지만 스님은 단순하고 소박하기만 하다면 그건 은거의 삶이지 불가의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작 스님이 묻고 있는 건 매 순간 우리는 '간절하게 살고 있는가' 이다. 삶이 수행이 간절해질 때 그 삶이 추구하는바, 수행이 목적하는바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스님은 이 책에서 삶의 간절함을 이렇게 말한다. "하루하루 얼마나 간절한 삶을 사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간절함은 그 삶에 대한 소중함을 부여한다. 어제 죽은 이에게는 오늘 하루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라고. 스님은 이런 간절함이 진지하고 철저한 삶의 배경이 된다고도 말한다. 물론 느슨하고, 단순하고, 소소하면서 간절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스님이 발을 옮기는 산길을 따라 꽃과 나무를 보다 보면 그 경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연

3년전 청원 마야사에 터잡아
'반농반선' 의 삶서 느낀 단상 소개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함 선물"

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선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현진 스님을 따라 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는 '글쟁이' 다. 불교계 문사들의 산실인 월간 〈해인〉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스님은 그동안 〈두 번째 출가〉(1997년)를 시작으로 〈삭발하는 날〉(2001년), 〈산문, 치인리 십번지〉(2003년), 〈오늘이 전부다〉(2009년), 〈번뇌를 껴안아라〉(2013년) 등 여덟 권의 책을 펴내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동안 스님의 글쓰기 소재는 주로 '출가 수행' 이나 '동서양의 경구' 들이었다. 하지만 '청주의 조계사' 라 불리는 관음사를 떠나 산 아래 작은 암자에 주석하는 스님은 이제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겸손해지는 꽃과 나무 그리고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선방에 앉아 화두를 들거나 포교를 위해 저자거리로 나선 스님의 모습을 기대한 것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한여름 마당의 풀과 씨름하는 것이 수행' 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글 속에는 또 다른 수행의 연륜이 숨어 있다. 그래서 스님의 글은 행간을 넘어갈 때마다 긴 여운을 남긴다.

김주일 기자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어떻게 살 것인가’ 화두 던진 인간학의 교과서

불교로 읽는 古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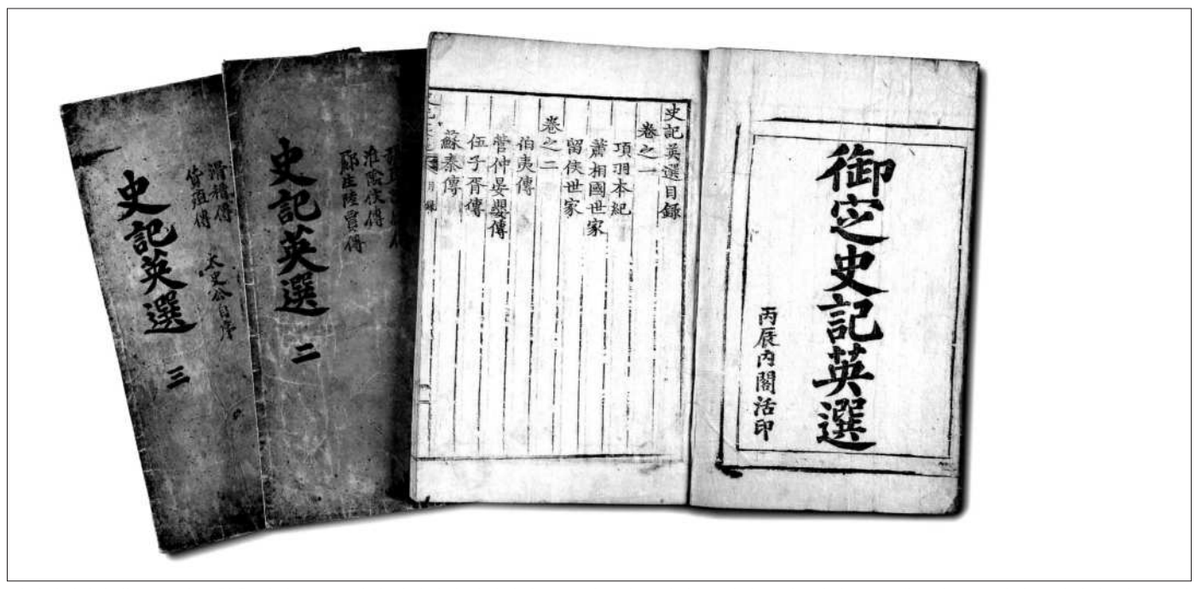
사마천의 〈사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중국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의 진영



사마천의 〈사기〉는 그가 궁형을 당하는 고초까지 겪어가며 완성시킨 중국 최초의 통사다. 그러다 보니 〈사기〉는 오랫동안 두고 읽힌 고전이다. 정조는 친히 즐겨읽는 구절을 편집해 〈사기영선〉을 내놓기도 했다.

역사는 어떤 일이나 현상(사물)이 진행되거나 존재해 온 추이 또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인류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혹은 기록이기도 하다. 때문에 역사는 역사적 흔적에 대한 역사가의 기록과 그것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사관에 의해 기술된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신화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가의 역사 서술에 의해서였다. 때문에 하늘은 아무에게나 역사를 기술하게 하지 않았다. 오직 역사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기술할 수 있는 이에게 역사 기술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인간학의 보물창고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역사(Histories apodexis)〉라는 책을 남겼다. 이와 달리 동양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마천은 〈사기(130권)〉라는 역사서를 남겼다. 역사를 담당하는 태사령(太史令)이었던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으로부터 ‘역사를 집필하라’ 는 유언을 들었다(기원전 110년).

2년 뒤 사마천은 한무제(漢武帝)에 의해 태사령이 되어 천제(天帝)에 제사를 드리는 봉선(封禪)에 참여하였다. 그는 나라의 장서가 있는 석실금궤(石室金櫃)에서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여 필생의 역작이자 ‘인간학의 보물창고’ 인 〈사기〉(기원전 104~93)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사기〉라는 명칭은 사마천의 사후에 〈태사공서(太史公書)〉 혹은 〈태사공기(太史公記)〉로 불렸는데 이중 〈태사공기〉의 약칭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전한(前漢)의 명장 이광(李廣)의 손자 이릉(李陵)이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싸우다가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하지 못해 투항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마천은 홀로 무제 앞에 나아가 이릉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그는 1) 법에 따른 주살과 2) 돈 50만전을 내고 죽음을 면할 수도 없자 결국 3) 궁형을 선택하였다. 남성을 거세당하는 치욕을 견뎌내며 사마천은 〈사기〉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한무제의 곁에 있게 되었다(기원전 93년). 약 15년 여 년동안 그는 전설의 황제(皇帝)시대에서 한무제에 이르는 2000년의 역사를 통사체로 서술하였다.

사마천은 투철한 역사관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치밀한 구성과 정확한 기술을 통해 흥미롭게 전개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는 중국의 정신적 유산이자 중국 역사의 전형으로 평가받아 중국 역사의 집대성이라 할 24사(史)의 머리에 자리하고 있다.

오제(五帝)로부터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천하에 권력을 행하던 왕조나 제왕들의 사적을 인물별로 연대순으로 엮어 기록한 ‘본기(本紀)’ 12편, 간단한 서문과 압축적인 문장으로 해당 인물과 사건을 기록한 ‘표(表)’ 10편, 제도와 과학 및 민생과 치수 등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이론적 역사적으로 기록한 ‘서(書)’ 8편, 황제 다음의 2인자였던 봉건 제후들의 이야기를 다룬 ‘세가(世家)’ 30편, 왕과 제후들을 위해 일했던 인물들의 사적을 기록한 ‘열전(列傳) 70편’ 등 총 130편, 52만 6천 5백자로 되어 있다.

역사기술의 전범

사마천 이전에도 역사서는 서술되었다. 하지만 기전체의 통사인 〈사기〉 이전의 중국 사서는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1975년에 발견된 〈운몽진간(雲夢秦簡)〉에 포함된 연표에 의하면 〈사기〉 이전에도 연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역사서 즉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의 다섯 형식으로 편집된 역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마천이 수립한 역사 기술의 전범이자 역사서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를 모방하면서도 그 체재를 비판한 반고(班固)의 〈한서(漢書)〉나 그를 지지하는 당나라 역사가 유지기(劉知幾)의 〈사통(史通)〉 조차도 사마천의 체재에 의거하여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의 ‘본기’ 를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인 황제(黃帝), 전욱(?頊, 高陽), 제곡(帝?, 高辛), 요(堯), 순(舜)의 본기를 담아 ‘오제본기’ 를 기술하였다. 그가 중국 역사의 시원을 이들로까지 끌어올려고 했던 것은 신화의 역사화 시도였다. 또 사마천은 항우를 ‘본기’ 에 편입하였으며 그 순서도 ‘고조본기’ 앞에 둠으로써 항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린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무제 사후 유약하고 무능하며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던 혜제(惠帝)를 밀어내고 실질적으로 천하를 통치했던 여(치)태후를 ‘본기’ 에 수록했다. 이것은 사마천이 한 제국 성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의 현실적 역사관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고는 〈사기〉의 체재를 원용하여 90년 뒤에 〈한서〉를 지으면서 〈사기〉의 통사체를 단대사체(斷代史體)로 바꾸었다. 그는 사마천의 파격적이고 임의적인 체재의 설정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자신의 방식에 맞추어 〈한서〉를 서술하였다. 반고는 전통적 역사서술 방식대로 개인적 감정을 철저히 밀쳐내고 객관적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반고는 〈한서〉에서 ‘고조본기’ 를 서두에 두고 ‘혜제본기’ 를 복원시키며 ‘항우본기’ 와 ‘여태후본기’ 를 배제하였다.

사마천, 투철한 역사관으로
인간을 탐구한 역작 ‘사기’
중국 24史 중 최고로 평가

사기의 가장 큰 비중 ‘열전’
‘신구의 삼업 바르게’ 교훈 줘
역대 고승전 기술의 모본

또 한나라를 배반한 제후 왕인 오왕 비(?), 회남왕 유장(劉長)과 유안(劉晏), 형산왕 유사(劉賜) 등을 ‘열전’ 에서 배제하였고, 한나라 초기 공신들에 불과한 소하(蕭何), 조삼(曹參), 장량(張良), 진평(陳平), 주발(周勃) 등을 ‘세가’ 에서 제외시켰으며, 공자(孔子), 진섭(陳涉), 외척들을 ‘세가’ 에서 배제시켰다. 그 결과 육조시대에는 〈한서〉가 〈사기〉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나라 역사가인 유시기는 이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사통(史通)〉을 편찬하였다.

열전, 고승전 기술의 모범

‘열전’ 에서 ‘열’ 이 배열 혹은 서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전’ 은 전기 또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사마천은 ‘열전’ 속의 개인의 전기를 개인의 역사로 확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라고 해서 주인공의 삶을 모두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는 ‘관안열전’ 에서 관중과 안영의 생애는 무시하고 단지 그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두 일화만을 담고 있다. 그리고 ‘중니 제자열전’ 에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후반부터 이름만 나열하고 있다.

〈사기〉의 ‘열전’ 70편은 격동과 파란의 시대를 살다 간 인물 70인들의 전기를 담고 있다. 제후 왕들은 천하의 패권을 쥐려는 야심을 품고 일치(一治) 일란(一亂)의 전쟁을 이어갔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야심을 실현시켜 줄 실력자 그룹이 필요하였다. 이들은 통치자의 사상을 실현시킬 사상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가, 전략을 승리로 이끌 장수, 세 치 혀 하나로 출세하여 천하를 제 손 안에 쥐락 펴락 하였던 세객(說客) 등 다양한 인물들이다. 여기에서 사마천은 ‘열전’ 에서 해당 인물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제시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황제를 보필하였던 이들의 전기를 담은 ‘열전’ 은 〈사기〉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여기에는 짐승 소리를 흉내 내는 재주로 맹상군의 목숨을 구한 모수(毛遂), 진나라의 동방 진출을 막기 위해 여섯 나라의 동맹을 위한 합종책(合縱策)을 제안하여 15년간 6개국의 재상을 역임한 소진(蘇秦), 6개국의 동맹을 허물고 진나라와 횡적인 동맹을 구축하는 연횡책(連橫策)을 제시하여 진나라 중심 천하통일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해낸 장의(張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전기를 집대성해 놓았다.

이처럼 사마천이 시도한 이 ‘열전’ 즉 ‘전기’ 형식은 이후 남북조 시대의 양(梁)나라에서 간행된 혜교(慧皎)의 〈고승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 고승전은 다시 당나라 도선(道宣)의 〈속고승전〉, 송나라 찬녕(贊寧)의 〈송고승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구법승과 전법승의 역사라고 할 불교사의 주요한 사서로 자리매김 되었다. 고려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 역시 〈사기〉 ‘열전’ 의 형식을 계승한 것이며, 일연의 〈삼국유사〉 ‘의해’ 편 속의 조목 역시 ‘열전’ 의 기술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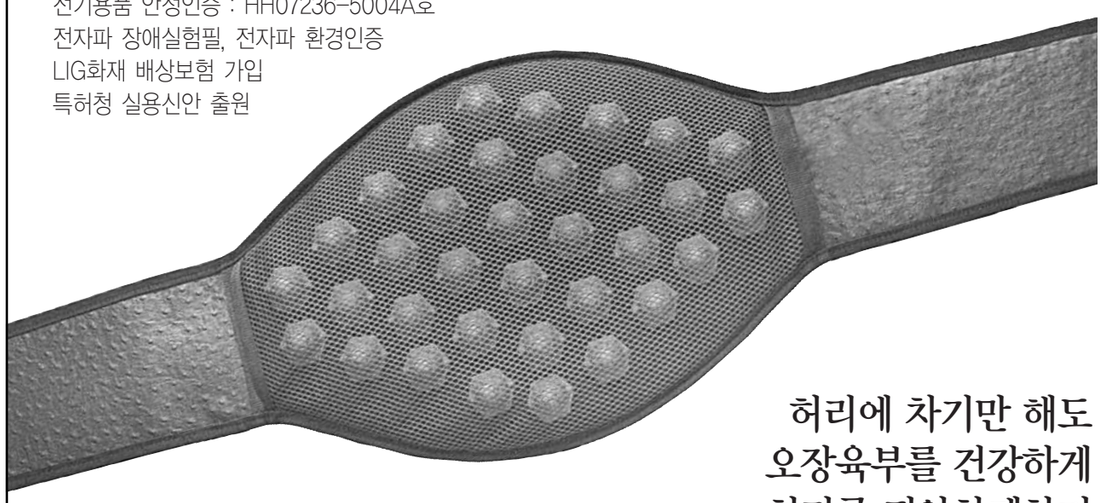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반문

동양역사학의 전범이자 중국 최초의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 쓴 중국 고대 통사이다. 여기에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보면 이들 중에서 본기와 세가와 열전, 세 편은 서로 보완하면서 처음과 끝을 하나로 꿰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열전’ 의 ‘화식열전’ 은 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말하고 있어 현대판 경영학 원론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편작 창공열전’ 은 한의학의 역사와 임상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한의학의 명편이어서 건강을 위한 필독서로 삼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고대 점술의 실상을 보여주는 ‘일자열전’ 과 ‘귀책열전’ , 문학의 장르인 한부(韓賦)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사마상여열전’ ,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대관계사를 보여주는 ‘조선열전’ 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마천의 〈사기〉는 천하 경영의 왕도이자 인간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깊은 인간 이해가 담겨 있고 넓은 세계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학과 고전학을 아우르고 있는 인문학의 가로축인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로 뻗어가는 가로의 씨줄과 인문학의 세로축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으로 세워가는 세로의 날줄로 짜여진 한 편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이자 장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학덕과 덕행이 높은 승려인 고승의 전기를 담은 역대의 여러 고승전의 기술 형식은 모두 〈사기〉의 ‘열전’ 형식을 원용하여 변용한 것이다. 한 인물의 전기 형식이 모두 ‘열전’ 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를 되묻고 있다. ‘인생을 허비한 죄’ 즉 ‘인생을 낭비한 업’ 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의식하며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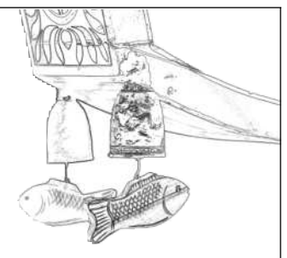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자기 소는 버리고 남의 소를 세어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다. 그래서 버려 둔 자기 소는 모진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숲 속에 잃어버려 그 수가 날로 줄어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공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한다면, 마치 저 소 먹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라. 스스로 자기를 바루지 못하고 어떻게 능히 남을 바룰 수 있겠는가.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음범패학인모집(무료)
불교전통의식을 꼭 배우고 싶은분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고자 하오니 종단 승속에 관계없이 참여바람
• 수행기간: 1년(매주1회 3시간)
• 수행과목: 천도재,49재 의식
무등범음범패보존회
연락처:061)371-3135
010-5919-313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688-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고성)
010-3865-0114

비구니 기도스님 구함
신심돈독한 법당 보살님
(나이제한 없음)
010-2844-6444
010-3579-6444
051)721-0449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사찰포교원 양도 창설할 분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상담
야간도 통화 환영
010-5381-14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감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대주스님의 영기수기도
• 영기수란? 몸속의 사기를 몰아내며 天時地財를 불러드린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목재 필요하신 분
(가격은 절충가능)
• 목재 : 법당 50평 지을 수 있는 양
큰기둥 6개, 도리(기둥감),
60여개(육송),
서까래 600-700개(원목 육송)
010-3112-8732
경남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 6번지 화림사

가난한 사찰을 도와드립니다
사찰의 발전을 위하여 불후의 보불을 제공해 드립니다
불사를 꼭 하실 사찰만 전화부탁합니다.
스님 합장
010-7534-48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매주 토,일요일 치유명상
* 강력한 변화와 힐링(부부,자녀,조상,진로)
2 원네스 깨어남 코스
*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성공,번영,건강,성장
* 매주 화, 수요일 저녁 7시 무료명상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문자)

대 작 불 사 권 선 문
큰인연으로 약사여래불 조성불사에 설판이나 시주하여 주시는 분에게 큰스님 글씨와 그림 3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으로 몸과 마음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량복덕을 받으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연락처 : 054)853-3855 만허 합장
※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산승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622-24-0064-982 (예금주 : 유명혜)
농 협 729-02-117074 (예금주 : 유명혜)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 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주지직인 개인(改印)공고
•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상기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14년 3월 11일부로
개인하였으며, 이후 사용되는
전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휴휴암 주지 합장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라한은 항상 노력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다.
그리고 부처님은 대자비를 이루어 자비 로써 힘을 삼는다.."

- 잡아함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명상의 집(토굴)
- 위치 : 경남
- 총부지 : 970평
- 건물 : 4동
- 양도금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사찰(급)안내

- 경기 사찰 양도
- 목조법당 90㎡, 산신각목조 10㎡
- 요사채100㎡, 토지5,200㎡
- 등산로입구 아늑한사찰
- 주차장 있으며 유원지 부근 임
- 양도가액 : 13억원

(원주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 2층 법당
-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4억3천(조정가)

011-645-136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대지 : 163평, 법당 10평, 방4개
- 수세식, 현대식주방, 세간일체 양도함
- 법당앞 정원에 5층석탑, 2M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몸만오셔요

010-8902-7618

조용한 토굴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 실평수 315평, 건물평수 약 11평
- 조립식 컨테이너건물로 내부에 법당, 주방, 세면실, 방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유실수가 다량있으며 주위에 민가가 없는 한적한 곳임
- 가액 : 4,500만원 (도로, 전기, 자가수도, 인터넷 가능) 가격조정불가

010-5269-41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울산근교 약 15키로)
- 부지 2,182제곱미터(약660평)
- 마을과 저수지 푸른산 대나무숲 지대가 높으며 아름다운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하며 마당이 크고 약 25년된 암자로 건물은 수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으며 단청이 되어있음
- 건물은 보시하고 땅값만 받고 양도함 (주변시세 백만원)
- 가액 : 3억 5천만원(은행 1억 안고 2억 5천만원)

010-6536-350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전철역에서 3분)
- 2층, 45평, 방3개, 삼존불, 후불탱화 닷집, 원목탁자, 영단, 에어컨 2대 등
- 주차장(6년이상 운영하였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2)7620-108번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6898-911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부근
- 대지 500평, 법당15평,
- 요사채40평, 연못, 석탑, 석등
- 정원수 30년생 100여수 층수 제한 없이 신축가능
- 영어마을과 30M거리, 국유지 1,000여평 인접
- 가액 : 5억

010-5380-4761
010-2705-03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신축사찰
- 대지 250평
- 신축법당(20평) 2011년 준공 신축요사채(34평) 2012년 준공
- 대전에서 1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486-12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상사
- 법당 10평, 친견실 10평
- 공양간 16평(옥상사용)
- 주차용이,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천오백 월세 90만 시설비 2,500만원 법당내닫집
- 집기모두 새물건임

010-7236-1808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 부지 : 527평
- 법당 : 33평(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 요사채 : 40평 (방 3, 거실 1, 실내 다용도실 2)
- 기타 : 10평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CCTV)
- 가액 : 2억 3천만원, 스님 건강상 최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010-2544-48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내 중심지역
- 상가 2층 55평
- 언제든지 법회 가능
- 보증금 :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별도 상담 요망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0-9018-6656
033)533-994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오거리
- 대지 64평. 건물 2층 슬라부주택 3층 조립식 건물
- 요사채 : 1층 약 30평, 2층 약19평, 법당 3층 약 16평
- 삼존불 3자, 2.5자<동불> 약사여래불 목불 3.5자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융자 1억 포함>
- 주변 아파트 및 준상가지역

010-3409-450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8505-0101

토 굴 터 안 내

- 무인도 섬 양도(통섬)
- 위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 산 1,800여평(이용가능 무인도서)
- 건축가능, 도보이용가능, 어선접근가능
- 눈부신 모래백사장, 소나무 관심있으신분 사진보내드립니다
- 가액 : 2억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토지 총 3,020평, 대웅전 20평,
- 삼성각 7평, 용왕전, 요사채50평
- 가액 : 2억 9천만원(절충가능)

010-9395-6675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 지목 : 전(관리지역) 1,000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쳐 완비
- 가액:2억원(절충가능) 융자: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허 가능

010-2002-1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경기 이천 장호원 5분 15년절터
- 약 350평, 등기 300평 농가주택
- 뒤 언덕은 공짜땅, 해화나무 소나무 약 20주
- 현재- 세1,000만에 월35만 5월에 나감
- 볼곳 3곳 더 있음
- 가액 : 양도가 1억 / 전세 5천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40평, 대지총면적 45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725-5907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청 평 한 옥

- 대지 : 199평
- 건평 :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서울 최고의 명당수행터

- 삼각산보현봉 전체산야가 펼쳐보이고 기를 받는 서울중심의 명상치유터
-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자락 큰스님 수행터(조계사 20분거리)
- 천혜의 힐링산책로 품고있는 위치
- 실건물은 약30평, 한옥식 단독주택임 이용하는 토지는 약 300평 이상임
- 가액 : 3억2천 직접 방문요

010-8800-322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 대지 94평, 건평20평, 황토집(법당, 방2칸)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500만원

011-3911-3646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시장건물 4층
- 평수 : 약50평 및 계단 옥상사용
- 삼존불, 소불 600외 탱화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77만원 불사금 2,700만원
- 경남 산사 불사 완료 관계로 이전

010-9296-604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고려대 사거리 부근
- 방3, 거실, 3층, 도로변
- 임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2)6085-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대지 324평, 요사+인법당 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일억원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 ~ 3분거리
- 보증금 : 2천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경남에서 포교하기 좋은 오래된 사찰

- 위치: 마산에서 10분거리
- 목조 토기와 25평
- 요사채 35평, 대지 200평, 산신각
- 전망 최적
- 가액 : 3억

010-5494-64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743번지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대지175평,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도량
- 가액 : 2억

054)776-5482
010-5439-1232

별 장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명당터
- 사찰 포교원 갤러리 요양시설 최적임 (불사 크게 일어날 "터"입니다)
- 부지 : 3750㎡ (구, 1134평)
- 가액 : 65억 (연락 후 방문해주세요)

051)861-2233 (금호부동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대지 708㎡, 건물 250㎡
- 신도분들 오기시 편안한 도심사찰
- 시설완벽, 주차가능
- 가액 : 5억 5천만원

051)861-2233 (금호부동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남산역 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정남향, 주차장
- 최고급시설, 냉난방, 바닥전체 필름난방
- 보증금 1,5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9317-919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서산
- 법당1, 요사채1, 산신각, 집무실1
- 주차장 100대주차 가능
- 가액 : 전세 3천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월세도 가능함
- 몸만오셔도 가능합니다

010-5404-921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부근
- 대지 200평 건평(기와집 30평, 별채 10평)
- 유실수 다수, 텃밭 깨끗하고 예쁜 토굴
- 비구스님이 계시던 곳
- 가액 : 9천 5백만원

011-231-2581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4천만원(가격조절가능)

010-7466-770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7139-5566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입구
- 실평수 85평, 법당 약 30평, 큰방2, 종무실, 다용도실, 욕실(게르마늄 황토 찜질방) 주방(시설 1년 안됨)
- 보증금 1,000만원 130만원 시설비 3,300만원 협의절충
- 몸만오시면 됨, 부재시 문자 주세요

010-3606-2442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김해시 도심속사찰
- 건물전체 단청필(동불상 안치됨)
- 대지 86평, 건물120평(지하1층, 지상3층)
- 방5개, 옷방1개, 공양실, 주방, 화장실2개 (비품일체포함)
- 약 40평, 1층 전체법당
- 불사하기 좋은 도심사찰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현시세 6억 5천 → 5억
- 내부시설검색 네이버(주소창) 토토부동산.COM

전화접수 010-3873-3353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21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80평
- 도시가스 취사난방 설치
- 가액 : 6억9억(은행융자 3억원)
- 절충가능

010-6237-5964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6〉 누적된 감정의 통합

조건 없이 느낀 '불편한 마음'은 에너지가 된다

나는 누적된 감정을 통합한다

감정 통합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감정체(emotional body)가 본래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그리고 '누적된 감정(charged emotion)'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자.

현재의 이 순간에 육신의 가장 차원 높은 용도는, 현존의 온전한 능력이 세상에 의식적으로 닻을 내리게 하는 초점이 되는 것이다. 육신이 가진 삶은 현 순간의 자각을 달성할-다시 말해 지금의 이 경험 속에 '등장할' -하나의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체와 감정체 역시 그 능력이 가장 높은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조율돼 있어야 한다.

정신체의 가장 차원 높은 용도는 '주의' 의 초점이 목표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다. 또 감정체의 가장 차원 높은 용도는 '의도' 를 추진해줄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신체는 당신의 '존재할' 능력을 찾아주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며, 감정체는 다양한 감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연료 탱크와 같다. 연료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 것처럼 감정체도 다양한 강도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감정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누적된 감정은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치유' 가 필요한 무엇이 아니란 뜻이다. 당신의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을 통합이 아니라 치유나 수리가 필요한 무엇으로 간주하는 것은 깡통이 깡통 따개를 치유가 필요한 무엇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깡통 따개는 그저 깡통을 따는 데 사용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다시 말해 움직이는 에너지)역시 그러하다. 누적된 감정은 통합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당신의 누적된 감정 속에는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해 '당신을 열어줄'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누적된 감정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료전지와 같다. 통합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연료전지는 진정한 변화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이 움직임은 돌이킬 수 없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아동기에 각인된 감정은 당신의 몸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시간 속에서 살면서 '더 좋은 시간' 이나 '더 편안한 시간' 을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좋음과 나쁨, 편함과 힘듦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바삐 오간다. 당신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에서 도망하여 저 경험을 좇아가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란 스스로 만든 인식의 감옥의 벽을 이리저리 튕겨 다니는 것이란 사실이다. 이 소동은 상당히 많은 외부적 활동을 촉발하고, 당신은 그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당신이 얻어낼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좋은 느낌이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는가를 기준으로 공부의 진척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감정의 성숙, 다시 말해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일에 관한 한 '좋음' 과 '편안함' 은 결코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개 회피와 저항과 부인을 나타내주는 표시일 뿐이다.

현 순간의 자각 속에서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흐르는 에너지와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 순간의 자각 속에서는 모든 감정 상태를 다양한 강도를 지닌 움직임을 추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등급의 연료로 간주한다.

가능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감정 통합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좋은 기분' 을 느끼려는 노력으로부터 어떤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는 열린 상태로 점차 옮겨간다. 이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하면 당신이 겪는 모든 힘겨운 경험들, 다시 말해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모든 감정들을 감정 통합을 위한 기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감정 통합 절차에 완전히 숙달되고 나면 더 이상 불안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 통합 절차를 사용한 결과, 이제 당신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삶의 모든 상황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감정 통합 절차

△1단계: 메신저에 걸려들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마다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지금 당신에게 마련된 사건이나 사람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건이나 사람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온 메신저(messenger)로서 당신이 처한 엉망이 된 상황을 종식시켜주러 온 이(mess-ender)이다. 메신저는 통합되지 못한 과거로부터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당신의 기억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메신저를 쏴 죽이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존은 당신에게 그 같은 메신저를 끝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정 통합 절차의 첫 단계는 '메신저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다.

△ 2단계: 메시지를 받는다(통찰). 감정 통합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내면으로 주의를 향한 다음, 마련된 상황에서 경험되는 감정 반응의 에너지 울림을 느낌과 직감으로 만나야 한다.

△ 3단계: 조건 없이 느낀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투사를 내주고 통합을 돌려받는다. 이것은 조건 없는 담아 안음을 통해 이뤄진다. 담아 안는 것(containment)과 억압(suppression)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억압은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 하는' 행동이다. 그 경험을 당신의 의식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억압이다. 반면에 담아 안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 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며, 처음에는 '저 밖에서' 일어나는 줄로 알았던 일의 원인이 실은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네가 아프다는 걸 알아. 네가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 사실을 인정해. 이제 이 불편을 의식적으로 느낄거야. 그렇게 네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거야. 그리고 평화의 느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네게 응답할 거야."당신이 느끼는 불편의 근원자리에 서서 조건 없이 느낌으로써 당신은 통합의 과정을 시작한다.

이 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당신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성질은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의 반영이란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또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상대방'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해준다. 균형을 잃은 어른이란 다름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한 아동이다. 조건 없이 느끼기만 하면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은 통합된다.

누적된 감정…치유 아닌 통합 필요
마치 사용하지 않은 연료전지 같아
언젠가 괜찮아 지리라는 낙관대신
성장 위해 나타난 기회라 생각해야

신체적 현존감 받아들이기

신체적 현존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응적인 행동으로부터 응답적인 행동으로 영구히 옮겨가기 위한 첫 단계다.

신체적으로 현존하지 않으면 당신은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없다. 응답적 행동은 인과의 원인을 다루어서, 당신의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감정적 누적물로부터 싹트는 불편한 느낌을 통합시켜줄 것이다.

몸 안에 현존하지 못할 때, 당신은 정신의 영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식은 과거 혹은 미래라는 관념적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환영인 이 정신 영역에서 자신이 인식한 것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외부로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는, 통합되지 못한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에 자동반응하는 것은 자기파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당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마다 호흡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인 연결호흡은 '시간 속에서 사는' 정신적 매몰 상태로부터 당신의 의식을 구출해내는 신속한 방법이다. 당신은 이를 통해 신체적 현존감을 쌓고 유지시킬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경험을 제대로 통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시간이라는 환영의 굴속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 꿈의 세계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는 괜찮아지리라고 가상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정신적 도피가 구원의 은총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현존 수업을 통해 통찰을 얻고 나면 이 같은 반응적 행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게 된다.

이제는 당신을 과거와 단절시켜놓은 힘겹고 두려운 경험들 모두가 당신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기회라는 사실을 조금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감정 통합 절차를 꾸준히 밟기만 하면 누구나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누적된 감정을 하나씩 통합해가는 것은 감정의 연료전지를 하나씩 얻는 것과 같다. 그 연료전지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당신의 경험에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두려움과 후회의 대상으로 당신 뒤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과거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위해 교묘하게 마련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현 순간의 자각의 실현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뿐이다. 이런 정신적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를 내려놓은' 뒤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인 누적된 감정을 조건 없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스토리에 집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대신 과거를 선택한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경험을 향해 가고, 그것을 통과해 빠져나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주의(attention)와 의도(intent)이다. 주의는 정신체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초점을 맞추는 '이유' 에 관한 것이다. 어느 순간에나 당신 경험의 질은 당신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주의와 의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이 두가지 인식적 도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현존해야만 한다.

당신이 정신적 능력을 갖춘 이래로 줄곧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스토리들이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 신념들을 추동하는 감정적 누적물의 대부분은 당신이 정신적, 관념적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에 각인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 스토리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 스토리들은 모두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당신의 신념은 그 환영과 같은 마음의 논리회로를 만들어내고, 당신은 이 모든 외견상의 혼돈과 불확실성을 이해해보려는 필사적인 수단으로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의와 의도를 이 스토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짓이다. 심리적 차원에서 이것은 정신이상 상태다. 그것을 '정신적으로 된다' (being mental, 통용되는 뜻은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이 스토리들 가운데 어떤 것도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인간적 경험을 해석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없고, 당신의 감정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의식 속의 핵심적인 신념들을 당신의 현재 경험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짓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 삶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운전자가 되기로 선택해야 한다.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스토리를 내려놓는 것' 이다. 설령 당신이 자신의 스토리에 법정도 손을 들어주리라고 믿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적된 감정이 빚어내는 곤경에 대한 정신적 해석일 뿐이다. 스토리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어떤 스토리도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한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 만이 현존에 대한 자각과 현 순간이 발하는 빛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 빛은 당신이 당신 존재의 참된 표현과 하나가 될 때마다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 (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대지 250평
• 법당 목조건물 약30평
• 절경최고건물 4동
• 가액 : 은행2억안고 9억
010-3808-4499
051)925-3800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 / 서보호 이재무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군
• 대지 : 약 4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 물좋고 산세,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308-0876
011-9588-0998

조그마한암자(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상운면 문촌리 (신라 약수암)
• 대지 200평
• 법당20평(가건물), 요사채 24평
• 가액 : 1억5천만원 (하실분만 가액상담)
• 절전답 2800평도 있음(별도)
010-9004-721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상계동(영험한 기도도량)
• 사용공간 약200평, 텃밭, 산신각, 용신각, 나한전,
• 법당 및 요사채 약 40평,
• 가액 : 양도 3억 전세1억 2천, 월세 8,000만원에 40만원
010-5299-978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교보생명 옆, 울산시청 앞
• 4층 건물중 3층, 법당1, 방1, 공양간1, 화장실
• 총 5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8928-949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수산
• 약 90년된 고찰, 도사바위, 약물 폭포수 있음
• 대웅전, 미타전, 칠성각, 산신각, 요사채
• 뒷산 시부지 10만평 사용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6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33)762-634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 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청동불상 포함 3,900만원 부처님 빼면 2,500만원
010-2251-337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 - 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38-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대로변
• 3층 건물에 2층(3층 옥상사용가능)
• 지장보살님, 약사여래, 종
• 내부수리 깨끗,법당, 주방1, 상담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8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3293-17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별장같은 사찰 안내
• 위치: 충남도청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총평수1,020평(대지: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50평(법당 및 요사체1. 2층)
• 마당에는 400년된 느티나무. 오래된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
• 가격 : 8억8천
주인직접 010-9805-5528

토굴(급)안내
• 주소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대지326평 법당.요사채.삼존불.지장.신중.
• 칠성탱화, 방5개
• 정부지원금 5천만원가능
• 가액:7천500만원
010-4296-8200

사 찰 안 내
• 주소 : 경남 창녕군 IC 부근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 완벽한 법당 시설,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절충 가능)
010-2575-987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선원, 포교원 임대
• 위치 : 함안군 산이면 신산리 1292-3 입곡유원지 입구
• 부지 444㎡ 134평, 임대건축면적(별관제외)
• 1층 14㎡ 4.3평 / 2층 167.9㎡ 51평 / 3층 150㎡ 45평 / 4층 15.4㎡ 4.7평 / 계 347.3㎡ 239평
• 주변 녹지조성, 서쪽 강변 접함, 넓은 주차장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80만원
양지건설 011-874-6562
055)287-146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2층 28평
• 주차장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보증금, 년1백만원 또는 1천5백만원, 월 40만원
010-4534-66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사찰도 할 수 있고, 발효식품과 사찰음식점도 할 수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한옥집 3채가 있습니다
• 가액 : 전세(상담후 결정)
010-3521-6920

갤러리 색즉시공



〈영월 법흥사-징효국사 부도〉

입멸(入滅)

몇 십 년의 세월이 고요해졌다.
물어볼 것도 들려줄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소란스러울 때 일이다.
나, 너.

우리만 묻고 또 묻는다.
듣지도 않으면서 또 묻는다.
모든 것이 소란스러울 때 일이다.
길, 또 길.

마른 풀잎 밑에 푸른 잎 들었고
이른 봄 햇살 끝에 그림자 하나 들었을 뿐.
그 사이에 무슨 길이 있다고.
가는 길까지 묻는가.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인간을 믿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 '俠客'

Buddha in Comic & Ani
⑥ 문정후의 '용비불패'



〈용비불패〉1권 표지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달' 이라고 부른다. 이 '건달' 이라는 말이 불교의 팔부신중인 '건달바(乾達婆)' 에 기인했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아무튼 동네 형님들이 스스로 즐겨 사용하는 호칭 중 하나가 바로 '협객(俠客)' 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감격시대' 에서 나오는 주먹패들도 스스로 '협객' 임을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협(俠)' 이라는 말이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중국 영화 · 소설 장르 중 하나인 '무협(武俠)' 에서다. 구대문파와 오대세가, 사파와 마교 등 공통된 세계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펼쳐지는 무림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팩션' 의 원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깊이가 방대하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무협 장르가 만화를 통해 오래 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다. 故 이재학, 하승남 등 유명 대본소 만화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1980년대 무협 만화 시장을 이끌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신진 작가들이 등장하고 대중 만화 시장에서 활약을 펼쳤다.

대표적인 작품이 문정후 작가의 〈용비불패〉와 전극진, 양재현의 〈열혈강호〉다. 〈용비불패〉는 지난해로 17년 연재를 마무리했으며, 1994년 시작한 〈열혈강호〉는 지금까지도 연재가 진행 중이다. 10년 이상의 연재를 기록한 장수만화인 두 작품은 현재도 한국 무협만화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 중 〈용비불패〉는 매우 눈여겨볼 작품이다. 정파와 사파, 마교의 이념 대립 등 정형화된 무협 장르 특유의 거대 서사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파, 사파 등 문파 간 세력 다툼에서 벗어나니 인간이 이야기의 중심에 섰다. 이것이 〈용비불패〉의 매력이고, 이를 이끄는 것은 주인공 용비다. 여기에 촘촘한 스토리 전개, 당대 최고 수준의 작화는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용비는 대장군부 암살부대의 수장이었고, 전장에서 수 많은 전승을 기록한다.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전투에서 적 부족을 괴멸시키는 성공하지만 대장군부의 간계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잃는다. 이후 용비는 '수전노' 현상금 사냥꾼이 돼 범죄자들을 잡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재벌인 율목인의 아들 율무기를 만나게 되고 엄청난 재물이 있다는 황금성의 실체를 알게 된다. 황금성에 대한 소문은 강호를 뒤 흔들고 물욕에 빠진 무림인들은 모두 황금성으로 간다.

이야기는 용비가 황금성의 재물을 얻기 위해 무림 고수들과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전개되지만 이면에는 용비가 돈을 모으는 이유와 과거의 인과에 대한 '결자해지' 가 있다. 특히 최근 완결된 '2부 외전편' 은 용비의 '결자해지' 가 주요한 이야기다.

한국 코믹무협의 양대산맥
지난해로 17년 연재 마무리
스토리 · 작화 당대 최고 수준

문파 아닌 주변인을 중심으로
주인공 '결자해지' 과정 통해
잃어버린 '俠' 의 의미를 찾아

작품의 후반에 가면 용비가 치졸할 정도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는 자신이 몰살시킨 부족 유민들의 생계를 돕고 있었고, 간계를 파악하지 못해 죽어간 부하들의 가족과 식솔들을 살펴왔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 주인공 용비는 자신의 저지른 원죄에서 눈을 돌리기 않고 참회의 길을 걸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무협물의 오랜 주제인 '협(俠)' 과 마주할 수 있다.







〈용비불패〉의 한 장면들. 〈용비불패〉에서 황금성을 찾기 위한 과정은 표면적 이야기이다. 내면에는 용비의 대장군부 암살부대 시절 저지른 악업을 참회하기 위한 '결자해지' 여정이 담겨있다.

'협에 임함(任俠)' 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信義)' 이고, 자신을 알아주는(知己)에게 보답(報)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사가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2002)〉에 나온다.

"강호에 떠돌며 의지할 것은 사람들과의 사귐이야. 신의를 중히 여길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강호에서 살아갈 수 있지.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

부족의 왕야는 자신들의 괴멸을 알면서도 적인 용비를 죽음에서 구했고, 자신들의 부하도 대장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신의를 다하기 위해 용비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현상금 사냥꾼 노릇을 하고 이렇게 얻어진 재화를 통해 참회와 보답을 한다.

'협(俠)' 이란 글자는 본디 '옆구리낄 협(夾)' 에 '사람 인(人)' 부수로 만나 만들어진 글자로 '호협하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호협하다' 는 것은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하다' 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이후의 일에 대해 그 댓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 바로 '협(俠)' 의 길이라고 하겠다.

총과 대포가 무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권법과 병장기로 싸움을 하는 무협을 끊임없이 찾는 것은 결연한 의지를 가진 '협객' 들을 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불신과 불통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협(俠)' 일 수 있겠다. 신중일 기자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착은 두지 마세요

견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문) 불교에서 견성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견성을 했다는 스님들의 행적이나 어록, 또는 경전에서도 내면의 이끎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견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경전을 파악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알고 그 경전을 증득한 거하고, 내 마음을 증득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경전을 증득한 거는 말이나 모든 것은 다 유창해도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모든 일체를 다 거기서, 고놈이 하는 거니까 고놈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러고 다 놓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고놈이 있다는 것은 고놈이 증명할 수 있다.' 이러고 다 놓아라. 그 나를 끌고 온, 나를 진화시킨 그 장본인에게.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둘이 아니게. 그래서 내가 나를, 과거의 내 조상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전에도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들의 묘지고 하나는 자식의 묘지다. 그런데 날더러 묻기를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이 하나가 돼 버리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오면 아비가 하나가 돼 버리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 하는 거를. 그랬을 때에 그것이 왜냐.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온 정신을 다해서 거기 일을 하니까 자식이 하나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두루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전에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더러. "이 대 경을 전체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닥친 거를 어찌할 바가 없더라." 하고요. 그 마음의 도리와 경과 선과, 인제 교가 둘이 아니게끔 된 거는 다 모두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굴왕신이 내려서 집을 못 짓는다든가 손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간다든가, 이 터가 나빠서 못 짓는다든가, 산소 자리가 나빠서 못 쓴다든가 이런 문제에 닥칠 때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꼭 당하고야 말죠.

그러나 법의 능력이 그렇게, 나 자체와 나 자체가 상봉을 했다면 그건 선과 교가 둘이 아니에요. 모두 일체가 둘이 아니죠. 그리고 그대로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남한테 화두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지, 내가 없는데 무슨 종교가 있고 부처가 있고 세상이 있느냐. 나부터 알아라 이겁니다.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알라고 그랬죠? 너부터 믿으라고 그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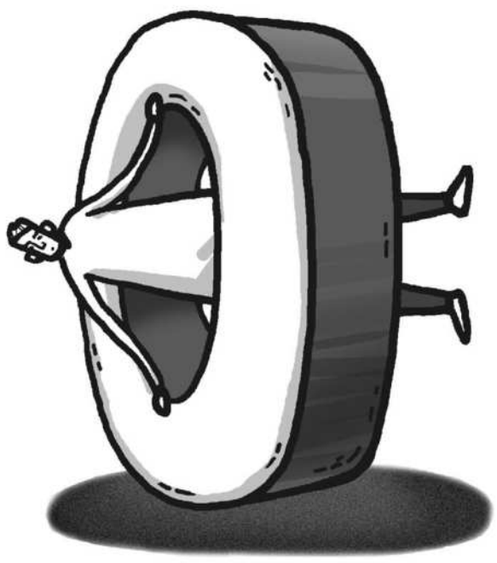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고치지도 못하고 막 쓰러지는 병이 동네에 발생을 하니까 도대체 그냥 앞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날까지 배우고, 이날까지 이론적으로는 다 배우고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닥치니깐 어렵더라 하고는, 그냥 나 하나 버리면 되지 하곤 그냥 거기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가, 내가 문젭니다. 나 버리는 데의 문제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고정됨이 하나도 없죠? 변하고 부서지고 모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그게 그대로 공한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공했기 때문에 내 몸도 그대로 있지 않고 공해서 돌아가죠. 고정되게 그냥 있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나는 거나 다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걸, 어떤 걸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이름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이름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언니라는 이름, 오빠라는 이름, 형이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또 사회에 나가서 장가들고 시집가면 며느리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또는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뭐, 천차만별로 이름이 많죠. 그 이름 따라서 아버지 노릇 할 때에 나라고 할까요, 남편 노릇 할 때 나라고 할까요,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할까요? 그러니깐 전부 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알면,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죽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모두가 고정됨이 없다는 걸 알고, 뭣이든지 심봉이 끼어져야 바퀴가 굴러가죠? 맷돌도 심봉이 끼어져야 맷돌이 굴러가듯이 차도 심봉이 끼어져야 바퀴가 돌아가죠. 그렇듯이 인간도 이 심선이 서야 모든 게 일체 그걸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을 그냥 선으로, 주장자로 세워 놓고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이열치열로서 들어가면 없어지고 들어가면 없어지고,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넣으면 앞서 게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앞서 게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라. '하나' 하고 '둘' 하면은 벌써 '둘' 할 때 하난 없어져요. 그러곤 하나예요, 그게. '셋' 해도 하나 둘이 없어지고 셋이 그냥 하나죠.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인 한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러니 삼 배를 올리고 백팔 배를 올려도 아무 소용 없고, 모든 것은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둥글려서 일 배를 올려도 만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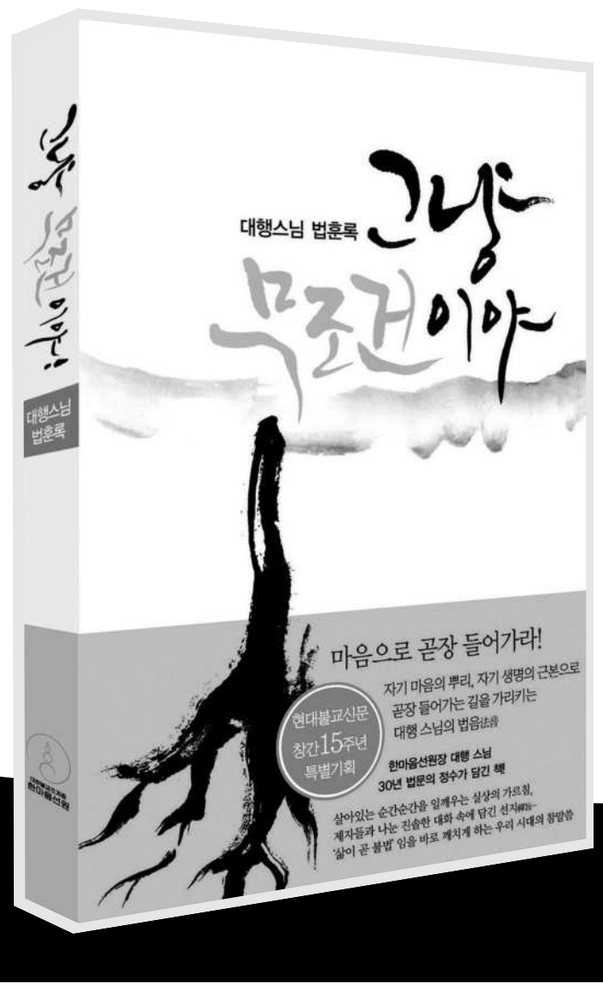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뭐 일 배만 해도 만 배가 된다는데….' 이러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삼 배를 올릴 때는 삼 배를 하고 바쁠 때, 무슨 경우에 따라선 또 일 배로 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공해 버렸으니까 나라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없잖아요. 자기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무(無)라는 소리를 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하니까 "없다." 하더니 또 한 번 물어보니까 또 있다, 있다 없다를 다 떠나면,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어린애를 하나 생산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딱 다 없어지고 애만 생산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거 앨 쓴 사람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전자와 전자가 작용을 하면은 그 양자의, 즉 말하자면 질량은 다 없어지고 에너지 광력만 나와서 큰 덩어리를 이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나가 그 작용을 하는 거를 다 놔라 이 소립니다. 전자와 전자가 작용을 하는 거를 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에너지 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하여튼 모두 여러분이 지금 여여하게 살면서도 사는 게 없다. 여여하게 사는 반면에 여여하게 살기 때문에 무다. 없다.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무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에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놔야 된다. 맡겨야 된다. 무조건 맡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화살을 쏘는데 똑바로 탁 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놓지 않으면 苦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어가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일로 가서 맞고 절로 가서 맞는다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전체를, 원을 이렇게 해 놓고선 전체를 그냥 중심을 꿰뚫는 건데, 꿰뚫는 공분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뭣고? 이놈이, 이럭하는 놈이 뭣고?' 이거는 10년 20년이 가도 어렵습니다. '이놈이 모두 집어먹고 가는 놈이로구나. 그리고 내놓는 놈이고 들여놓는 놈이고, 들여놓고 내놓는 거를 다 하는 놈이로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빨라요.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

문) 둘 아니게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에 대하여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더불어 주고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옷도 더불어 같이 주고받고 입고 먹는 것도 주고받고 먹고, 모두가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둘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째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전깃줄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다 이럴 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면의 전깃줄을 갖다가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주고받을 때, 이게 한순간에 같이 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둘 아니게 이어진단 얘깁니다. 이어지니깐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단 얘기죠.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옛날의 머슴은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듣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한 찰나찰나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요,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둘이 아니다라는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둘이 아니라는 것만 말로 알고 있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단 얘기죠. 항상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째서 둘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를 줬고 내가 저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닐까. 근데 한순간 전깃줄에 닿는 거와 같단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빨라서 한생각에 그냥 그저 갖다 놓고 '고맙다', '고맙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고맙단 말 없이 그냥 고맙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만 둘이 아니게 실천이 되느냐 이겁니다.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줘도 그 상대방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져 버려요. 합쳐지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도 끄면 안 나오죠. 켜면은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하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그게 둘이 아니가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은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모두가 한 철의 살림살이니까 우리가 착을, 식구에도 착을 두지 말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되, 너 나 할 거 없이 전부 사랑을 베풀고 그러되 착은 두지 말자. 죽어도 같이 갈 수도 없고 또 아파도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대신 자 줄 수도 없고, 그러니 아예 놔서 참, 울지 않고 돌아서서 뼈저린 눈물 안 흘리게 우리 탁 놔 주자. 그냥 주인공이 끌고 다녀야 된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면은 탁 놓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고생거립니다. 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말로는 잘해 주고 사랑해 주고 다 하면서도 이 착은 두지 마세요. 옆에서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아주 무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말도 좋게 해 주고 다 이렇게 그냥 뭐, 더 십 배 천 배 다 해 주되 착은 두지 말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리만큼 말입니다. 그래야 모두 고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가설이 벌써 아들이라는 가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 그렇게 딱 불을 켜 놓으면 다른 데도 다 불이 들어옵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에 가면 인등을 단다 뭘 한다 하는데, 백일만 이 세상이 움죽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이지. 마음의 불을 켜세요. 우리가 마음의 불을 켠다면 나도 밝고 남도 밝고 다 밝게 해 줘요. 여러분, 그걸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배 속에서 막 그냥 쑤시고 막 짓두들기고 그렇게 부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제재하느라고 또 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거든요. 그럭하는 거 모르시죠? 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간단하게 조끄마한 물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본다면요, 궁이에요, 궁. 작게 보면 작은 거고 크게 보면 큰 거예요. 전체 우주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우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저 모두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금방 이 다리를 못 쓰고 그래도 '아이고, 약을 먹으면서 해야지 더 빠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아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버리세요, 그냥. 죽거나 말거나. '네가 끌고 다니는 건 네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가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버리라니까요. 그렇게 버리면 얻게 되고 버리지 않으면 아예 그냥 죽어요.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한 찰나에 한 백 지장 사이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산철벽을 뚫고 세상을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느냐 얘기죠. 그러니 알아서들 해요.

이렇게 길을 일러 드렸는데 이것처럼 좋은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꼭 한번쯤은 이 백지장을 뚫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우린 그래야 또다시 거듭거듭 태어나서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그 고에서 허덕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도, 많은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제도가 되니까 자기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제도가 되느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말세가 맞는가 봐요

문) 예전부터 지구 종말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말세가 맞는가 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하는지요.

답) 그거는 자기네들 생각에 따라서 지어지는 얘기들이지 포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땐 말세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 불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 각자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문젭니다. 마음으로써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죠? 틀림없이 받게 돼 있어요,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명이 짧지만 저 태양계나 은하계 별성이나 이런 건 수명이 길단 말입니다. 지구 자체도 그렇고요. 지구 자체도 집과 같습니다. 우리 몸뚱이와 같은 거예요. 기냐 짧으냐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몸 하나를 가축하는데, 이 몸을 막 혹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뭐….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마음을 두고 했다면 별 문제 없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인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집이 망가지죠.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건실하지 못하면 지구도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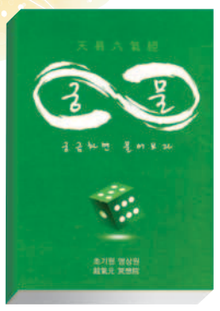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들은 지구의 대기권에 의해서, 지구에서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그 들이고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에서 입자로 분자가 돼 가지고 대기권을 지키고 들이고 내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나가는 건 그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그 작용 때문입니다, 생명의 작용. 우리 인간도 이 몸에, 즉 말하자면 3미터 안팎으로 이거는 보호신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털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습들, 의식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깐 세균성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나쁜 거는 내보내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작용을 합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말세요? 왜, 예전에 내가 스물 몇 살에도 말세가 오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더니 심판은 다 받고 넘어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도 심판을 받는 것이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대로, 저 지금 지옥이란 게 딴 데가 지옥이 있는가요? 그리고 말세가 오는 것이 딴 데서 오는가요? 그게 전부 마음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끌려가고 잘못하지 않으면 안 끌려가죠. 끌려가는 게 말세죠? 이 마음에 따라서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마음이라는 건 보이질 않아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아요.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데 그 감옥을 일부러 마음으로 지어서 그냥 모두 바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요.

형제지간에도, 자식 부모지간에도 "너 요놈의 새끼, 고렇게만 해 봐라. 고렇게 너 깡통을 차기 똑 참하다." 이렇게 욕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는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 식으로 마음속으로다, 거죽으로는 욕을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다 증오하고 그럭한다면 그냥 바깥으로 꼭 그렇게 돼요.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죠. 팔자 운명은 붙을 데가 없습니다. 과거는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배낭 속에 모두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에는 공했으니깐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 붙을 자리가 있어서 말세가 오고 뭐가 오고 그럽니까. 모두 마음들이 잘못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벌어지는 건데. 말세가 오는 것도 마음이요, 말세를 안 가져오는 것도 마음이요, 마음에 따라서 말세를 안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말세가 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세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온다 안 온다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 주인공에다 무조건 믿고 맡겨 놔야 됩니다.
무조건 맡겨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화살을 쏘면 똑바로 탁 들어가야 되는데
화살이 일로 가서 맞고 절로 가서 맞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체를 그냥, 중심을 꿰뚫는 공분데 말입니다.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삼보양초



①원기등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 타 레 홈 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 2BOX이상 구입 시 그을음 없고 무향, 고급향 1SET 무료증정 합니다.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불자 세상보기

법당에서 키스, 공영방송 이래도 되나



무현 스님
보경사

현대사회에서 TV 방송이 가지는 힘은 크고 대단하다. 방송이 올바르게 제작되고 방영됐을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잘못 전달될 때는 개인은 물론 해당 단체에 마음의 상처와 큰 피해를 준다.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의 찬사를 받고도 안타깝게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7분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은 해쳐 온 것은 통감한다. 하지만 KBS 해설자가 그 감회를 해쳤다. 해설자는 중계방송을 하면서 "길고 긴 수행을 했다. 수행을 마쳤다"라는 말을 했고, 아나운서도 이 같은 말을 받아서 따라했다.

몇 년동안 수많은 땀을 흘리고 갈고 닦았으니 수행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종교는 종교마다 특성이 있고 그에 맞는 언어가 있다. 수행은 스님들이 평생을 갈고 닦는 행위다. 그 말은 위의에 맞게 쓰여질 때 아름답다. 굳이 불교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아름다운 경기를 하는 선수' 라거나 '경기' 나 '연기' 라는 발언을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KBS 1TV에서 매주 방영되는 '열린음악회' 에서도 종교적으로 불편한 장면들이 속출하기도 한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년이라고 방송을 하면서 진행자가 추기경이 남긴 말들을 어록이라고 말한다. 실제 '어록' 이라는 말은 유명인들의 말 모음에도 사용된다.

대부분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으나 어록은 중국과 한국의 옛 조사 스님들의 말씀집을 말한다. 유구한 한국불교의 역사가 우리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주는 단초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잘은 몰라도 정작 천주교에서는 어록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 영역인 방송도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이야기하면서 제작자나 진행자는 다른 종교도 알아보고 생각하고 하는 방송이 됐으면 한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일전에 KBS 1TV '진품명품' 에 도산 안창 호선생이 만든 지승발우가 나온 적이 있다. 한 전문위원이 "스님들 공양그릇"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술까지 담아 먹었다"라는 말을 했다.

발우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의 공양그릇이지 술 먹는 그릇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용품을 감정해온 전문위원이 기본 상식도 없고 자격이 없는 멘트를 한 것이다. 이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KBS 담당 PD에게 항의해 "재발방지 하겠다"는

불교 무시 '무관심' 안타까워

숱 불교인 몰이해 지적해야

내용의 사과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은 이미 방영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불교문화는 방송에 의해 훼손됐다고 본다.

요즘에는 KBS 2TV에서 드라마 '감격시대' 를 하고 있다. 일본의 망언과 우경화에 맞서 일제 당시 우리 민족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사찰 법당 안에서 주인공이 부모 위패를 모시고 울컥해 이내 여자 주인공과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효(孝)사상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또한 불쾌하기까지 했다. 부모의 위패가 있는 자리에서 남녀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하물며 장소가 부처님이 있는 법당이다. 성스러운 공간에서 남녀상열지사라니…. 개탄할 뿐이다.

불교에 대한 몰이해가 방송이 되는 대도 정작 불교인들은 관심이 없다. 세상일이 바빠서인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인가?

불자들의 무관심은 불교를 좀 먹는 행위이다. 무관심하다보니 불교의 권익이 침해당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 한 예로 불교유치원, 어린이집 하나가 없어 불자 어린이들이 교회 유치원을 다니는 지역이 서울 곳곳에 존재하는 데도 신경쓰는 스님과 불자는 없다. 이웃 종교인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외국에 포교를 가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종교가 불이익과 대중적 몰이해를 당하고 있다면 마땅히 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스님을 비롯해 모든 불교인이 돌아보고 각성해야 할 일이다.

쿠시나가르 성지 기행

죽음의 두려움 벗어나 바람처럼…



이근동
대구대 명예교수

속세의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고자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갖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를 망설이다가, 교수불자연합회의 일원이 돼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 나섰다.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인도기행에 동참하였다.

여러 방문지 중 하나인 석가모니의 열반 및 다비장소인 바이샬리와 쿠시나가르를 방문했다. 쿠시나가르에는 석가모니의 다비식을 치른 람바르 스투파와 석가모니가 입멸한 자리에 세워진 순백의 사원 열반사를 참배할 수 있었다. 석가모니의 사리는 처음 7개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전 세계 84,000여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 다섯 곳이 있는데, 법흥사 · 봉정암 · 상원사 · 정암사 · 통도사가 그곳이다. 이들을 특별히 5대 적멸보궁이라고 하고, 이 사찰의 대웅전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부처님 다비 후 얼마나 많은 사리와 유골을 수습했는지는 모르겠고, 더욱이 그 사리가 우리나라에까지 유입된 경로를 잘 알지 못한다. 허나 불교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생의 잔유물인 사리를 수습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법열의 경지에 들기 전까지 하나의 인간이었다. 불교란 자아성찰과 구도의 종교요, 그것도 이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갈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되었다. 입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염불만 하고 석가모니에게 기원만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입멸의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의 각자일 뿐이다. 그러니 절대로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상을 만들고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 아무래도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였으니 그 정도의 신성화 작업이 필요했으리라. 그러나 이후 불가에서 법열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한 선사들까지 너도나도 사리를 수습하여 부도탑을 만드는 나쁜 전통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불교교리에 따르면 내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생에 무슨 미련이 남아 살아왔던 흔적을 그렇게 남기려고 아등바등 대는가? 이런 점에서 평상복에 평소 휴식하던 대나무 평상 위에 눕혀 다비하되 사리도 수습하지 말고 절대로 신자들로부터 보시금을 걷어 부도탑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시고 홀홀히 피안의 세계로 떠나신 법정 스님이 바로 이 땅에

명예와 재산은 잠시 빌린 것

주변에 회향하는 마음 갖길

죽어서 다시 탄생하신 한국의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행복이란 사회적 지위와 재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얻어진 명예와 재산은 은퇴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살이를 위해 잠시 빌린 것임을 알고,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운이 좋게도 나에게 그런 처지에 있게 한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향(回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설법하는 것 같았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운수납자가 되어 먼 길을 떠나보라는 원주 스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뇌리에 맴돌았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12일 동안 실천한 기분이다.

인도 여행 동안 홀로 정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지병(持病)에 시달리면서 간간히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웰에이징에 대한 생각을 더러하게 된다.

이번 인도기행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이의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여안고 가야 할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란 화두를 조금이나마 깨우쳐 생과 사는 하나이고, 최후의 순간은 제 무게를 이기 못하고 땅으로 툭 떨어지는 밤톨과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하였다. 비단 법열(法悅)의 순간에 도달하지는 못할 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름처럼 바람처럼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社說

늦게 발동한 불교 지적재산권 보호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이다. 각종 문화콘텐츠들이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문화 예술분야의 작품들처럼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 영화계의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라 하겠다.

불교에도 전국 사찰과 성보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원형 콘텐츠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적 재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모르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남 좋은 일' 만 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창작물에 대한 활용이다. 사찰에서 아이디어와 소재, 비용을 제공해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창작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혹여 외주를 통해 2차 창작물을 만들 경우 작품에 대한 권리가 사찰에 있음을 계약 조건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조계종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 과 상황별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알리는 사업을 연중 진행하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불교지식재산이 활용되면서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러 있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업들은 불교를 바로 알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의 지식재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사찰과 종단에 중요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흐름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소외여성 위한 불교의 역할 강화 절실

지난해 경상북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주여성 7천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이혼했고 90여명이 남편과 사별했다. 이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 지난 3월 5일 진오 스님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인 달팽이모자원을 개원한 이유다. 달팽이모자원은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모자가족 6명이 입주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에 따르면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 중 여성복지 관련 분야는 약 4%대로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 각기 25%에 해당하는 노인과 아동 복지 분야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다. 특히 종교별 여성복지 참여 비율도 천주교 46%, 기독교 20%, 불교 11%대로 불교계가 제일 낮다.

미약하나마 최근 불교계는 이주여성에게도 관심 가지며 미혼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여기에는 자립형공동체, 긴급보호시설, 상담센터 등 여성 소외계층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시설들도 한 몫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지원시설인 '달빛둥지' 를 비롯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변 보호 및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빛' 이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서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긴급상담과 보호를 실시한다. 어울림 역시 아동 ·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천태종 서울 명락사가 국내 처음으로 2009년 개원한 다문화모자가정 보호시설인 명락빌리지도 있다.

새 불교복지 모델을 대안가족이나 소외계층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복지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소외계층을 위해 불교계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가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 3,200원 (60개이상)
- 바림등(10.5㎝) @ 6,000원 (32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 3,600원 (60개이상)
- 공단등(10.5㎝) @ 7,000원 (32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A형(100개) 160,000원
- 비닐만월등B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비닐팔각만월등(100개) 22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비단접등10.5㎝(100개) 340,000원
- 비단접등 12㎝(100개) 350,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5,000원
50㎝ / 1m / 2m 기타주문생산

한지칼라등지 완성
8cm 30,000원
10.5cm 40,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등철사 4종 (100개)
6㎝ 75,000원
8㎝ 80,000원
10.5㎝ 85,000원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00,000원[국산]
1BOX : 50개 (0.87W)
색상 : 촛불색/주광색



고추전구/대추전구
25,000원/35,000원
1BOX : 100개
고추전구:10W / 대추전구:8W



PVC등표 (100개)
내지 12,000원
집게 20,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